

농업법인의 자본투자 실태와 정책과제

Capital Investment by Agriculture and
Food Corporations and Policy Suggestions

임소영 이수환 최현동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법인의 자본투자 실태와 정책과제

Capital Investment by Agriculture and
Food Corporations and Policy Suggestions

임소영 이수환 최현동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 담당

임소영 | 연구위원 | 연구 총괄, 제1~5장 집필

이수환 | 부연구위원 | 제3장 집필, 농업법인 면접 조사

최현동 | 연구원 | 자료 수집 및 정리, 농업법인 면접 조사

연구보고 R2025-08

농업법인의 자본투자 실태와 정책과제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5. 12.

발 행 인 | 한두봉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세일포커스(주)

I S B N | 979-11-6149-804-1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 속에서 농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전문 농업경영체의 성장이 중요하다. 농업법인은 농업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규모화와 전문화를 이끌어온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였지만, 최근 농업법인의 성장세는 둔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농업법인의 자본투자 감소와 맞물려 성장 동력의 약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투자는 규모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필수 요인이므로 투자 감소는 법인의 성장 동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자본투자가 경영성과 제고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자본투자의 장애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농업법인의 투자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농업법인의 자본투자 실태를 분석하고, 투자 활동이 성장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농업법인 투자 위축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자금 조달 여건과 제도적 제약 등 내·외부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농업법인의 투자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농업법인의 자율적 투자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농업법인의 경영 개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들에게도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연구 수행 과정에서 자료 제공과 자문에 협조해 주신 농업법인 관계자, 그리고 심도 있는 논의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전문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5.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한 두 봉

요 약

연구 목적

- 농업법인의 성장과 수익성 확대를 위해서는 성장의 재료가 될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며 투자가 반드시 수익성·성장성에 기여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연구가 투자의 긍정적 효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 투입을 통하여 규모화와 시설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 그러나 농업법인의 자본투자액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자본투자의 감소로 인해 농업법인의 수익성 및 성장성이 악화하였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실제 투자 감소의 영향이 있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정량분석은 이루어진 바 없다. 일반 기업의 경우 자본투자와 수익성과의 관계가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되었으나 농업법인의 경우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 자산 유형에 따라 투자 규모가 농업법인의 수익성이나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농업법인의 자본투자가 수익성 및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농업법인의 투자가 저조한 이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농업법인 자본투자의 효과를 평가하고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농업법인의 내·외부적인 과제들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자본투자가 농업법인의 경영성과 개선에 기여하였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투자가 농업법인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한다. 또한 농업법인 자본투자의 양적 감소 및 투자 효과 감소의 원인을 파악하고 자본투자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농업법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일반적인 제도나 개항과 관련해서는 농업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다루지만, 면점을 비롯한 심층 분석에 있어서는 외부 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작물 재배(식량, 원예)와 축산 등 생산 법인과 식품기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체가 농업을 기반으로 전방산업으로 확장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에서 다루는 ‘투자’는 농업법인이 규모 확대 또는 시설현대화 등을 위하여 유형자산에 지출하는 행위를 말하며 외부 자본의 농업법인 투자와는 다른 것으로 본다.
- 농업법인의 자본투자는 설비투자(유형자산)와 기술개발투자(R&D 등 무형자산)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설비투자에 한정하여 분석한다. 기술개발투자는 설비투자와 성격이 다르고 투자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사업 영역 간 기술개발의 수준이나 범위, 파급효과가 이질적이기 때문에 정량적인 비교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생산을 주 사업 영역으로 하는 농업법인에게는 기술개발보다 당장의 유형자산 확보가 더 중요한 이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연구는 설비투자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 연구 방법은 크게 문헌조사, 정량분석, 정성분석, 전문가 자문 등이다. 문헌조사는 자본투자와 재무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문헌 검토, 자본투자 활성화 정책과 관련된 문헌 검토를 진행하였다. 정량분석의 경우 농업법인의 자산 투자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4~2023년 농업법인 재무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종속변수는 농업법인의 재무적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수익성 지표와 성장성 지표를, 설명변수로는 핵심 변수인 설비투자 지표 더미와 함께 각 업체의 특성과 재무안정성, 외부 환경 변수 등을 사

용하였다. 정성분석은 농업법인 대표 및 재무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22개 업체를 방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화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업법인 제도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농업법인의 자본 조달 및 투자 확대의 관점에서 제도 개선과제 자문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 농업법인은 지난 10년간 외형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성장세는 점차 둔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자산·자본·매출액 등 규모 지표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성장성 지표나 수익성 지표는 꾸준히 하락하였다. 재무안전성의 경우, 비록 타인 자본 활용도는 높으나 지표 자체는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법인의 투자 활동은 성장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투자 횟수와 함께 성장단계 상승 가능성이 커지며,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투자 실행이 농업법인의 수익성과 성장성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시설 투자는 농업법인 성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양면적 특성을 보인다.
- 평균적으로 농업법인은 성장 압박 단계(본 연구에서 제시한 성장단계 중 3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업법인 중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업체가 있지만, 대다수 농업법인은 영세한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성장 동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법인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농업법인의 투자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적으로, 법인의 경영성과는 투자를 매개로 하여 법인의 내·외부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경영성

과가 농업법인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경영성과가 개선되는지 혹은 악화하는지에 따라서 후속 투자 여부가 결정되므로 장기적으로는 경영성과와 투자 간의 순환구조가 있다. 따라서 법인의 내·외부적 요인은 투자와 경영성과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정책 제언

- 농업법인의 투자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단기적인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시장 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에 간섭하고,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농업법인의 정부 의존도를 낮추어 자생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방식이나 기준 설정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자금 지원체계를 경영체의 독립에 맞추어, 스스로 성장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실제 성장을 이루어낸 업체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다음 세대의 농업법인 진입을 촉진하여야 한다. 다수의 영세법인이 난립하기보다는 수가 적더라도 건실한 농업법인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여 농업법인의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한 세부 정책과제로서 ①우수 성과 농업경영체의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 ②경영자금 적립 지원을 통하여 자구적인 경영위험관리 문화를 조성할 것, ③보조사업 지원 자격 강화 및 보조율 상한 설정을 통해 정부 자금 활용을 보다 신중하게 선택하도록 유도할 것, ④경영자의 자금 조달·관리 역량 제고를 통해 농업법인의 재무관리 능력을 높일 것, ⑤승계를 창업과 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창업 지원 시 승계를 포함할 것, ⑥농업법인의 수출 등 시장개척을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Capital Investment by Agricultural and Food Corporations and Policy Suggestions

Purpose of Research

- To enhance the growth and profitability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it is essential to expand investment, which serves as the driving force for growth. Although investment involves risk and does not necessarily guarantee improvements in profitability or growth, numerous studies have demonstrated its positive effects. Therefore, without sufficient capital input to achieve scale expansion and facility improvement, it will be difficult to expect future profits.
- However, the amount of capital investment by agricultural corporations has been on a declining trend. This decline is presumed to have weakened their profitability and growth potential, yet no quantitative analysis has been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such a reduction in investment has had an actual impact, and if so, to what extent. While the relationship between capital investment and profitability has been empirically examined for general corporations, there is a lack of corresponding research for agricultural corporations. Moreover, the impact of investment scale on profitability and growth may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asset, but studies addressing this issue are also limi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how capital investment affects the profitability and growth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and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heir low investment level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s of capital investment by agricultural corporations and to identify internal and external challenges to revitalizing such investment. Specifically, it quantitatively analyzes whether capital investment has contributed to improving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and examines its role in fostering their growth. In addition, the study seeks to identify the causes of declining investment levels and diminishing investment effects, and to explore strategies to expand capital investment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ultimately promoting the sustainable growth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Research Method

- This study broadly examines all agricultural corporations in relation to general institutional frameworks and overall trends. However, for in-depth analyses, including interviews, the focus is placed on production-oriented corporations—such as those engaged in crop cultivation (food and horticulture) and livestock farming—as well as food companies that face difficulties in attracting external capital. This focus reflects the fact that many agricultural businesses expand into upstream industries based on their agricultural operations. In addition, the “investment” addressed in this study refers to expenditures that agricultural corporations make on tangible assets for

the purpose of expanding scale or modernizing facilities, which is considered distinct from external capital investment in agricultural corporations.

- Capital investment by agricultural corporations can be divided into facility investment (tangible assets) and technology development investment (R&D and other intangible assets). This study limits its analysis to facility investment. Technology development investment differs in nature from facility investment and requires a long period for outcomes to materialize. In addition, the level, scope, and spillover effects of technology development vary significantly across business areas, making quantitative comparative analysis difficult. Moreover, for agricultural corporations whose primary business lies in production, securing tangible assets in the short term is considered a more critical issue than technology development. For these reasons, this study focuses primarily on facility investment.
- The research methodology consists of literature review, quantitative analysis, qualitative analysis, and expert consultation. For the literature review, prior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pital investment and financial performance, as well as literature related to policies promoting capital investment, were examined. For the quantitative analysis, financial data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from 2014 to 2023 were used to analyze the impact of asset investment on managerial performance. The dependent variables are indicators representing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namely, profitability and growth measures. The explanatory variables include a facility investment indicator dummy as the key variable, along with firm characteristics, financial stability indicators, and external environmental variables. The qualitative analysis involved visiting or, when necessary, conducting telephone interviews with 22 corporations located across various regions, targeting CEOs and financial management personnel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Lastly, expert consultations were conducted with specialists in agricultural corporation systems to obtain policy recommendations regarding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capital procurement and expansion of investment in agricultural corporations.

Main Findings

- Over the past decade, agricultural corporations have achieved outward growth, but their growth momentum has gradually slowed. Indicators of scale—such as assets, capital, and sales—have generally increased, whereas indicators of growth and profitability have steadily declined. In terms of financial stability, although the level of leverage remains high, the stability indicators themselves have shown gradual improvement.
- Under these circumstances, investment activities have been identified as a key factor determining the growth potential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As the number of investments increases, the likelihood of advancement to a higher growth stage also rises. Regression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investment activities have a positive impact on both profitability and growth indicators. Thus, while facility investment plays a critical role in the growth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it also entails financial burdens, demonstrating a dual nature.

- On average, most agricultural corporations appear to remain in the “growth pressure” stage (Stage 3 in this study’s growth-stage classification). Although some corporations are growing rapidly, the majority remain small in scale and seem to be losing growth momentum. To restore their growth drivers and enhance management performance, it is crucial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both investment and business outcomes. Overall, corporate performance can be viewed as the result of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operating through investment. Conversely, business performance also affects investment decisions, as improvements or deteriorations in performance determine whether subsequent investments are made. In the long run, this creates a cyclical relationship between management performance and investment. Accordingly,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influence both investment and performance, generally in the same direction.

Policy Suggestions

- The revitalization of investment by agricultural corporations ultimately requires an approach that considers not only short-term

increases in investment but also long-term sustainability. Accordingly, the government should intervene in the market only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undermine market principles, and should improve its support mechanisms so that firms can grow naturally through competition. It is necessary to reduce agricultural corporations' dependence on government support by changing the methods and criteria used for providing financial assistance, enabling them to become self-sustaining. It would be desirable to align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with the independence of the business entities, shifting toward a model in which additional incentives are granted to corporations that prepare for growth on their own and actually achieve it.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o facilitate the entry of the next generation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Instead of a proliferation of numerous small and vulnerable firms, policies should be designed to promote the sustainable growth of a smaller number of sound agricultural corporations, thereby strengthening the overall foundation of the sector.

- As detailed policy tasks to achieve these goal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 ① establishing a system for identifying and supporting high-performing agricultural enterprises to create an environment conducive to providing incentives;
 - ② fostering a self-reliant culture of managerial risk management by supporting the accumulation of operating funds;
 - ③ encouraging more prudent use of government funds by

- strengthening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subsidy programs and setting upper limits on subsidy rates;
- ④ enhancing the financial management capability of agricultural corporations by improving the funding acquisition and financial management competencies of managers;
 - ⑤ recognizing business succession as equivalent to start-up creation and including succession within start-up support programs; and
 - ⑥ supporting market development activities, including export promotion, for agricultural corporations.

Researchers: LIM Soyeong, LEE Soohwan, CHOI Hyeondong

Research period: 2025. 1. - 2025. 10.

E-mail address: sylim@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범위와 방법	7
3. 선행연구 검토	8
제2장 농업법인의 경영 현황	19
1. 농업 및 농업 연관 산업 동향	21
2. 농업법인 제도 도입 배경과 운영 현황	25
제3장 농업법인 자본투자 실태와 효과	35
1. 농업법인 자본투자자 경영성과 실태	37
2. 자본투자자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	56
3. 요약	84
제4장 농업법인 대상 면접조사	85
1. 농업법인 운영 현황 조사 개요	87
2. 조사 결과	88
제5장 농업법인의 자본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105
1. 농업법인의 성장과 요인	107
2. 정책 기본방향	114
3. 세부 정책과제	115

부록

1. 농업법인 시설 자금 지원사업	125
2. 농업법인 인터뷰 업체 특성	135
참고문헌	139

표 차례

제1장

〈표 1-1〉 농업법인 자산유형별 설비투자 실적	4
----------------------------------	---

제2장

〈표 2-1〉 산업별 부가가치 변화 추이(명목)	22
〈표 2-2〉 농업법인 제도 현황	26
〈표 2-3〉 농업법인 종사자 현황	27
〈표 2-4〉 농업법인 농지 현황	28

제3장

〈표 3-1〉 표본 업체의 운영 기간	41
〈표 3-2〉 종사자 규모별 분포	42
〈표 3-3〉 기업 규모 구분 기준	43
〈표 3-4〉 성장단계별 업체 분포	44
〈표 3-5〉 기간 내 성장단계 이동 비율	45
〈표 3-6〉 법인 대표의 성별 및 연령대	46
〈표 3-7〉 사업유형별 재무 지표의 분포	47
〈표 3-8〉 종류별 유형자산 규모	50
〈표 3-9〉 사업유형별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 규모	51
〈표 3-10〉 지가지수 연평균 증감률(2014~2023년)	57
〈표 3-11〉 자료 기간 내 투자 횟수	58
〈표 3-12〉 성장단계 이동 여부에 따른 투자 횟수	59
〈표 3-13〉 산업유형별 투자 횟수 및 유형자산 증감률	62
〈표 3-14〉 종속변수 목록	66
〈표 3-15〉 독립변수 목록	67
〈표 3-16〉 농업법인의 산업유형별 유형자산 증가(5%)가 ROA·ROE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	69
〈표 3-17〉 농업법인의 산업유형별 유형자산 증가(5%)가 매출 증가율·영업이익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71
〈표 3-18〉 농업법인의 산업유형별 유형자산 증가(3%)가 ROA·ROE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	75
〈표 3-19〉 농업법인의 산업유형별 유형자산 증가(7%)가 ROA·ROE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	76
〈표 3-20〉 농업법인의 산업유형별 유형자산 증가(3%)가 매출 증가율·영업이익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79
〈표 3-21〉 농업법인의 산업유형별 유형자산 증가(7%)가 매출 증가율·영업이익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80
〈표 3-22〉 농업법인의 산업유형별 유형자산이 매출액·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	83

제4장

〈표 4-1〉 면접 업체가 활용한 보조사업 예시	95
----------------------------------	----

부록

〈부표 1-1〉 농업법인 관련 보조사업	125
〈부표 1-2〉 농업법인 시설 관련 융자사업	130
〈부표 1-3〉 농업법인 시설 관련 신용보증사업	133
〈부표 2-1〉 농업법인 인터뷰 업체 특성	135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연도별 법인 평균 자산 증감액	5
---------------------------------	---

제2장

〈그림 2-1〉 산업별 명목 부가가치	22
〈그림 2-2〉 농·축·임산물 수출입 동향	24
〈그림 2-3〉 연도별 농업법인 수	26
〈그림 2-4〉 농업법인의 사업유형별 비율	28
〈그림 2-5〉 농업생산에서 농업법인이 차지하는 비중	29
〈그림 2-6〉 법인당 평균 자산, 부채, 자본 추이	30
〈그림 2-7〉 농업법인의 업체당 매출액 추이	31
〈그림 2-8〉 매출액 규모별 농업법인 비율	31
〈그림 2-9〉 농업법인의 영업이익 추이	32
〈그림 2-10〉 농업법인 부채비율	33
〈그림 2-11〉 농업법인의 영업이익률	33
〈그림 2-12〉 농업법인 매출액 성장률	34

제3장

〈그림 3-1〉 회사형태별·사업유형별 업체 분포(n=3,362)	39
〈그림 3-2〉 사업유형별 농업법인의 지역별 분포	40
〈그림 3-3〉 농업법인의 성장단계 구분	43
〈그림 3-4〉 표본 업체의 연도별 평균 매출액	48
〈그림 3-5〉 자산규모별 표본 분포	48
〈그림 3-6〉 표본 업체의 연도별 규모 변화	49
〈그림 3-7〉 표본 업체의 손익 변화	51
〈그림 3-8〉 표본 업체의 수익성 지표 추이(2014~2023년)	52
〈그림 3-9〉 표본 업체의 성장성 지표 추이(2014~2023년)	53

〈그림 3-10〉 표본 업체의 재무안정성 지표 추이	55
〈그림 3-11〉 투자 여부에 따른 자산가치 변화 추이 예시	57
〈그림 3-12〉 연도별 유형자산 증감률 및 투자 실행 비율	60
〈그림 3-13〉 업력별 평균 투자 횟수	61
〈그림 3-14〉 대표 연령별 평균 투자 횟수	61
〈그림 3-15〉 법인 대표의 연령 및 업체 업력 추이	62

제4장

〈그림 4-1〉 농업법인과 개인 농가의 연령 분포 비교	89
〈그림 4-2〉 농업법인 유형 구분	103

제5장

〈그림 5-1〉 개별 기업의 성장 곡선	109
〈그림 5-2〉 농업법인의 경영성과 결정요인과 각 요인 간 관계	110

제1장

서론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1. 연구 필요성

농업법인의 성장과 수익성 확대를 위해서는 성장의 재료가 될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며 투자가 반드시 수익성·성장성에 기여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연구가 투자의 긍정적 효과를 뒷받침하고 있다(Grozdić et al., 2020; Dang et al., 2023; Licandro et al., 2004; Amoroso et al., 2017; Curtis et al., 2018; Ester and Ballkoci, 2017; Sudiyatno et al., 2012; Pandya, 2017). 따라서 자본 투입을 통하여 규모화와 시설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수익이 확대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그런데 농업법인의 자본투자액은 감소하는 추세이다.¹⁾ 농업법인의 업체당 자본투자액은 2018년 3억 2,510만 원에서 2020년 4억 5,680만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23년 1억 9,260만 원으로 연평균 9.9% 감소하였다<표 1-1>. 조직 형태별로

1) 농업법인의 자본투자는 토지 및 설비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통계청 농업법인조사에서는 '설비투자' 계정으로 집계된다.

는 농업회사법인의 투자액이 연평균 10.4%씩 감소하였으며 영농조합법인은 10.5%씩 감소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의 투자가 더 침체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산유형별로 법인당 투자액을 나누어 살펴보면, 유형에 따라 변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토지 관련 투자가 가장 큰 폭(연평균 20.6%)으로 증가하였으며 동산과 무형자산, 건축 및 구축물이 뒤를 잇고 있다. 반면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는 큰 폭으로 감소하여 연평균 23.6%의 감소율을 보였다.

〈표 1-1〉 농업법인 자산유형별 설비투자 실적

단위: 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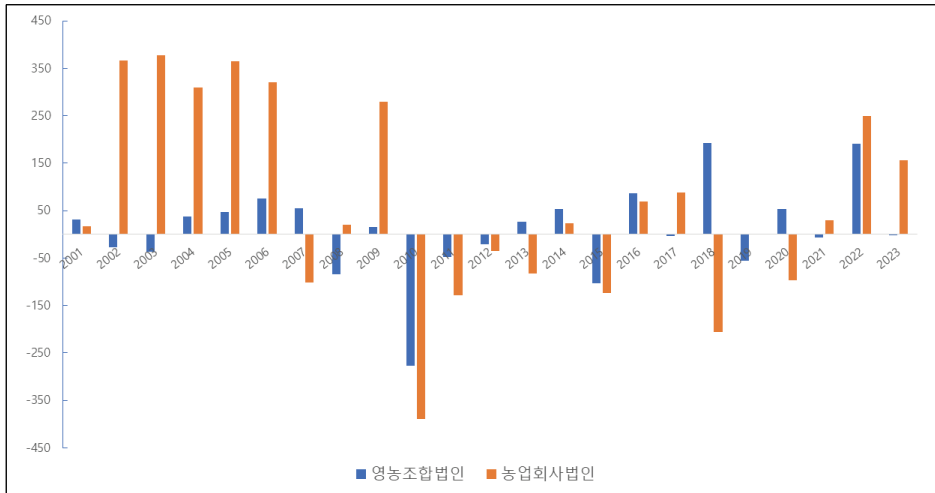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감률
영 농 조 합	계	3,929	1,757	1,577	4,969	3,276	3,659	-1.4
	토지 및 토지개발(농지, 초지, 기타)	475	587	194	2,266	1,839	1,482	25.6
	건축 및 구축물(스마트팜, 가공, 유통, 기타)	1,343	864	1,070	2,138	1,079	1,565	3.1
	기계장치	1,607	254	242	405	252	381	-25.0
	기타(동산, 무형자산)	504	53	70	160	106	231	-14.4
	법인 평균 투자액	2.504	1.549	2.262	1.764	1.921	1.434	-10.5
농 업 회 사	계	6,884	8,529	8,599	7,744	10,138	8,545	4.4
	토지 및 토지개발(농지, 초지, 기타)	1,152	3,157	2,230	1,773	2,665	2,668	18.3
	건축 및 구축물(스마트팜, 가공, 유통, 기타)	3,355	2,828	2,944	4,936	5,230	4,202	4.6
	기계장치	1,950	2,034	2,922	423	628	546	-22.5
	기타(동산, 무형자산)	427	510	502	613	1,615	1,129	21.5
	법인 평균 투자액	3.917	4.514	5.619	2.327	3.517	2.258	-10.4
전 체	계	10,813	10,286	10,175	12,714	13,414	12,205	2.5
	토지 및 토지개발(농지, 초지, 기타)	1,627	3,744	2,424	4,039	4,504	4,150	20.6
	건축 및 구축물(스마트팜, 가공, 유통, 기타)	4,698	3,692	4,014	7,074	6,310	5,767	4.2
	기계장치	3,557	2,287	3,165	828	880	927	-23.6
	기타(동산, 무형자산)	930	563	573	773	1,720	1,361	7.9
	법인 평균 투자액	3.251	3.402	4.568	2.069	2.924	1.926	-9.9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업법인조사.

연도별 자산증감액 변화 추이를 통해서도 투자 현황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2009년 이후로 자산의 증가가 눈에 띄게 일어나지 않고 있어 농업법인의 신규 투자는 정체된 상태라고 판단된다<그림 1-1>.

〈그림 1-1〉 연도별 법인 평균 자산 증감액

단위: 백만 원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업법인조사.

자본투자의 감소로 인해 농업법인의 수익성 및 성장성이 약화하였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실제 투자 감소의 영향이 있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 정량분석은 이루어진 바 없다. 일반 기업의 경우 자본투자와 수익성과의 관계가 연구를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되어 왔으나 농업법인의 경우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 다만 마상진 외(2020)는 농업법인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농업법인이 규모수익체증의 상황에 있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함을 밝혔다.²⁾ 박문호·임지은(2014)과 정재원 외(2018)는 농업법인의 부채와 경영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나 농업법인의 자본투자와 수익성 및 성장성과의 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산 유형에 따라 투자 규모가 농업법인의 수익성이나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상황이다. 토지의 경우, 생산요소일 뿐만 아니라 투기적 자산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어 자본 제약하에서도 농업법인의 선

2) 마상진 외(2020)에서는 매출액, 순수익을 산출 요소로, 종사자 수, 매출원가, 판매관리비를 투입요소로 하여 자료포락분석을 실시하였다.

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을 통해 부가가치를 확대하기보다는 토지에 대한 투기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는 농업법인의 성장성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농업법인의 자본투자가 수익성 및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농업법인의 투자가 저조한 이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과거의 자본투자가 농업법인의 경영성과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만 있었다면 이러한 경험은 경영자의 투자 결정을 위축시킬 수 있다. 생산 관련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내린 기대수익에 대한 인식, 의사결정자의 위험선호도, 구성원의 인적 특성, 종사 업종 등 내부적 요인이 농업법인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외에 농업법인 제도, 판매 제품의 시장 상황, 자본 조달 환경(금리, 대출한도) 등 외부적 요인도 농업법인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이 농업법인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적 요인을 검토하여 투자가 부진했던 원인을 조사하고, 농업법인 투자 부진의 원인에 따라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을 발굴하여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농업법인이 경영성과를 높여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금지원을 포함한 지원 정책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2.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농업법인 자본투자의 효과를 평가하고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 농업법인의 내·외부적인 과제들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자본투자가 농업법인의 경영성과 개선에 기여하였는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투자가 농업법인의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한다. 또한 농업법인 자본투자의 양적 감소 및 투자 효과 감소의 원인을 파악하고 자본투자를 양적·질적으로 확대하며 궁극적으로는 농업법인의 성장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와 방법

2.1. 연구 범위

이 연구는 일반적인 제도나 개황과 관련해서는 농업법인 전체를 대상으로 다루지만, 면접을 비롯한 심층 분석에 있어서는 외부 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작물 재배(식량, 원예)와 축산 등 생산 법인과 식품기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체가 농업을 기반으로 전방산업으로 확장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투자’는 농업법인이 규모 확대 또는 시설현대화 등을 위하여 유형자산에 지출하는 행위를 말하며, 외부 자본의 농업법인 투자와는 다른 것으로 본다.

농업법인의 자본투자는 설비투자(유형자산)와 기술개발투자(R&D 등 무형자산)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설비투자에 한정하여 분석한다. 기술개발은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영역 간 이질적이기 때문에 정량적인 비교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기술개발투자가 바이오, 식품 가공, 식품소재, 농기계 개발 등의 업종에 종사하는 회사에 더욱 중요한 투자 영역인 데 비해, 이 연구의 관심 대상인 농업생산 중심 법인에 있어서 기술개발투자는 상대적으로 시급하고도 중요한 성장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2.2. 연구 방법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 정량분석, 정성분석, 전문가 자문 등으로 이루어졌다. 문헌조사는 자본투자와 재무성과의 관계를 연구한 문헌 검토, 자본투자 활성화 정책과 관련된 문헌 검토를 진행하였다.

정량분석의 경우 농업법인의 자산 투자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4~2023년 농업법인 재무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종속변수는 농업법인의 재무적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써 수익성 지표와 성장성 지표를, 설명변수로는 핵심 변수인 설비투자 지표 더미와 함께 각 업체의 특성과 재무안정성, 외부 환경 변수 등을 사용하였다.

정성분석은 농업법인 대표 및 재무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22개 업체를 방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화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농업법인 제도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농업법인의 자본 조달 및 투자 확대의 관점에서 제도 개선과제 자문을 진행하였다.

3. 선행연구 검토

3.1. 농업법인 관련 연구

농업법인 일반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농업의 구조적 변화와 농업법인을 제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김수석·박석두(2006)는 농업법인 운영 실태에 관한 사례조사와 농업법인 경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동시에 외국의 농업법인 관련 정책에서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농업법인 제도의 법적·제도적·정책적 개선 방향과 그 실현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농업법인 제도의 문제점으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 생산과 서비스를 동시에 수행하는 농업법인의 특성상 정책의 목표 설정이 어려움, 서비스 업무 수행 시 지역농협과 경쟁 구도 발생, 농업법인 관리 기관 부재, 체계적인 지원 미비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농업법인의 발전 방향으로 기업농적

대규모 경영체 육성을 위한 기반 제공, 기존 농가 중심의 농업경영을 합리화하는 새로운 법인 경영체 창설 등을 제안하였다.

황의식·정호근(2008)은 마을 영농 사례를 분석하여 농업경영 조직화의 효과를 검토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일본의 마을 영농·집락 영농 형태 농가 조직화 사례와 함께 농업경영 조직화 사례 분석을 실시하여 마을 단위 농업경영 조직화가 영세소농의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적 경영 구조로 전환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초기 농가의 참여 유도, 높은 임차료 문제, 완전한 단지화 어려움 등의 한계도 함께 지적하였다. 농업경영 조직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지원 확대, 유통 시스템 개선, 조직 운영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장민기(2019)는 한국, 일본, 프랑스의 농업법인 제도를 근거법, 주요 법인격, 법인 현황, 평균 경지면적, 농지소유 가능 여부, 구체적인 사례 등을 통해 여러 각도에서 비교 분석함으로써 미래농업의 측면에서 농업경영체, 농업 주체의 문제를 점검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최용호·임준혁(2019)은 농업법인 제도의 도입 배경과 그 의미를 분석한 후, 제도와 농업법인 지원 정책의 변천 과정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농업법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종사자, 경지면적, 판매액, 출자자, 출자금, 정부지원금, 매출액, 자산·부채·자본 등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였다.

마상진 외(2020)는 농업법인 제도 및 지원 정책의 변천 과정과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농업법인 현황 및 경영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자료포락분석, 다중 회귀분석 등을 통해 농업법인의 효율성과 그 결정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농업법인 제도 및 관련 정책 및 관련 정책 개선 요구를 파악하고, 프랑스·독일·일본 등 외국의 농업법인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농업 여건 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상진·김유나(2020)는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마상진 외, 2020)’ 연구의 일환으로 농가의 농업법인 참여 실태와 제도 개선 요구를 조사함으로써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

였다. 이를 위해 농가와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농가 조사에서는 농업법인 참여 여부, 참여 의향 및 사유, 농업법인 제도에 대한 인식 등을, 농업법인 조사에서는 법인 설립 계기, 출자자 참여 활동의 활성화, 향후 사업 확장 계획, 농업법인 제도 운영, 경영성과, 정책 개선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김명아 외(2020)는 농업법인 제도를 개선하고 더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업환경 변화를 반영한 사업 범위 조정 및 법률 체계성 확보 제도의 개선방안 도출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전반적인 농업법인 관련 제도의 현황을 설립, 운영, 출자·조직 변경, 해산, 관리·감독 등 세부적으로 나누어 이에 따른 문제점을 정리하였으며, 개선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홍범교 외(2021)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6~68조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적용된 법인세 및 소득세 면제 제도가 농업법인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효과성과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평균소비성향방정식을 통해 소득분위별 소득지원 효과를 추정하였으며, 소득증가 효과 전후 소득 기준의 지니계수 변화율을 기준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해당 지원제도를 통한 농어가 소득변화 및 소득분배구조의 개선이 다소나마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농업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을 주장하였다.

농업법인의 경영 및 투자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는 농업법인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으나 투자 성과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국승용 외(2017)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약 1만 2천 개의 농업법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 유형별(생산, 가공, 유통, 기타, 농업 서비스업 법인) 투자실태(출자금, 자산, 부채, 자본 현황 등) 변화를 분석하였다. 농업법인 수는 생산법인보다 생산 외 법인 비중이 더 높으며, 그중 유통법인 비중(약 28%)이 가장 높았다. 사업유형별 출자 형태는 대부분 현금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출자금 규모는 조사 기간 연평균 약 16% 증가하여 2014년 기준 약 3조 7천억 원 수준이었다. 유동자산 규모는 유통, 가공, 축산 법인 순으로 크고, 비유동자산 규모는

축산, 가공, 작물 법인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규모는 주로 축산, 가공, 유통법인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유동부채의 경우 겸업 법인이 연평균 약 31% 증가하여 가장 높고, 비유동부채의 경우 기타 법인이 연평균 약 49% 증가하며 가장 높았다. 유형 자산별 투자 현황은 기계·기구 자산증가율이 연평균 약 51%로 가장 높았고, 특히 축산 법인의 자본투자가 다른 농업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경영상태 분석 결과, 2014년도 기준 유통법인을 제외한 모든 농업법인의 유동비율은 150%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부채비율은 모든 유형의 법인이 100% 이상으로 재무 유동성과 건전성이 양호하지 않은 상태로 분석되었다.

박문호·임지은(2014)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국내 약 8천 개의 농업법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농업법인의 사업유형 및 설립연차별로 농업법인의 경영성과를 수익성(영업이익률·총자본이익률·자기자본이익률), 안정성(부채비율·유동비율·자기자본비율), 성장성(영업이익증가율·당기순이익증가율·매출액증가율·총자본증가율)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농업법인의 수익성과 안정성 지표는 법인 설립 10년 차 내외에서 추세 전환점을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과 가공법인은 수익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중앙값(median) 이상의 실적을 보인 반면, 농업 서비스 분야는 가장 낮은 실적을 보였다. 농업법인의 생애주기(2~18년 차)를 기준으로 법인의 경영성과를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률은 설립 10~15년 차에 다소 높게 나타났고, 총자본이익률과 자기자본이익률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였다. 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은 설립 8년 차에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후 14년 차까지 등락을 반복하며 하락 추세를 보였다. 성장성 지표는 설립 2년 차에 가장 높고, 5년 차 이후부터는 증가율 변동 폭이 10%p 안팎으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농업법인의 영업이익률은 종사자 수, 매출액, 정부 용자금, 영농조합, 가공/유통법인이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부채총계, 정부 보조금, 출자자들의 공동 운영 등이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우석 외(2017), 임인섭·이철희(2016)는 국내 농업법인의 적정 부채비율을 산정하기 위해 2001년부터 2014년까지의 농업법인의 매출액영업이익률(ROS), 총자산회전율(TAT), 금융 비용률(net finance cost),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의 재

무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금융 비용률과 부채비율 간에는 선형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농업법인의 자기자본이익률을 극대화하는 부채비율을 적정 부채비율로 정의하였을 경우 약 138% 정도의 부채비율이 농업법인 전체의 자기자본이익률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미현·김태정(2009)은 국내 외부감사대상 24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2006년과 2007년 주요 경영지표를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성장성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유동비율, 부채비율, 차입금의존도 등의 안정성 지표와 총자산순이익률, 자기자본순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등의 수익성 지표는 2006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회전율, 자기자본회전율, 유형자산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등 활동성 지표는 2006년에 비해 변화가 없거나 일부 하락하였으며, 성장성 지표인 유형자산증가율은 다른 일반 업종에 비해 낮은 반면 재고자산증가율은 높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정재원 외(2018)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내 농업법인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농업법인의 유형별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에서는 농업법인의 수익성인 총자산순이익률(ROA)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유동비율(current ratio), 부채비율(debt ratio)과 이들의 제곱항을 사용하였다. 또한 법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법인 운영 기간, 상근 종사자 수, 농업생산 수입, 가공 수입, 유통 수입 여부를 더미변수로 포함하였고, 이 변수들 사이의 상호작용항(interaction term)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모두 유동비율과 부채비율은 총자산순이익률(ROA)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며, 유동비율 제곱과 부채비율 제곱항은 ROA값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모두 법인 운영 기간과 상근 종사자 수 모두 ROA에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생산, 가공, 유통 수입이 발생할 경우는 ROA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2. 일반 기업의 투자 관련 연구

투자 성과 연구와 관련하여,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도 설비투자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는 매우 부족한 가운데 일부 연구에서는 설비투자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기업의 경영성과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최수영·배진철(2021)은 기업의 설비자산에 대한 투자가 수익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변량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설비자산 투자가 미치는 효과를 장·단기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설비자산 투자는 장·단기 구분 없이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이 연구는 적정 수준이 아닌 규모의 투자는 오히려 경영성과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과잉 또는 과소 투자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 성장성을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이 연구에서는 산업 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설비자산 투자의 긍정적 효과가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태정(2007)은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모형에서 기업성과는 매출액 증가율로 측정하였으며, 투자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자산 증감액, 설비투자액과 연구개발투자액을 합한 총투자,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표기된 개발비를 활용하여 작성된 연구개발투자액 등이 사용되었다. 회귀분석 결과, 설비투자, 총투자, 연구개발투자액은 기업성과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양(+)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rozdić et al.(2020)은 세르비아의 60개 제조업 회사를 대상으로 2004년부터 2016년 사이의 자본투자 성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자본투자가 단기적으로는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본투자 장·단기 효과가 다른 것은 자본투자가 단기적 관점에서는 비용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인식하는 투자 효과의 기제는 자본투자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수익 확대로 귀

결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기업의 재무성과로서 총자산 대비 순이익 비율(ROA)을, 독립변수로 설비투자율과 1년 전의 설비투자율을 사용하여 Pooled OLS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농업 분야의 농업경영체나 기업을 대상으로 자본투자의 성과를 평가한 연구에는 Dang et al.(2023)이 있다. Dang et al.(2023)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베트남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62개 농식품 관련 기업의 불균형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단기 및 장기 자본투자율(capital investment rate), 자기자본비율(equity to total assets ratio), 기업 규모(firm size), 유형자산 비율(tangible to fixed assets ratio)이 농식품 기업의 영업이익률(profit margin)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랜덤효과(random effect)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농식품 기업의 자본투자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영업이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본투자율이 증가할수록 농식품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자기자본비율과 기업 규모는 영업이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유형자산 비율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투자 결정 요인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비투자 관련 연구들은 주로 설비투자 결정 요인이나 투자 규모 변화요인 등을 분석한 연구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도 기업 단위의 미시적 분석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된 연구가 대다수이다.

임경묵(2005)은 기업의 투자 추이를 거시적으로만 접근한 연구들과 달리 거시자료와 미시자료를 동시에 이용하여 설비투자 부진 원인 및 산업 간 설비투자 부진 현황을 분석하였다. 거시적으로는 국민계정 설비투자를 이용하여 항목별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미시적으로는 기업 재무 자료에 포함된 현금흐름표를 이용하여 개별 기업의 설비투자를 측정하였다. 거시자료와 미시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2003~2004년에 설비투자가 부진했던 원인은 내수 경기침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제조업과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이 전체적인 투자 부진을 견인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경묵(2008)은 투자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서 기업의 수익변동성에 주목하고 수익변동성과 투자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1994년부터 2005년 사이에 구축된 기업 데이터를 이용하여 고정효과를 고려한 패널 모형을 구축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저자는 우리나라 기업의 수익변동성이 외환위기 이후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투자 감소로 이어졌고 특히 중소기업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대기업의 재무구조조정이 중소기업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져 수익변동성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다.

김병화·임현준(2002)은 설비투자의 요인을 찾기 위하여 거시자료를 이용한 설비투자 함수를 추정하였다. 연구 결과는 한국의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장기적으로는 GDP, 주가, 자본재 상대가격, 환율을 꼽을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GDP, 주가, 자본재 상대가격과 금리 등을 꼽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외환위기 이후 자본재 상대가격과 금리의 영향이 더욱 커졌는데 이는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기대수익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경기 하방기에도 설비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화정책보다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제언을 하고 있다.

홍기석(2006)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설비투자가 부진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별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투자 결정식을 추정하였다. 이 연구는 기업의 부채부담이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는데, 특히 이러한 경향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더 강화되었다. 임경묵(2008)과 달리 수익의 변동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Stutzman(2017)은 미국 48개 주 농가를 대상으로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자본 지출(또는 자본투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농업 경제적 조건 변화와 거시경제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농업 자원 관리 조사(ARMS) 데이터를 활용하여 합성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동태적 시스템 GMM 회귀모형(dynamic system GMM)을 적용하여 미국 농가의 자본투자 결정 요인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곡물 생산 농가의 자본투자율은 현금농업소득(gross cash farm income levels), 감가상각 세율(tax depreciation rates), 이자율 변화(interest rates)에 민감

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축산 농가의 자본투자율은 산출물 가격, 현금 농업소득, 감가상각 세율, 농가의 전문화 수준(farm specialization levels)과 같은 변수들에 유의미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가 유형별로는 거주형 작물 농가(resident crop farms)는 세금 감가상각 세율,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s), 이자율, 농업 외 소득 변화(off-farm income)에 민감하게 반응하였고, 중간형 축산 농가(intermediate livestock farm)는 산출물 가격과 부채 대비 자산 비율 변화가 자본투자율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업형 농가(larger crop and livestock commercial farm)는 현금농업소득 및 투자 수익률 변화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모든 농가 유형에서 과거 투자율 증가는 현재 투자율 감소와 연관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상업형 곡물 농가에서는 이와 같은 패턴이 관찰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Skevas et al.(2017)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네덜란드 낙농 농가의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농가의 자본투자 최적 경로(optimal investment path)와 실제 자본 투자를 비교하고, 최적 자본투자 방향 및 편차(extent of deviation)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낙농 농가들(전체 낙농 농가의 71%)은 조사기간 동안 자본 자산(capital assets)에 대해 과소 투자(under-investment)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투자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 비활성화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과잉 투자(over-investment)한 낙농 농가는 비교적 적었으나, 이들 농가의 총 자본투자액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적 자본투자 경로는 시간에 걸쳐 기계, 건물, 시설 등에 점진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조정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 향상 및 기술 적응 기간을 확보하는 데 유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프로빗(probit) 모형을 활용하여 자본 자산에 대한 과소 또는 과잉투자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유동성(liquidity), 농업보조금(agricultural support payments), 표준산출 규모(standard output size)는 과잉투자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분석된 반면, 농가주의 연령(age), 토지 보유 형태(land tenure)는 과잉투자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3.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이 연구는 연구 주제 면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기존 연구는 농업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제도, 농업법인의 경영성과 및 효율성 등을 주로 다루었으며 농업법인의 투자 행태와 투자 효과를 심층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었다. 보다 전문화·규모화된 경영체로서 농업법인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 성장의 필요조건인 투자에 대해 다룸으로써 농업 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는 데 이 연구의 의의와 차별성이 있다.

제2장

농업법인의 경영 현황

농업법인의 경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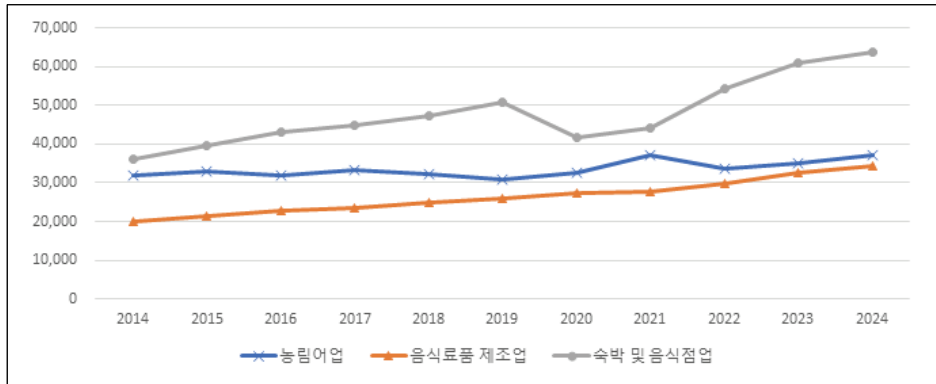
1. 농업 및 농업 연관 산업 동향

농업법인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전에 농업법인의 주 종사 산업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산업 동향에 대한 고려가 없이는 농업법인의 경영상태에 대한 진단을 객관적으로 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농업법인의 종사 업종은 작물 재배, 가축 사육 등 농업생산과 농축임산물을 바탕으로 한 농식품 제조업, 농식품 유통업, 농업 관련 서비스업 등 농업 전방산업, 농업 기자재나 원자재를 공급하는 농업 후방산업에 폭넓게 걸쳐져 있다. 그중에서도 농업생산과 농업 전방산업은 이 연구에서의 주된 관심 대상인데,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농림어업, 음식료품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의 부가가치는 꾸준히 상승하였다<그림 2-1>. 그중에서도 음식료품 제조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농림어업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농업 전방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림 2-1〉 산업별 명목 부가가치

단위: 십억 원



자료: 한국은행(각 연도), 국민계정.

농업 후방산업까지 포괄하여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생산 분야가 성장 정체 상태인 데 비해 농업 전방 및 농업 후방산업의 부가가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산업 간 경기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2015~2023년 농업생산 분야의 부가가치는 2020년까지 감소하다가 2020년부터 상승세로 전환하였으나 기간 전체로 보면 매년 0.4% 성장하는 데 그쳤다. 한편 음식료품 제조 및 음식점업으로 대표되는 농업 전방산업은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면 빠른 속도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농업 후방산업의 경우 코로나 기간을 제외하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코로나 기간에는 오히려 부가가치가 빠르게 증가하였다<표 2-1>.

〈표 2-1〉 산업별 부가가치 변화 추이(명목)

연평균 증감률	농업생산	농업전방	농업후방
2015~2023	0.4%	4.7%	3.3%
2015~2019	-0.7%	4.0%	2.7%
2019~2020	-1.5%	-2.8%	6.1%
2020~2023	2.7%	8.0%	2.9%

주 1) 농업 전방산업과 농업 후방산업은 2016~2022년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됨.

2) 농업생산: 작물재배업, 축산업, 농업전방: 음식료품, 음식점 및 주점, 농업후방: 비료, 농업용 기계, 농림수산물목, 살충제 및 농약, 농림어업 서비스

자료: 한국은행(각 연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농·축산물 수출입 규모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농산물 수요를 살펴보면, 국내 농업생산법인에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동시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2013~2023년까지 농산물 수출액은 47억 4,100만 달러에서 79억 9,390만 달러로 매년 평균 5.4% 증가하였고, 축산물은 4억 3,570억 달러에서 6억 2,140억 달러로 연평균 3.6%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농·축임산물 수입은 매년 3.8% 증가하였고 특히 축산물은 연평균 8%씩 성장하였다<그림 2-2>.

국내 농·축·임산물의 생산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국내의 농산물 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수입산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한 수출 증가 추이는 농업법인이 해외 시장개척을 통해 매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면에서 시장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볼 근거가 된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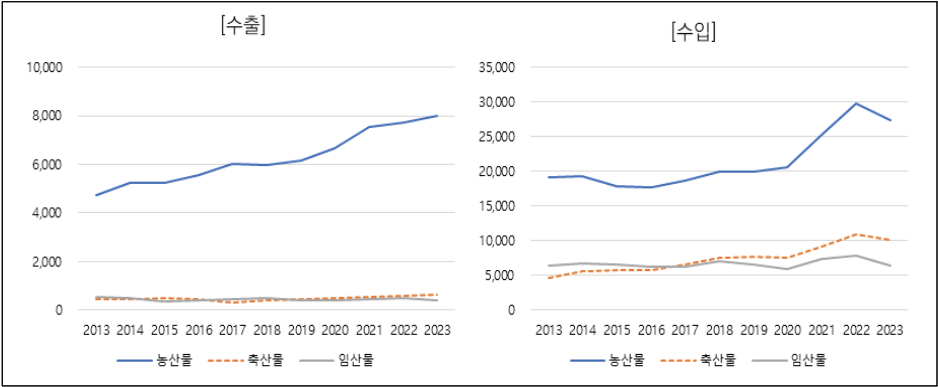
거시환경 및 산업적 측면에서의 근본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추구할 가능성은 존재하는데, 이는 안정적 소비 기반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 확대 또는 시장 확대를 통해 가능하다. 1차 생산에서 수익성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2차와 3차 산업으로 영역을 확장한 업체는 경기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10년간 경기 측면에서 하방 압력이 지속해서 존재하였지만, 식품 소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폭의 매출 하락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빠른 속도의 성장도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농·축·임산물의 수입이 증가하는 동안 재배업 GDP는 완만하게 증가하고 축산업 GDP는 거의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국내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재배업 GDP는 2013년 21조 8,444억 원에서 2023년에는 24조 8,377억 원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1.2%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축산업 GDP는 2013년 4조 2,171억 원에서 2023년 4조 2,301억 원으로 0%의 성장률을 보였다(한국은행, 각 연도, 국민계정). 한편, 2023년 농림어업 GDP는 31조 1,871억 원으로 같은 해 농·축임산물 수입액 57조 2,205억 원보다 낮았다.

〈그림 2-2〉 농·축·임산물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자료: 농림축산식품부(각 연도), 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

2. 농업법인 제도 도입 배경과 운영 현황

농업법인은 협업적 영농을 통해 규모화를 이루고, 생산성을 높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1990년에 제정되면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의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다. 농업법인의 설립은 현재 「농어업경영체육성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협업적 농업경영 형태로서 영농조합법인, 기업적 농업경영 형태로서 농업회사법인을 제시하고 있다.

농업법인은 농업인과 농업 생산자 단체가 설립할 수 있는데,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5인 이상이 조합원으로서 공동으로 결성하는 협동조합이다. 농업회사법인은 형태에 따라 필요 인원은 다양하지만, 최소 1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설립할 수 있다.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에는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농업 관련 산업도 포함된다. 즉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농작업 대행,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 농촌 융복합산업 등을 포함한 농업 전방산업과 영농자재의 생산 및 공급,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 농산물 구매·비축, 농기계 장비 임대·수리 및 보관,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 농업 관련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농업 후방산업이 농업법인의 사업 영역이다.⁴⁾

농업법인도 농업인과 마찬가지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데 영농조합법인의 농지소유에는 별도의 조건이 없으나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4)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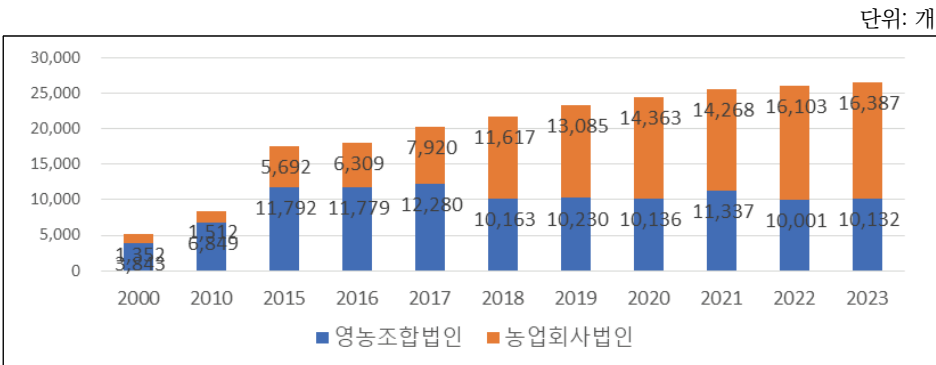
〈표 2-2〉 농업법인 제도 현황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주식	합명	합자	유한	유한책임
성격	협업적 농업경영	기업적 농업경영				
법적 근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16조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19조				
설립 자격	농업인,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발기인 수	농업인 5인 이상	1인 이상	무한 2명 이상	유한 1, 무한 1 이상	2~50인 이하, 사원1인	1인 이상
출자 제한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은 제한 없음	비농업인은 총출자액의 90% 범위 이내에서 출자 가능				
책임	조합원 및 준조합원은 납입 출자액 한도로 유한책임*	유한	무한	유한 무한	유한	유한
의결권	1인 1표	출자 지분에 의함				
농지 소유	소유 가능	소유 가능(농업인 주도의 경영)				
타법 준용	설립 등기 관련 상업등기법 준용 기타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				
설립 운영	농업인 자율적으로 설립 운영	좌동				

자료: 마상진 외(2020: 32).

농업법인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업법인 수는 2000년 5,195개(영농조합법인 3,843개, 농업회사법인 1,352개)였으나 2023년에는 2000년의 약 5배인 26,519개(영농조합법인: 10,132개, 농업회사법인: 16,387개)로 증가하였다. 조직 형태별로는 영농조합법인의 수가 정체 상태인데 비해 농업회사법인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2023년 기준 농업법인의 61.8%가 농업회사법인, 38.2%가 영농조합법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3>.

〈그림 2-3〉 연도별 농업법인 수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업법인조사.

농업법인 수가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고용인력도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농업법인의 종사자 수는 2015년 11만 5,704명에서 2023년 17만 8,317명으로 연평균 5.6%씩 증가하였다. 전체 고용 규모 기준으로는 농업회사법인의 인력이 더 많이 증가하였으나, 업체당 종사자 수는 농업회사법인에서 감소한 반면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증가하였기 때문에 농업회사법인 종사자 증가가 업체 수 증가에 기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3>.

〈표 2-3〉 농업법인 종사자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종사자			법인당 종사자		
	전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전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2015	115,704	69,947	45,757	6.6	5.9	8.0
2016	122,265	71,921	50,344	6.8	6.1	8.0
2017	141,454	80,598	60,856	7.0	6.6	7.7
2018	149,192	71,972	77,220	6.8	7.1	6.6
2019	160,249	73,125	87,123	6.9	7.1	6.7
2020	168,951	69,089	99,862	6.9	6.8	7.0
2021	193,745	95,878	97,867	7.6	8.5	6.9
2022	181,319	72,588	108,732	6.9	7.3	6.8
2023	178,317	65,894	112,422	6.7	6.5	6.9
연평균 증감률	5.6	-0.7	11.9	0.2	1.2	-2.0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업법인조사.

농업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농지는 2020~2023년 평균 총 8만 1천 ha인데, 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전체 면적의 70.5%를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임차농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4>.

〈표 2-4〉 농업법인 농지 현황

단위: ha, %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0-2023 평균
전체 면적	소유농지	60,836	53,479	58,684	56,117	57,279 (70.5)
	임차농지	28,877	22,185	22,282	22,544	23,972 (29.5)
	소계	89,713	75,664	80,966	78,661	81,251 (100.0)
경작면적	소유농지	60,270	52,844	58,030	55,577	56,680 (70.3)
	임차농지	28,760	22,165	22,228	22,498	23,913 (29.7)
	소계	89,030	75,009	80,258	78,075	80,593 (100.0)
미경작면적	소유농지	566	636	654	540	599 (91.0)
	임차농지	117	20	54	46	59 (9.0)
	소계	683	656	708	586	65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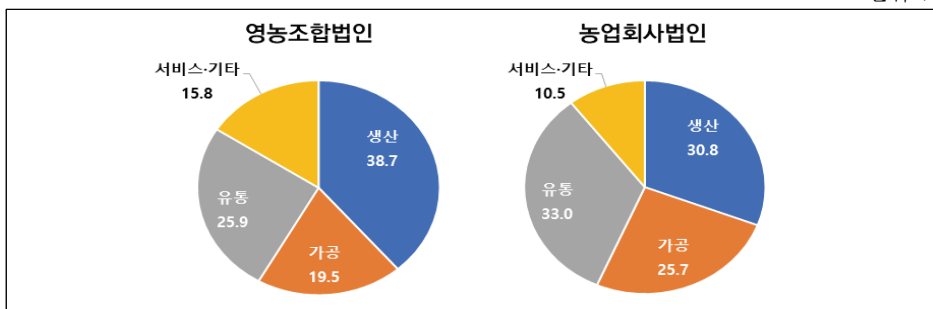
주: 괄호 안은 소계 대비 비율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업법인조사.

농업법인이 종사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생산, 가공, 유통, 서비스 및 기타로 분류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유형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생산이며 유통과 가공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농업회사법인은 유통의 비중이 가장 크고 생산과 가공이 그 뒤를 잇고 있다<그림 2-4>.

〈그림 2-4〉 농업법인의 사업유형별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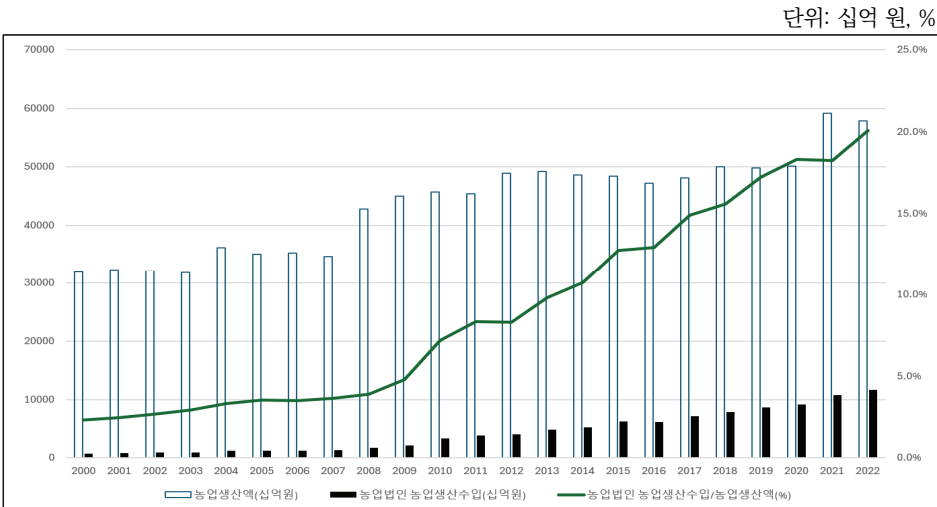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3), 농업법인조사.

농업법인 매출총액은 2000년 1.7조 원(영농조합법인 1.4조 원, 농업회사법인 0.3조 원)에서 2022년에는 2000년의 약 31배인 52조 9천억 원(영농조합법인 13조 6천억 원, 농업회사법인 39조 3천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전체 농업생산액에서 농업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농업 명목 생산액은 2003년 약 32조 원에서 2022년 약 58조 원으로 약 82.0% 증가하였다. 농업법인의 농업생산 수입은 2000년에 7,354억 원 수준에서 2022년 약 11조 6,339억 원으로 증가하였는데, 전체 농업생산액보다 농업법인의 농업생산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체 농업 명목 생산액에서 농업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를 기록했다<그림 2-5>.

〈그림 2-5〉 농업생산에서 농업법인이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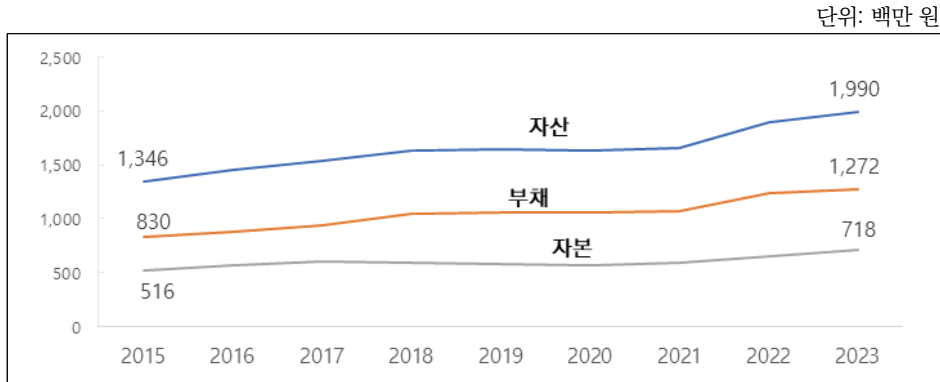
주: 농업생산액은 품목별 연간생산량과 연평균 농가판매가격을 곱하여 구한 품목별 생산액을 합산한 결과이며, 법인 작물재배업 매출액은 법인세 신고법인 매출액을 바탕으로 통계청에서 산출하였음. 두 통계의 작성 과정이 다르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업법인조사, 농림업생산지수; 이명기 외(재인용)(2024).

농업법인의 매출총액은 증가하였으나 개별 법인의 경영성과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농업법인의 자산, 부채, 자본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증가 폭은 완만하다. 법인당 평균 자산은 2015년부터 2023년 사이 매년 5.0%씩 증가하였

으며 부채는 5.5%, 자본은 4.2% 증가하였다. 농업법인의 평균 자산은 2023년 기준 약 20억 원으로, 일반 제조업 소기업의 평균 자산이 약 31억 원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농업법인의 규모는 매우 영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그림 2-6>.⁵⁾

〈그림 2-6〉 법인당 평균 자산, 부채, 자본 추이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업법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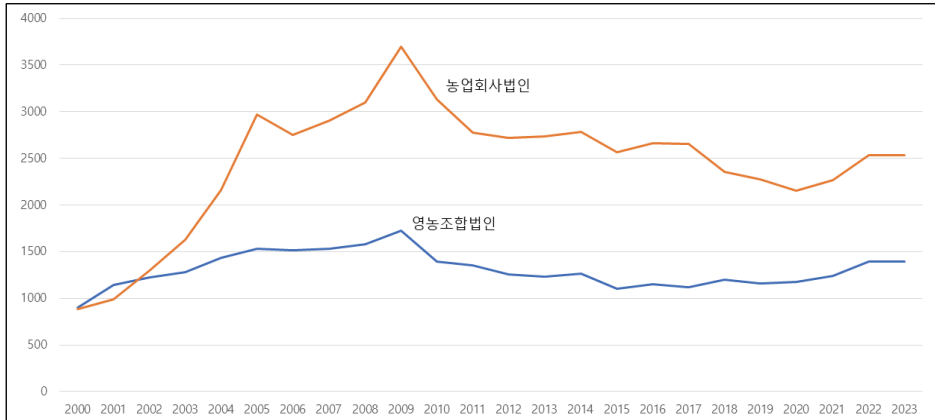
농업법인의 업체당 매출액은 2009년까지 상승 추세였으나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였다. 영농조합법인의 업체당 매출액은 2000~2009년 기간에 연평균 7.5%씩 증가한 후 1.6%씩 감소하였다. 농업회사법인의 업체당 매출액은 2000~2009년에 연평균 17.2%씩 증가하다가 2009년부터 연평균 2.9%씩 감소하였다. 영농조합법인의 2023년 평균 매출액은 약 14억 1,200만 원이며, 농업회사법인의 2023년 평균 매출액은 26억 4,300만 원이다. 일반 제조업 소기업의 평균 매출액 7억 2,279만 원,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기업의 평균 매출액 40억 9,973만 원(2022년 기준)을 고려하면 농업법인은 소상공인과 그 외 소기업의 중간 규모라고 할 수 있다<그림 2-7>.⁶⁾

5) 중소벤처기업부(https://stat.kosis.kr/statHtml_host/statHtml.do?orgId=142&tblId=DT_G50000&dbUser=NSI_IN_142), 경영지표(2022), 검색일: 2025. 1. 23.

6)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명시되었으며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 규모가 소규모인 기업을 의미한다(업종별 매출 규모: 10억 원 이하~120억 원 이하). 매출액 출처는 중소벤처기업부(https://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OTITLE&listid=142_002), 중소기업기본통계, 검색일: 2025. 1. 23. 참조.

〈그림 2-7〉 농업법인의 업체당 매출액 추이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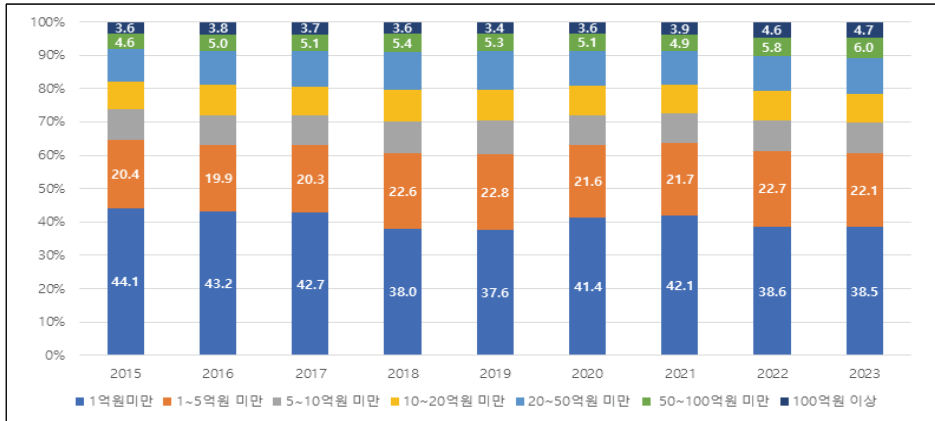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업법인조사.

매출 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2015년부터 2023년 사이에 매출액 1억 원 미만의 비율은 44.1%에서 38.5%로 소폭 감소하는 반면 1억 원 이상인 업체의 비율은 소폭 증가하였다<그림 2-8>.

〈그림 2-8〉 매출액 규모별 농업법인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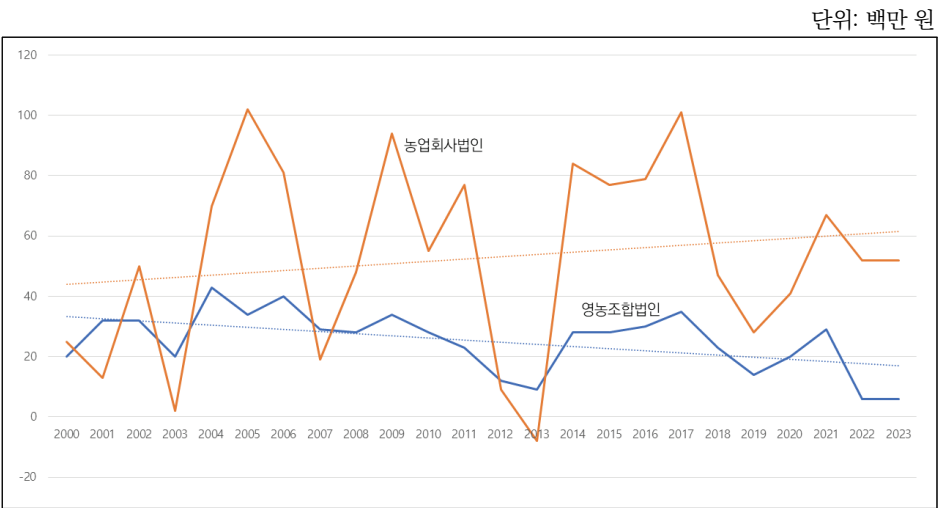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업법인조사.

농업법인의 업체당 영업이익은 매년 큰 폭으로 변동하는 가운데 농업회사법인의 영업이익은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영농조합법인의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있다<그림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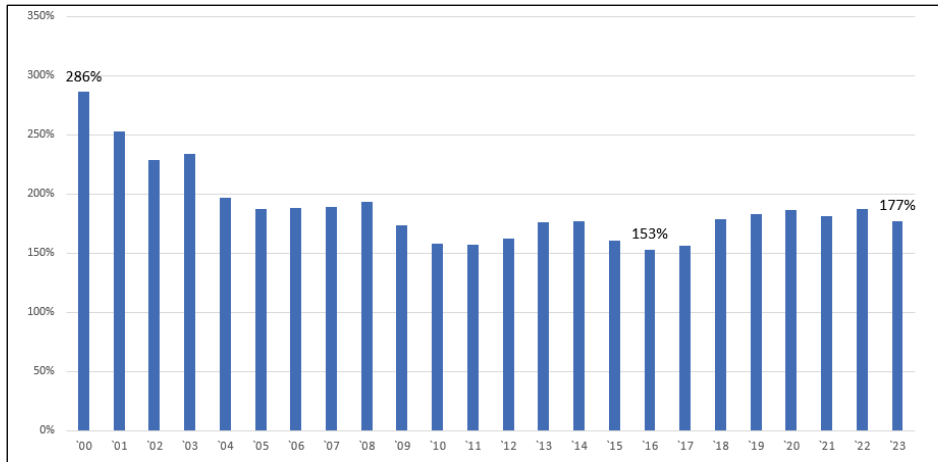
<그림 2-9> 농업법인의 영업이익 추이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업법인조사.

농업법인의 재무안정성은 증가하였으나 수익성 및 성장성이 감소함에 따라 수익성과 성장성 증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농업법인의 경영 안정성을 나타내는 재무 지표인 부채비율(부채/자본)은 2000년 286%에서 2023년 177%로 감소하여, 안정성은 2000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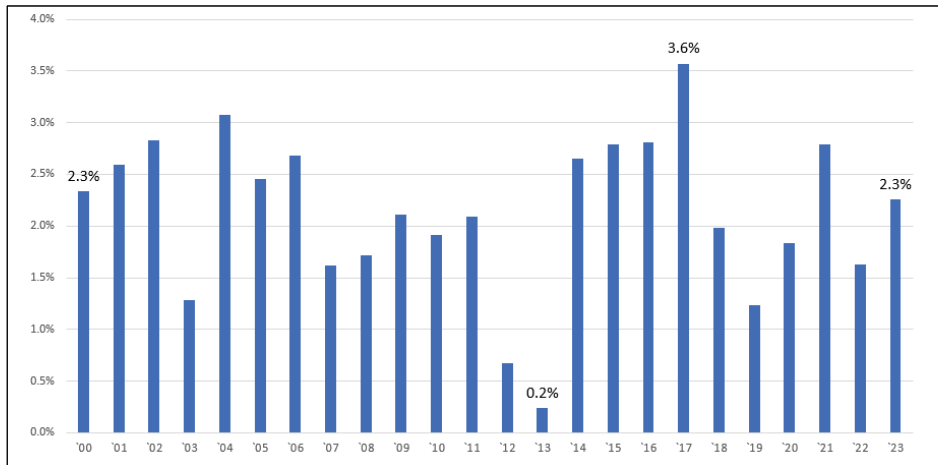
〈그림 2-10〉 농업법인 부채비율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업법인조사.

반면, 농업법인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재무 지표인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은 2000년 2.3%에서 2017년 3.6%를 달성한 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2023년 다시 2.3%를 기록했다<그림 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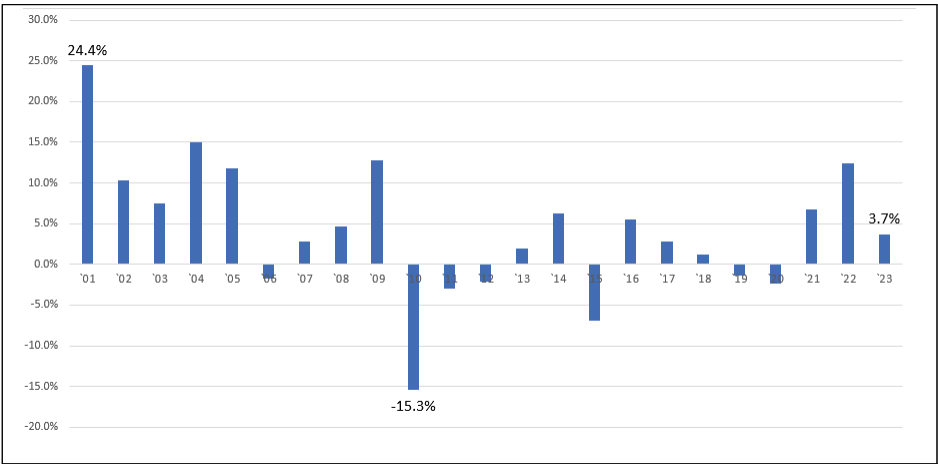
〈그림 2-11〉 농업법인의 영업이익률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업법인조사.

또 다른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 증가율(당년매출액-전년매출액/전년매출액)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전년 대비 매출액 성장률은 매년 큰 폭으로 변동하였는데, 2000년 초반에는 10% 이상의 매출액 신장이 있었으나 이후에는 2009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한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그림 2-12>.

〈그림 2-12〉 농업법인 매출액 성장률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업법인조사.

제3장

농업법인 자본투자 실태와 효과

농업법인 자본투자 실태와 효과

1. 농업법인 자본투자와 경영성과 실태

1.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농업법인의 자본투자 실태와 경영성과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하여 농업법인의 재무 자료를 이용한 정량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자료는 한국평가데이터(KODATA)가 제공하는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농업법인 재무 자료이다. KODATA는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을 포함한 다양한 법인의 재무제표, 설립연도, 업종코드, 주요 제품, 종사자 수, 휴·폐업 여부 등 광범위한 기업정보를 수록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이다. 특히, 법인의 유형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과 경영성과(매출액, 자산, 자본, 부채, 순손익, 영업이익, 부가가치 등)에 관한 세부 항목이 연도별로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어, 자본투자 구조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분석대상 표본은 시계열 분석의 일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재무 정보에 대한 연속성을 갖춘 농업법인으로 한정하였다. 초기 표본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KODATA에 등록된 총 20,838개 농업법인으로 구성하였으

며, 이 중 주요 재무 지표(매출액, 순손익, 자산총계, 자본, 영업이익 등)가 최소 5개년 이상 연속적으로 보고된 3,362개 농업법인(전체의 16.1%)을 최종 분석대상 법인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표본 구성은 단순 횡단면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고, 자본투자 변화가 농업법인의 생산성, 수익성, 성장성 등 주요 경영성과 지표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1.2. 분석 대상 업체의 경영 현황

1.2.1. 기본 특성

농업법인의 산업유형은 주된 사업 영역과 경제활동의 성격에 따라 ‘농업생산산업’, ‘농업전방산업’, ‘농업후방산업’, ‘기타산업’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법인의 산업구조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산업유형별로 투자 대상과 규모, 시장 환경, 수익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인의 자본투자와 경영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산업유형의 분류는 통계청 제11차 표준산업분류(업종코드)를 기본으로 하되, 각 법인의 주요 생산 품목, 사업 목적, 법인 홈페이지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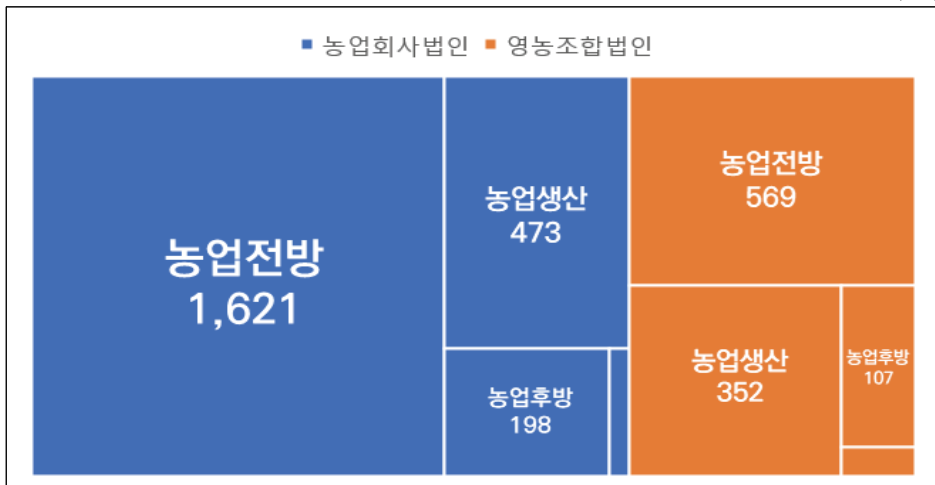
농업생산산업 유형은 농산물을 직접 재배하거나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법인을 포함하였다. 또한 일부 법인은 가공·유통·체험 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나 생산기반이 명확히 확인될 경우는 농업생산산업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농업전방산업 유형은 농산물 재배보다는 가공과 유통에 중점을 두는 법인으로, 곡물 도정, 김치, 두부 등의 단순 가공·유통뿐 아니라 농식품의 2차 가공까지 포함한다. 농업후방산업 유형은 종자, 종묘, 비료, 사료, 농자재 등 농업생산에 투입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기타산업 유형은 임업과 임업 전·후방업, 어업, 수산물 가공·유통 등을 포함하며, 산업적 성격은 농업과 유사하지만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과 정

책적 관리 체계가 다르므로 별도 범주로 구분하였다.

이상치를 제거하지 않은 3,362개 농업법인을 법인 형태와 산업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농업전방산업이 전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 농업생산산업, 농업후방산업, 기타산업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70.0%,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54.4%가 농업 전방산업에 속해 있어 두 법인 형태 모두 가공·유통 중심의 산업구조가 우세함을 보여준다. 한편, 농업생산에 주력하는 업체의 수는 농업회사법인이 더 많았으나, 비율로 보면 영농조합법인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영농조합법인의 33.7%, 농업회사법인의 20.4%가 농업생산 부문에 속해 있었으며, 농업 후방산업은 각각 10.2%와 8.5%를 차지했다<그림 3-1>. 농업법인조사 결과에서는 생산 법인이 각각 38.7%, 3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재무자료 분석대상에는 생산 법인이 과소 표집된 것을 알 수 있다<그림 2-4>.

〈그림 3-1〉 회사형태별·사업유형별 업체 분포(n=3,362)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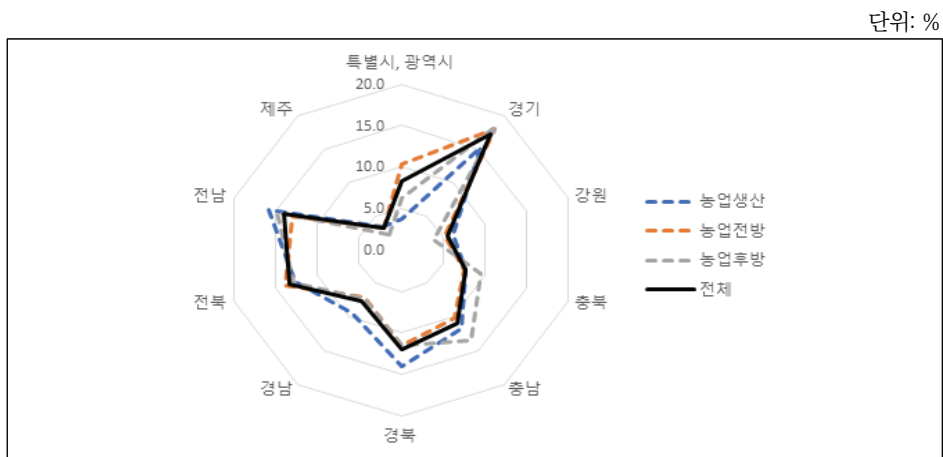


자료: KODATA 제공 농업법인 재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농업법인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전체의 1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전라남도(14.0%), 전라북도(13.3%), 경상북도(12.0%), 충청남도(10.9%)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5개 지역에 전체 농업법인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한 자릿수의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분포는 농업법인의 산업유형별 입지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농업 전후방산업에 종사하는 법인은 소비지와 접근해 있고, 인력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및 주요 도시 인근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농업생산을 주력으로 하는 법인은 상대적으로 소비지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토지 이용 여건과 생산기반이 양호한 지역을 선호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2〉 사업유형별 농업법인의 지역별 분포



자료: KODATA 제공 농업법인 재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농업법인의 운영 기간을 살펴보면, 분석대상에 포함된 업체는 최소 4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하고 있어 신생 법인은 제외되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업력을 가진 비교적 안정적인 법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영농조합법인의 평균 설립연도는 2006.7년이며, 평균 운영 기간은 약 18.3년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업회사법인의 평균 설립연도는 2011년이며, 평균 운영 기간은 약 13.1년으로 영농조합법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짧았다. 이는 최근 들어 농업회사법인 선호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한편, 본 연구의 분석대상 표본에 포함된 법인은 평균적인 농업법인과 업력 면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분석 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표 3-1>.⁷⁾

〈표 3-1〉 표본 업체의 운영 기간

단위: 년

사업유형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농업생산	18.4	6.6	7	32	12.8	5.6	6	48
농업전방	17.7	5.8	4	34	13.0	5.2	6	54
농업후방	20.9	6.2	8	33	15.0	7.8	7	59
기타	20.1	6.2	11	29	11.6	3.2	7	20
전체	18.3	6.2	4	34	13.1	5.6	6	59

주: 운영 기간은 2025년 시점에서 계산됨.

자료: KODATA 제공 농업법인 재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종사자 규모별로 분포를 살펴보면, 분석대상 법인은 평균적인 농업법인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법인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농업법인조사에 따르면 전체 농업법인 중 1인 종사자 이하 법인이 32.5%를 차지하였으나, 본 연구의 표본에서는 1인 종사자 법인의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표본 내에서는 5~9인 규모의 법인이 31.8%, 10~30인 규모의 법인이 30.5%를 차지하여, 두 규모 구간의 법인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반면, 1인 법인은 전체 분석대상의 2.4%에 불과하였다.

산업유형별로는 평균 종사자 규모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농업생산법인의 고용 규모는 농업 전·후방산업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농업생산법인은 2~4인 규모의 법인 비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이 5~9인 규모의 법인이었다. 반면, 농업 전방산업의 경우 10~30인 규모의 법인이 가장 많았으며, 5~9인 규모의 법인이 그 뒤를 이었다<표 3-2>.

7) 통계청(2022) 농업법인조사에서는 3년 이하 업체의 비율이 21.1%, 13년 이상 업체의 비율이 22.4%로서 분석대상 업체의 평균 운영기간이 농업법인 전체보다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용평가회사에 재무자료를 제출하여 신용평가를 받은 업체만 분석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표 3-2〉 종사자 규모별 분포

단위: 개, %

구분	농업생산		농업전방		농업후방		기타		계	
1인	31	(3.9)	42	(1.9)	2	(0.7)	3	(7.1)	78	(2.4)
2~4인	276	(34.9)	522	(24.1)	77	(25.5)	13	(31.0)	888	(26.9)
5~9인	251	(31.8)	653	(30.2)	128	(42.4)	18	(42.9)	1,050	(31.8)
10~30인	188	(23.8)	732	(33.8)	78	(25.8)	8	(19.0)	1,006	(30.5)
31~100인	37	(4.7)	197	(9.1)	13	(4.3)	0	(0.0)	247	(7.5)
100인 초과	7	(0.9)	17	(0.8)	4	(1.3)	0	(0.0)	28	(0.8)
전체	790	(100.0)	2,163	(100.0)	302	(100.0)	42	(100.0)	3,297	(100.0)

주: 괄호 안은 비율임.

자료: KODATA 제공 농업법인 재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농업법인 설립 이후 성장기의 법인을 위한 자금지원 사업의 현황과 한계를 진단할 필요가 있고, 재무 자료 분석에 있어서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낼 필요가 있다. 기업의 업력과 규모에 관한 수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소상공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구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하였다<표 3-3>.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상시근로자 기준)⁸⁾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⁹⁾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하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중기업은 중소기업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 정의된다(동 시행령 제8조 제2항).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속하지 않으면서,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을 의미한다(「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8)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명 미만, 그 외 업종: 5명 미만.

9) 3개년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는 3개년도 평균 매출액, 사업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는 사업 기간이 1년인 사업연도의 총매출액을 사업 기간이 1년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표 3-3〉 기업 규모 구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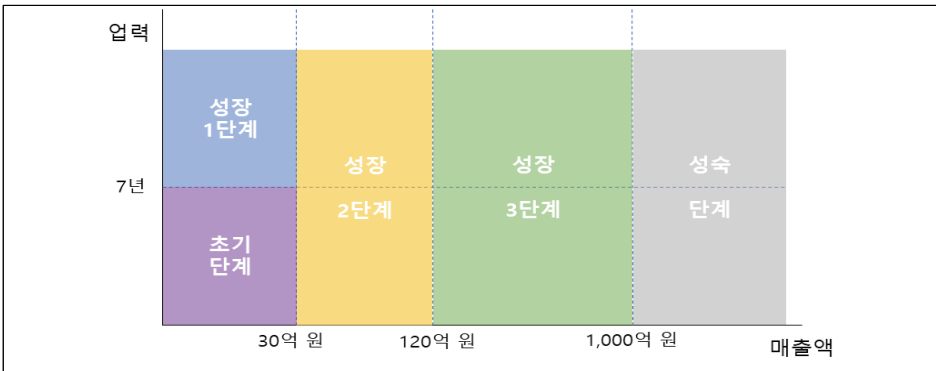
주업종	규모	중소기업(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소기업	중기업	
		상시근로자	매출액	매출액	매출액
A. 농업, 임업 및 어업		5명 미만	80억 원 이하	1,000억 원 이하	1,000억 원 초과
C10. 식료품제조업		10명 미만	120억 원 이하	1,000억 원 이하	1,000억 원 초과
I. 숙박 및 음식점업		5명 미만	10억 원 이하	400억 원 이하	400억 원 초과
G. 도매 및 소매업		5명 미만	50억 원 이하	1,000억 원 이하	1,000억 원 초과

주: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11차 개정)를 따름.

자료: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3; 산업통상자원부(2025), 2025년 알기 쉽게 풀어 쓴 중견기업 범위해설.

본 연구에서는 농업법인의 성장단계를 창업 초기, 성장 1~3단계, 성숙단계로 구분하였다. 성장단계와 성숙단계를 구분하기 위한 주요 기준은 매출액과 업력(존속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매출액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구분 기준을 참고하되, 업종 간 매출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여 30억 원, 120억 원, 1,000억 원을 단계 구분의 기준값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성장 1단계에 속하는 법인 중 업력이 7년 미만인 경우를 창업 초기 단계로 별도 분류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농업법인의 성장 수준을 재무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성장단계 구분은 <그림 3-3>에 도식화하였다.

〈그림 3-3〉 농업법인의 성장단계 구분



자료: 저자 작성.

자료 기간 중 농업법인의 성장단계가 변동되기 때문에, 특정 시점에서의 성장 단계 분포를 기준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표 3-4>. 분석 결과, 전체 표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은 성장 1단계로, 절반 이상의 법인이 업력 7년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30억 원 미만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 2단계 법인은 전체의 약 27~32%를 차지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비중을 유지하였고, 성장 3단계 법인은 9~15% 수준으로 나타나 성숙단계로의 진입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숙단계에 해당하는 법인은 극히 소수로 전체 표본의 0.1~0.3%에 불과하였다.¹⁰⁾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업체는 2014년에 0개였다가 2018년에 113개 업체로 급증하였으며 2019년에 126개 업체가 된 이후 지속해서 감소하였다. 2018년에 초기 단계 업체의 빠른 증가는 2018년부터 유한책임회사를 농업법인의 한 형태로 포함하는 제도 변화로 인해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분 구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인 설립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으며, 2018년을 기점으로 농업법인 중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비율이 역전되었다.

〈표 3-4〉 성장단계별 업체 분포

단위: 개, %

성장단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초기	0	4	8	16	113	126	108	101	93	92
	(0.0)	(0.2)	(0.3)	(0.5)	(3.4)	(3.8)	(3.4)	(3.2)	(3.1)	(3.4)
성장1	1,271	1,476	1,649	1,845	1,920	1,835	1,754	1,653	1,516	1,313
	(62.5)	(63.2)	(62.8)	(62.0)	(58.1)	(56.0)	(54.6)	(52.9)	(50.7)	(48.6)
성장2	573	627	727	836	955	988	972	944	958	875
	(28.2)	(26.9)	(27.7)	(28.1)	(28.9)	(30.2)	(30.3)	(30.2)	(32.0)	(32.4)
성장3	186	222	236	273	310	321	369	420	417	410
	(9.1)	(9.5)	(9.0)	(9.2)	(9.4)	(9.8)	(11.5)	(13.4)	(13.9)	(15.2)
성숙	4	5	4	4	4	5	7	8	9	9
	(0.2)	(0.2)	(0.2)	(0.1)	(0.1)	(0.2)	(0.2)	(0.3)	(0.3)	(0.3)
합계	2,034	2,334	2,624	2,974	3,302	3,275	3,210	3,126	2,993	2,69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KODATA 제공 농업법인 재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0) 성장단계 구분 시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준은 고용 규모이나, 이 연구에서 획득한 재무 자료상 고용에 관한 정보가 신뢰할 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 규모를 성장단계 구분에 활용하지 않았다.

2014년부터 2023년 사이에 대부분 법인은 성장단계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약 4분의 1 수준의 법인만이 성장단계의 상승을 보였다. 2014년부터 2023년 사이에 성장단계가 상승한 법인의 비율은 26.3%, 현상 유지를 보인 법인은 70.0%, 성장단계가 하락한 법인은 3.3%로 나타났다<표 3-5>.¹¹⁾

<표 3-5> 기간 내 성장단계 이동 비율

단위: %

구분		t=T					
		초기	성장1	성장2	성장3	성숙	합계
t=1	초기	2.7	0.0	1.3	0.4	0.0	4.4
	성장1	0.0	49.5	15.8	2.8	0.0	68.1
	성장2	0.0	2.2	12.9	6.1	0.1	21.3
	성장3	0.0	0.2	1.1	4.8	0.1	6.2
	성숙	0.0	0.0	0.0	0.0	0.1	0.1
	합계	2.7	51.9	31.1	14.1	0.3	100.0

주 1) 음영으로 처리된 셀은 성장단계의 변화가 없었던 업체의 비율임.

2) t=1은 업체별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최초의 연도를 의미하며, t=T는 자료 수록 기간의 최종 연도를 의미함. 예를 들면, t=1 '초기', t=T '초기'인 업체는 2014년도에 설립되어 6년 동안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KODATA 제공 농업법인 재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법인 대표의 개인 특성을 살펴보면, 분석대상 농업법인의 대표는 남성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50대와 60대가 중심을 이루었다. 전체 대표 중 남성이 77.1%를 차지하였고, 여성 대표는 22.9%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60대가 33.3%, 40대가 16.9% 순으로 나타났다<표 3-6>.

11) <표 3-5>에서의 성장단계 변화 추이는 자료 수록 기간인 2014년부터 2023년까지의 정보만을 이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업체별로 자료의 수록 기간이나 시작 시점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3-6〉 법인 대표의 성별 및 연령대

단위: 명, %

개인 특성		인원수	비율
성별	남성	2,591	77.1
	여성	729	21.7
연령 (2025년 기준)	30세 미만	11	0.3
	30대	150	4.5
	40대	568	16.9
	50대	1,166	34.7
	60대	1,120	33.3
	70세 이상	347	10.3
합계		3,362	100.0

자료: KODATA 제공 농업법인 재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2.2. 경영성과

매출을 살펴보면, 분석대상 농업법인의 평균적인 경영규모와 성과는 전체 농업 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법인의 연평균 매출액은 약 55억 원으로, 이는 2022년 농업법인조사에서 보고된 전체 농업법인의 평균 매출액 약 21억 원을 두 배 이상 상회한다. 영업이익 또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분석대상 법인의 평균 영업이익은 약 1억 8,300만 원으로, 전체 농업법인 평균(약 3,400만 원)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당기순이익 역시 분석대상 법인의 기간 평균이 1억 6,800만 원으로 나타나, 전체 농업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3,700만 원)을 크게 웃돌았다.

산업유형별로 재무 상황을 비교해 보면, 농업전방산업 법인의 매출액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으로 농업후방산업과 농업생산법인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농업전방산업 법인의 평균 매출액은 약 61억 원, 농업후방산업은 46억 원, 농업생산법인은 45억 원 수준이었다. 반면 자산, 자본, 순손익, 영업이익 등 주요 재무 지표에서는 농업생산법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생산법인의 평균 자산은 약 55억 3,500만 원, 자본은 약 22억 4,900만 원으로 타 산업 법인보다 자산 규모가 더 크며, 순손익 2억 4,600만 원, 영업이익손실은 2억 4,700만 원으로 수익

성 면에서도 타 산업 법인 평균보다 양호한 상태를 보였다<표 3-7>.

이러한 결과는 분석 표본에 규모가 크고 수익성 면에서 매우 우량한 농업생산 법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농업법인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

〈표 3-7〉 사업유형별 재무 지표의 분포

단위: 백만 원

사업 유형	통계량	매출액	자산총계	자본	순손익	영업이익 손실	부채	부가가치
농업 생산	평균	4,460	5,535	2,249	246	247	3,308	1,087
	표준편차	10,586	12,572	6,650	1,341	1,175	7,562	2,594
농업 전방	평균	6,068	3,804	1,286	142	166	2,530	884
	표준편차	13,220	7,368	2,690	650	638	5,217	1,631
농업 후방	평균	4,606	5,033	2,075	168	161	2,967	1,001
	표준편차	13,952	11,505	5,373	1,419	1,157	7,188	2,672
기타	평균	1,340	1,782	537	41	43	1,256	323
	표준편차	1,547	1,858	671	98	126	1,440	278
전체	평균	5,501	4,298	1,575	168	183	2,737	935
	표준편차	12,673	9,262	4,243	942	847	6,025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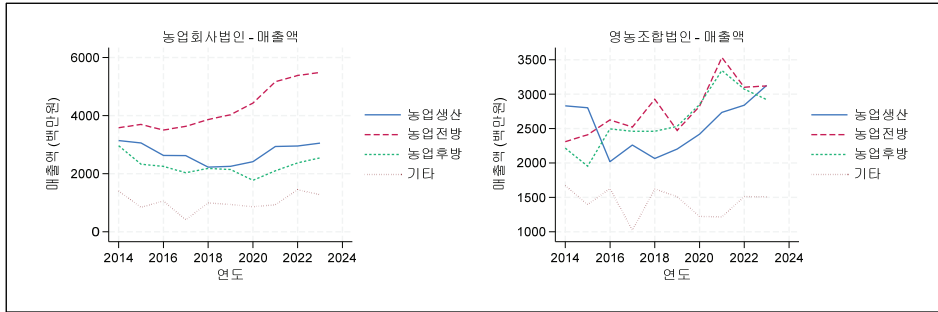
주: 이상치 제거 전, 전 기간을 대상으로 계산됨.

자료: KODATA 제공 농업법인 재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농업법인의 매출액 변화 추이는 종사 산업의 경기 추이와 유사한데, 농림어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비교적 낮은 데 비해 농업전방산업이 빠르게 성장한 것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액 증가세가 매우 완만하거나 일부 연도에서는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19년 이후에는 뚜렷한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특히 농업생산법인의 경우, 2019년 농작물 재해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매출 감소가 있었으나, 코로나 시기 이후에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는 코로나 시기에 외식 수요는 위축되는 반면, 가정 내 식사 수요가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그림 3-4>.

법인 유형별로는 농업회사법인의 평균 매출 규모가 영농조합법인보다 크게 나타났다.

〈그림 3-4〉 표본 업체의 연도별 평균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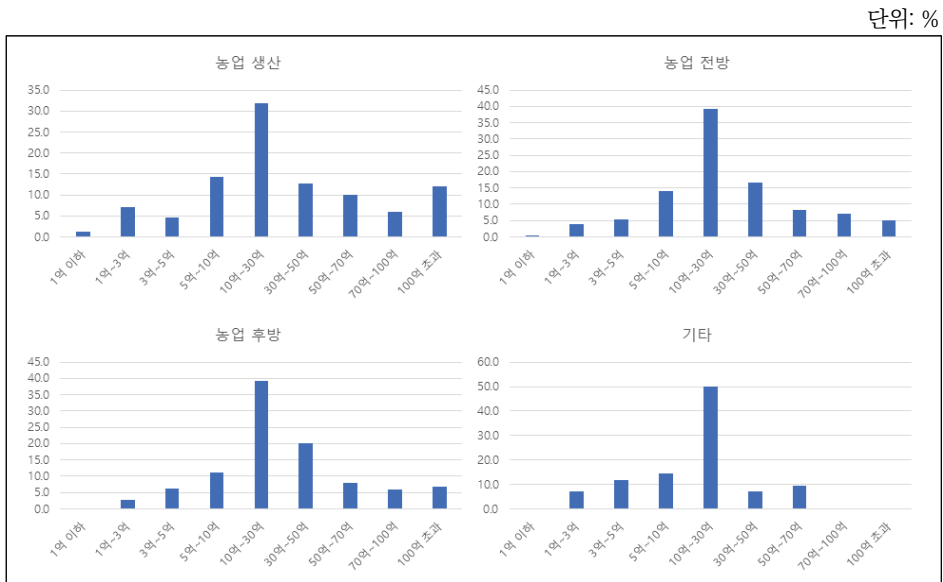


주: 자료는 사분위 범위(interquartile range) 방식으로 이상치를 제거한 결과값임.

자료: KODATA 제공 농업법인 재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분석 표본을 자산 총액 기준으로 1억 원 이하, 1억~5억 원, 5억~10억 원, 10억~30억 원, 30억~50억 원, 50억~70억 원, 70억~100억 원, 100억 원 초과 구간으로 나누어 분포를 분석한 결과, 업체 수는 주로 10억~30억 원 이하 구간에 집중되어 있었다<그림 3-5>.

〈그림 3-5〉 자산규모별 표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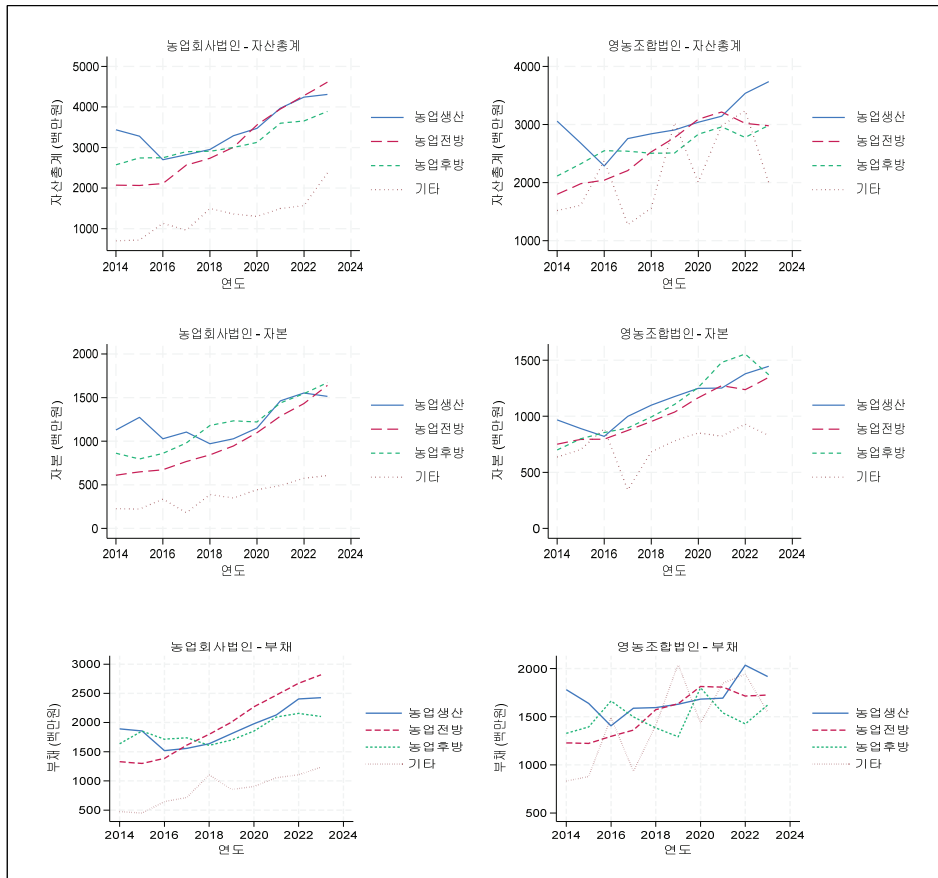


주: 각 업체별 자료 수록 평균을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 KODATA 제공 농업법인 재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본 업체의 경영규모는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산업 유형과 관계없이 공통으로 나타났다. 농업생산법인의 자산, 자본, 부채는 2016년 까지 감소하다가 이후에는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농업전방산업 법인의 자산, 자본, 부채는 2014년 이후 뚜렷한 변동 없이 지속해서 증가하였으며, 농업후방산업 법인의 평균 자산과 자본 또한 최근 10년간 빠르게 증가하였다. 한편, 농업후방산업 법인의 부채는 2016년 이후 증가 폭이 특히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6>.

〈그림 3-6〉 표본 업체의 연도별 규모 변화



주: 자료는 사분위 범위(interquartile range) 방식으로 이상치를 제거한 결과값임.
 자료: KODATA 제공 농업법인 재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농업법인이 보유한 주요 유형자산은 토지, 건축물, 기계, 차량 및 운반기계, 공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유형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법인 유형은 농업생산법인으로, 건물과 부속 설비의 자산가치가 가장 크며, 토지 보유 규모 또한 다른 산업 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농업전방산업에 종사하는 법인은 토지를 포함한 모든 유형자산 항목에서 농업생산법인이나 농업후방산업 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표 3-8>.

〈표 3-8〉 종류별 유형자산 규모

단위: 백만 원

사업유형	유형자산	유형자산 구성							
		토지	건물 및 부속설비	건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공구 기구비품	건설 중인 자산	기타 유형자산
농업생산	3,097	1,403	2,135	474	974	173	154	666	723
농업전방	1,754	820	1,265	210	698	127	104	482	290
농업후방	2,405	1,007	1,638	284	1,046	268	126	594	397
기타	916	591	582	94	222	88	43	219	162
계	2,122	983	1,506	289	789	151	117	544	411

주 1) 2013~2024년 기간 전체 평균임.

2) 유형자산의 종류에 따라 자료 누락의 정도가 다르며 일관성 없이 기록된 측면이 있어 세부 유형별 자산 현황은 자료 사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자료: KODATA 제공 농업법인 재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분석대상 농업법인의 자산 구성은 유동자산보다 비유동자산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농업생산법인 유형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농업생산법인의 평균 유동자산은 21억 3,200만 원, 비유동자산은 35억 5,800만 원으로, 비유동자산이 유동자산의 약 1.7배 수준에 달하였다. 농업후방산업 법인 또한 농업생산법인과 유사하게 비유동자산의 비중이 높았으며, 이는 종자·종묘 등 유형자산을 기반으로 한 상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농업전방산업 법인은 비유동자산보다 유동자산의 비중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산물 가공 및 유통과정에서 재고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농지와 같은 생산기반 자산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으로 판단된다<표 3-9>.

〈표 3-9〉 사업유형별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 규모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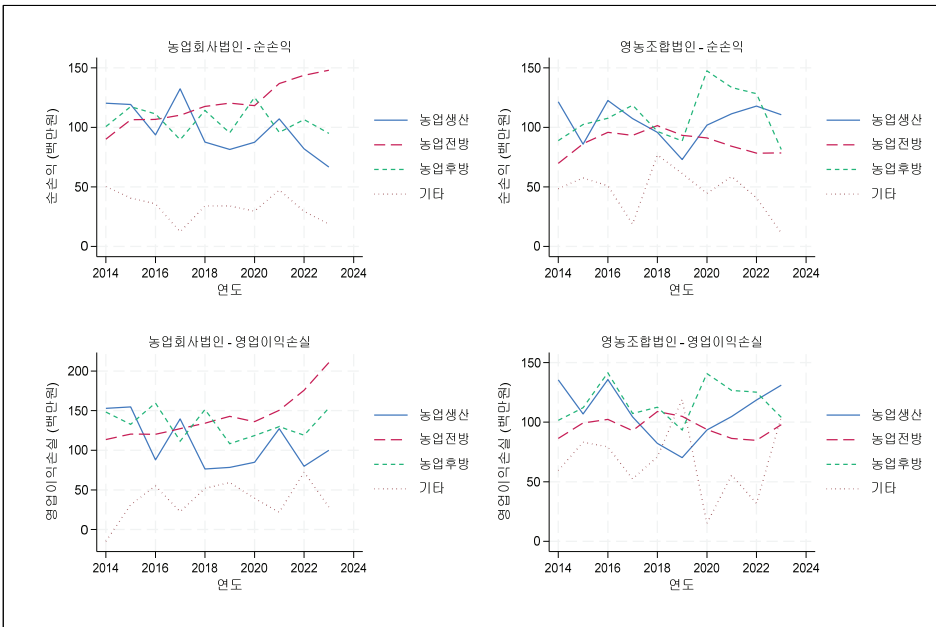
구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농업생산	2,132	3,558
농업전방	2,074	2,013
농업후방	2,138	2,875
기타	819	1,067
계	2,078	2,447

주: 2013~2024년 기간 전체 평균임.

자료: KODATA 제공 농업법인 재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분석 표본의 수익성을 살펴보면, 농업생산법인의 순손익과 영업이익이 2019년을 기점으로 U자형 추세를 보였다. 이는 2019년에는 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 매출이 감소하였고, 동시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압박과 원재료비 인상 등 다양한 요인으로 급락하였으며, 이후 수익성이 점차 회복되었으나, 2021년 이후 다시 하락세로 전환되는 양상을 나타냈다<그림 3-7>.

〈그림 3-7〉 표본 업체의 손익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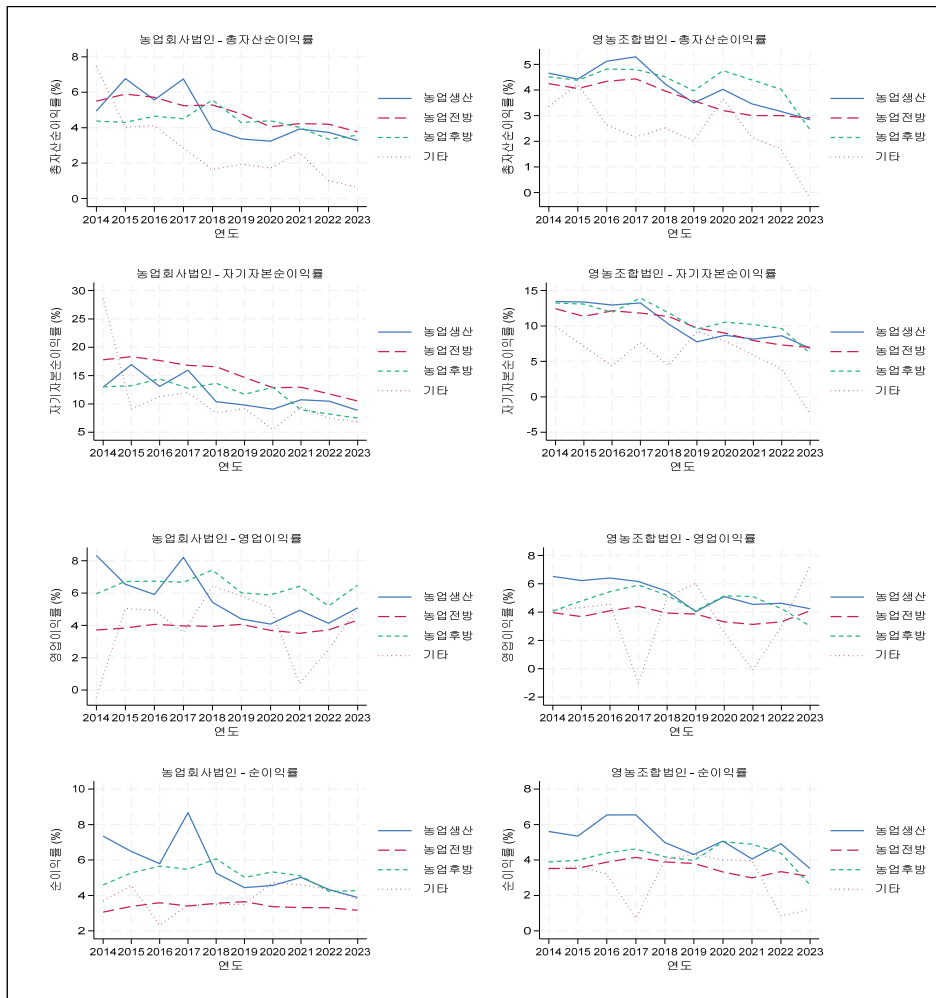


주: 자료는 사분위 범위(interquartile range) 방식으로 이상치를 제거한 결과값임.

자료: KODATA 제공 농업법인 재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자산 및 자본 규모를 고려하여 수익성을 평가한 결과, 전체적으로 연도별 수익성이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연도별로 변동을 보였으나, 추세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추세는 산업 유형과 관계없이 공통으로 나타났다. 표본 업체의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또한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다<그림 3-8>.

〈그림 3-8〉 표본 업체의 수익성 지표 추이(2014~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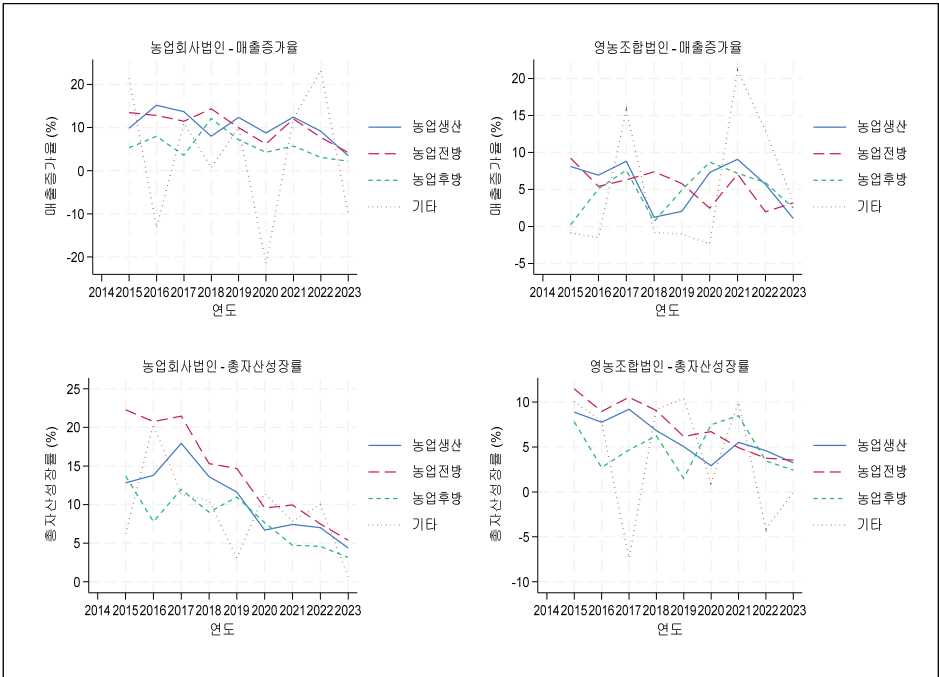


주: 자료는 사분위 범위(interquartile range) 방식으로 이상치를 제거한 결과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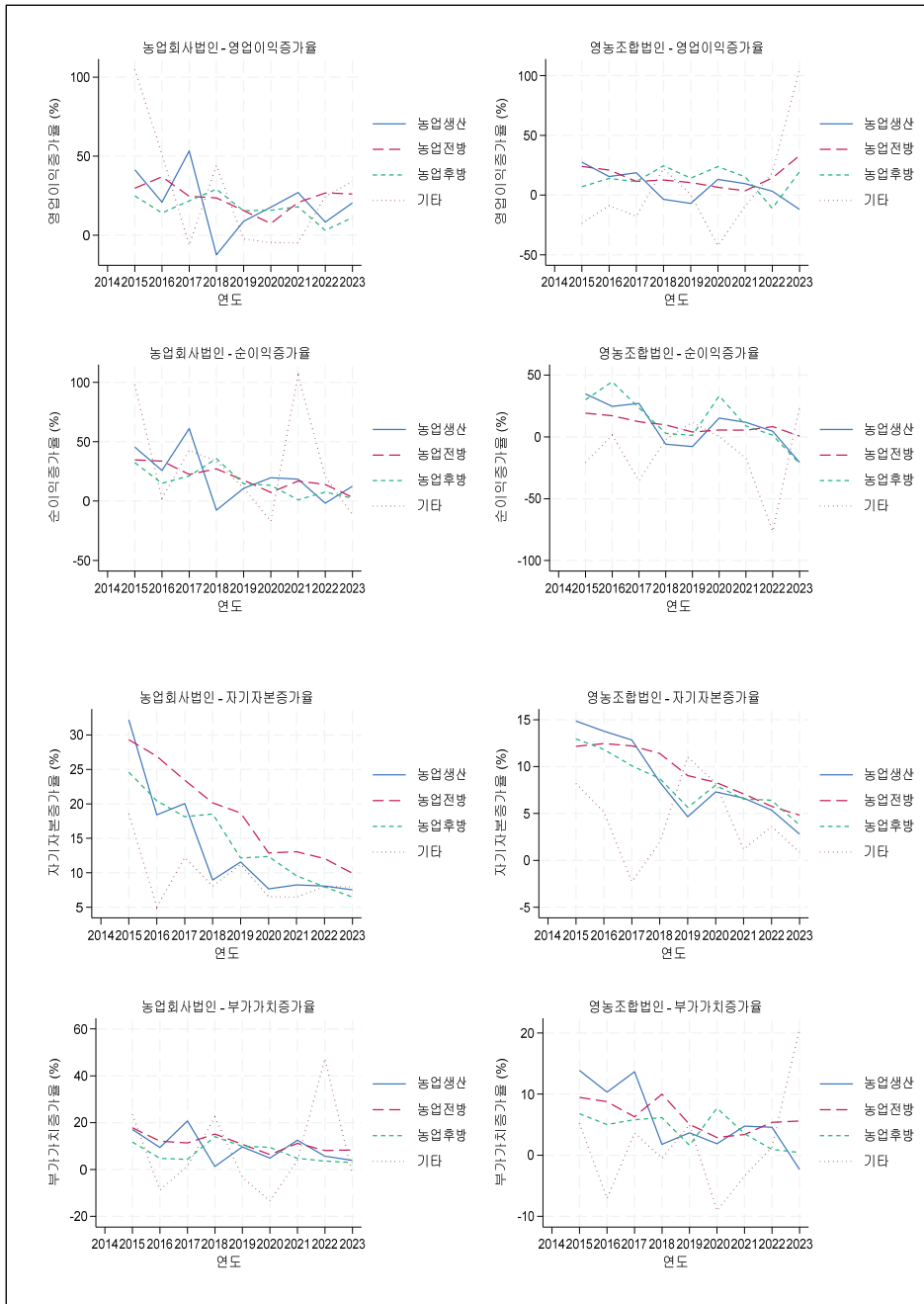
자료: KODATA 제공 농업법인 재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본 업체의 성장성 지표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수익성 지표와 유사하게 하락 추세를 보였다. 매출 증가율과 총자산 성장률은 분석 초기에는 두 자릿수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기간 후반으로 갈수록 한 자릿수대로 하락하였다. 또한 영업이익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부가가치증가율, 자기자본 증가율 등은 연도별로 높은 변동성을 보였으나, 전반적인 추세는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거나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표본 업체의 평균적인 경영규모가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경영성과 또한 정체되어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3-9>.

〈그림 3-9〉 표본 업체의 성장성 지표 추이(2014~2023년)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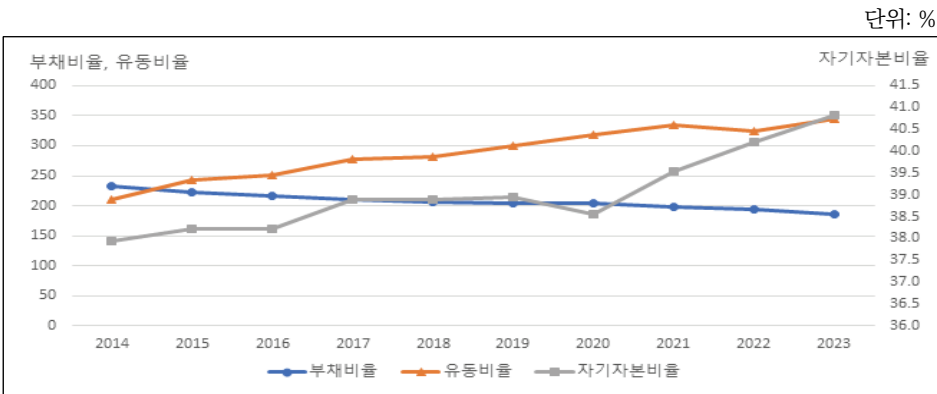


주: 자료는 사분위 범위(interquartile range) 방식으로 이상치를 제거한 결과값임.

자료: KODATA 제공 농업법인 재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본 업체의 재무안정성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를 보였다. 부채비율(부채/자본)은 2014년 232.8%에서 2023년 186.8%로 하락한 반면,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은 같은 기간 210.5%에서 345.0%로 상승하였다. 또한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자산)도 37.9%에서 40.8%로 높아져, 전반적으로 재무적 안정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채 의존도는 여전히 높아, 여타 식품 관련 업체보다 월등히 높고 금융비용 부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 업체의 기간 평균 부채비율은 206.2%로, 농업법인과 유사한 업종의 2021~2023년 평균 부채비율(107.4%)의 약 두 배 수준이었다.¹²⁾ 표본 업체의 자기자본비율 또한 평균 39.1%로, 자기자본보다는 타인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보였다. 이로 인해 금융비용 부담 역시 높게 나타났으며, 표본 업체의 평균 금융비용부담률은 3.1%로, 일반 식료품제조업체 평균의 약 3배 수준이었다. 농업법인은 일반 식품업체에 비해 유동자산 보유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단기자금 상환 능력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유동비율은 단기자금 상환 능력을 의미하는데, 표본 업체의 2014~2023년 평균 유동비율은 293.2%로, 일반 식품업체의 2021~2023년 평균(131.9%)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다<그림 3-10>.

〈그림 3-10〉 표본 업체의 재무안정성 지표 추이



주: 자료는 사분위 범위(interquartile range) 방식으로 이상치를 제거한 결과값임.

자료: KODATA 제공 농업법인 재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2) 한국은행(2024), 기업경영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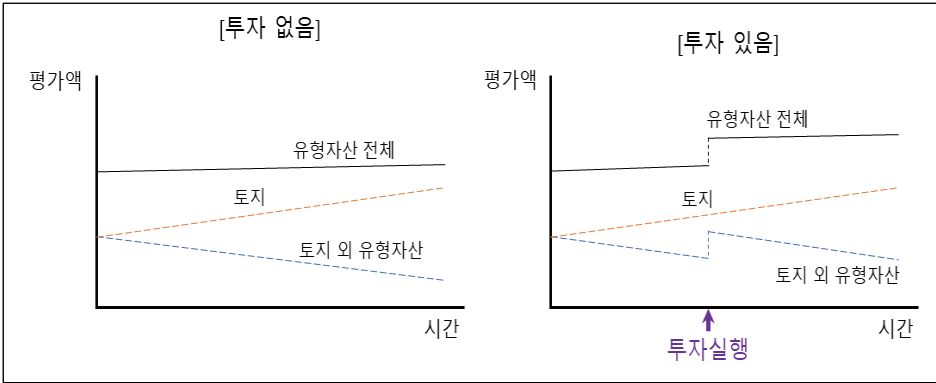
2. 자본투자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효과

2.1. 투자지표의 설정

설비투자 지표는 연도별 유형자산 증가율을 기준으로 더미변수를 생성하였다. 농업법인의 재무제표 자료만으로는 투자 실행 여부나 설비투자 금액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형자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대리변수로 활용하였다. 즉, 유형자산 증가율이 일정 기준($x\%$) 이상일 경우 1, 그렇지 않을 경우, 0으로 처리하여 설비투자 여부를 구분하였다. 표본에 포함된 농업법인의 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및 부속설비,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공구·기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 기타 유형자산의 합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유형자산 증가율을 기반의 더미변수를 활용하여, 설비투자가 농업법인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연구자의 판단이 일정 부분 개입될 수 있으므로, 유형자산 증가의 기준 설정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농업법인이 보유한 자산 중 토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형자산은 구입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평가액이 감소한다. 반면, 토지의 감가상각은 없고 물가 상승과 연계되어 보유 가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농업법인의 토지 보유면적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법인의 유형자산 가치는 각 법인의 자산가치 감가상각분을 반영하여 대체로 미미하게 상승하거나 초기 규모를 유지 또는 감소할 수 있다. 반대로 법인의 전체 유형자산 평가액이 지가상승률을 초과하여 크게 증가할 경우, 자산가치 상승이 설비투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그림 3-11>. 농업법인의 자산가치 변동에서 지가가 차지하는 비중을 정량적으로 분리하기는 어렵지만, 추가 투자가 없는 상태에서 유형자산 가치가 지가지수 상승률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일 기간 지가지수 상승률보다 높은 법인은 설비투자를 단행한 법인으로 판단하였다.

〈그림 3-11〉 투자 여부에 따른 자산가치 변화 추이 예시



자료: 저자 작성.

과거 지가지수의 변동 폭을 고려할 때 자산가치 상승률이 약 3% 내외일 경우에도 설비투자 실행의 기준으로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더욱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유형자산 5% 이상 증가 경우를 설비투자 실행으로 간주하였다. 이는 재무 자료와 분석 기간이 같은 기간(2014~2023년) 동안 국내 지가지수의 연평균 증감률이 2.17%에서 3.15% 사이인 점을 반영한 것이다<표 3-10>. 다만, 설비투자 더미의 설정 기준은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었고, 토지가격이 설비투자 더미 설정 기준보다 높게 상승하는 경우 투자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투자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착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설비투자 더미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준값에 따른 분석 결과의 변화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을 추가로 시행하였다.¹³⁾

〈표 3-10〉 지가지수 연평균 증감률(2014~2023년)

구분	전	답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증감률(2014~2023)	2.77%	2.55%	3.15%	3.13%	2.17%

자료: 한국부동산원(각 연도), 전국지가변동률조사.

13) 농업법인 재무 자료에는 세부 유형별로 자산 평가액이 일부 기록되어 있으나 누락 건수가 많고 신뢰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에 투자 여부를 판단할 때 토지의 가치상승분을 제외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토지를 포함한 유형자산 전체의 증가율을 사용하였다.

2.2. 투자 현황과 성과 기초분석

표본에 포함된 농업법인 중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설비투자를 한 번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법인의 비율은 유형자산 증가율 5% 기준에서 10.1%로 나타났으며, 설비투자의 판단 기준을 더 엄격히 적용하여 유형자산 증가율 10% 기준을 상향할 경우, 해당 비율은 14.8%로 증가하였다. 법인별 평균 설비투자 횟수는 약 2.9회(5% 기준)로 나타났으며, 이 중 2회 투자 법인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1회 및 3회 투자 법인 순으로 나타났다. 기준을 10%로 상향할 경우, 평균 투자 횟수는 2.5회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대부분 농업법인은 분석 기간 최소 1회 이상 설비투자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형자산 증가율 기준값 설정에 따라 설비투자 여부와 빈도에 관한 결과가 일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1>.

〈표 3-11〉 자료 기간 내 투자 횟수

단위: 개, %

투자 횟수	유형자산 5% 기준			유형자산 10% 기준		
	업체 수	비율	누적 비율	업체 수	비율	누적 비율
기간 내 투자 없음	341	10.1	10.1	496	14.8	14.8
1회	599	17.8	28.0	753	22.4	37.2
2회	726	21.6	49.6	816	24.3	61.4
3회	718	21.4	70.9	630	18.7	80.2
4회	517	15.4	86.3	401	11.9	92.1
5회	300	8.9	95.2	197	5.9	97.9
6회	118	3.5	98.7	59	1.8	99.7
7회	34	1.0	99.7	8	0.2	99.9
8회	7	0.2	99.9	2	0.1	100.0
9회	2	0.1	100.0		0.0	100.0
전체	3,362	100.0		3,362	100.0	
업체별 평균 투자 횟수	2.9회			2.5회		

자료: KODATA 제공 농업법인 재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자료 기간 내 투자 횟수와 법인의 성장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성장단계가 상승한 법인, 유지된 법인, 하락한 법인의 평균 투자 횟수를 비교해 보면, 성장단계가 상승한 업체의 평균 투자 횟수가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성장단계가 상승한 법인은 평균 3.3회, 성장단계를 유지한 법인은 2.4회, 성장단계가 하락한 법인은 1.9회의 설비투자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성장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매출액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설비투자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법인일수록 매출이 증가하여 성장단계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3-12>.

〈표 3-12〉 성장단계 이동 여부에 따른 투자 횟수

단위: 개,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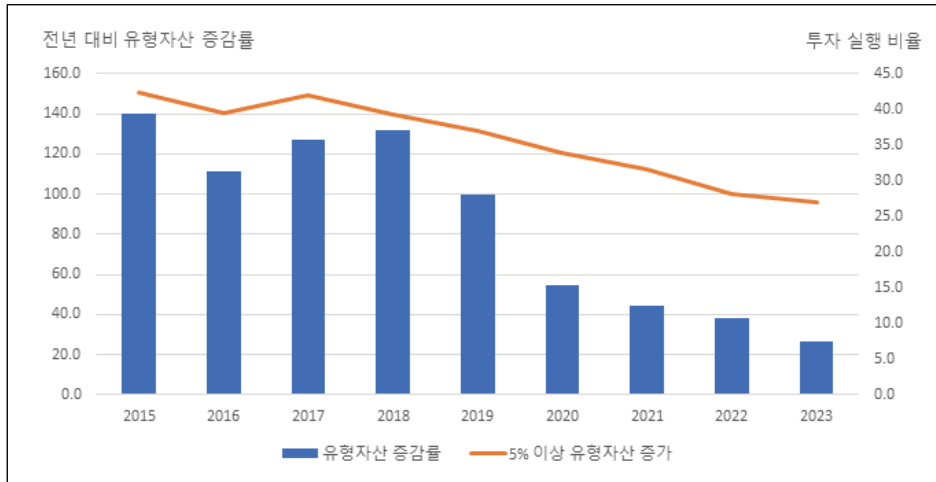
성장단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상승	891	3.3	1.7	0	9
유지	2,353	2.4	1.6	0	8
하락	118	1.9	1.5	0	6

자료: KODATA 제공 농업법인 재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농업법인의 투자 활력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12>의 막대그래프는 법인의 연평균 유형자산 증감률을 나타낸 것으로, 2015년 유형자산 증감률은 전년 대비 약 140%로 증가하여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2016년에 하락하였다. 이후 일시적인 반등이 있었으나, 2018년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선 그래프는 설비투자를 실행한 법인의 비율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으로, 이 역시 2017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분석된 표본 업체의 재무안정성 지표가 개선되는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농업법인이 주로 외부 자본에 의존하여 투자하는 농업법인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투자 감소가 곧 부채 감소로 이어진 결과로 판단된다.

〈그림 3-12〉 연도별 유형자산 증감률 및 투자 실행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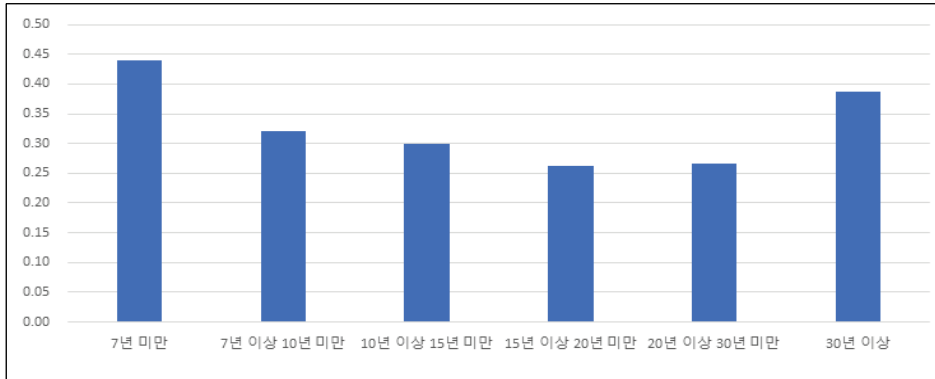
자료: KODATA 제공 농업법인 재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농업법인의 설비투자는 업력이 낮을수록 더 자주,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30년 이상 장기 운영된 법인들에서 투자 비율은 다시 증가하였다. 즉, 법인의 업력이 7년 미만인 업체의 약 44%가 설비투자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나 전체 분석대상 중 가장 활발한 설비투자 활동을 보였으며, 이후 법인 업력이 15~20년인 구간에서는 설비투자 실행 비율이 약 22%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업력이 30년 이상인 장기 운영 업체의 설비투자 비율은 약 39%로 다시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생 업체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된 경영 기반을 가진 법인 역시 재투자를 지속해서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농업법인의 지속가능성이 설비 재투자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그림 3-13>.

농업법인 대표의 연령에 따른 투자 횟수를 살펴보면, 30대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투자 횟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의 연령에 따라 위험 선호도가 다르거나 투자가 많은 시기인 창업 초기 단계의 업체일수록 대표의 연령이 낮기 때문일 수 있다.

〈그림 3-13〉 업력별 평균 투자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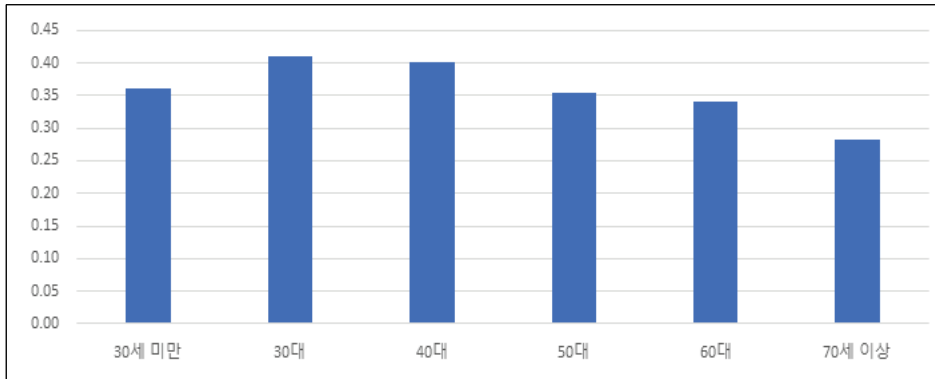
단위: 회



주: 2014~2023년 동안 업력에 따른 평균 투자 횟수를 의미함.
자료: KODATA 제공 농업법인 재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4〉 대표 연령별 평균 투자 횟수

단위: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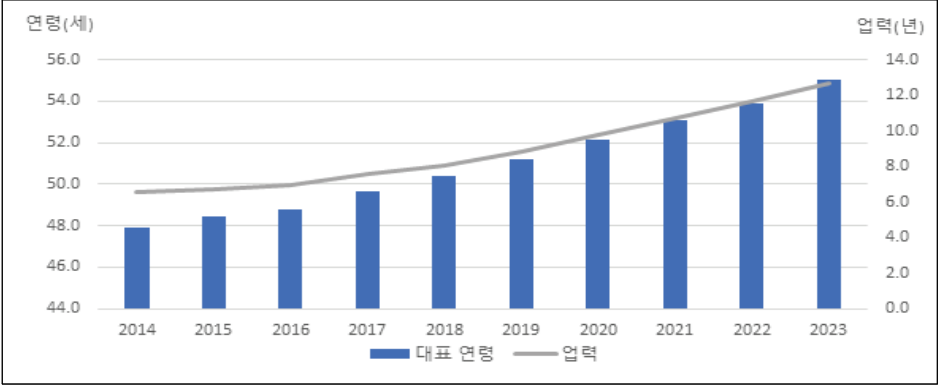


주 1) 대표 연령은 조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값임.
2) 2014~2023년 동안의 대표 연령별 평균 투자 횟수를 의미함.
자료: KODATA 제공 농업법인 재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농업법인 대표의 평균 연령은 2014년 47.9세에서 2023년 55세로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 법인의 평균 업력도 6.5년에서 12.7년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경영 주체의 고령화와 법인의 성숙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대표자의 연령과 법인의 업력이 높아질수록 새로운 설비투자에 대한 위험 회피 성향이 강화되고 안정적 운영을 중시하는 경향이 커지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요

인이 농업법인의 투자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3-15>.

〈그림 3-15〉 법인 대표의 연령 및 업체 업력 추이



자료: KODATA 제공 농업법인 재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산업유형별로 투자 빈도와 규모를 분석한 결과, 농업 전방산업에 종사하는 법인의 설비투자 활동이 다른 유형의 법인보다 더 활발하였으며, 투자 규모 또한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전방산업 법인의 평균 투자 횟수는 0.360회, 유형자산 증감률은 93.0%로 전체 평균(0.352회, 82.6%)을 상회하였다. 반면, 농업 생산 분야 법인의 평균 투자 횟수와 유형자산 증감률은 각각 0.337회와 55.5%로 전체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보였다<표 3-13>.

〈표 3-13〉 산업유형별 투자 횟수 및 유형자산 증감률

단위: 회, %

산업 유형	업체별 평균 투자 횟수	평균 유형자산 증감률
농업생산	0.337	55.5
농업전방	0.360	93.0
농업후방	0.343	79.1
기타	0.306	60.9
전체	0.352	82.6

자료: KODATA 제공 농업법인 재무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3. 농업법인의 자산 투자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2.3.1.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농업법인을 산업유형별(농업생산, 전방, 후방)로 구분하여, 유형자산 투자가 법인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유형자산 투자 여부를 주요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전년 대비 유형자산이 5% 이상 증가한 경우를 투자 발생으로 정의하여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유형자산 투자는 단기에 성과로 이어지기보다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경영성과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기(t)와 전기(t-1)의 투자 변수를 구분하여, 당해 연도의 직접 효과와 이전 연도의 시차 효과를 동시에 추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본 분석 모형은 다음의 식 (1)로 표현된다.

$$Y_{i,t} = \beta_1 I_{i,t} + \beta_2 I_{i,t-1} + \gamma X'_{i,t} + u_t + \varepsilon_{i,t} \quad \cdots (1)$$

여기서 $Y_{i,t}$ 는 농업법인 i 의 t 연도 경영성과 지표(예: 총자산수익률, 매출액 증가율 등)를 나타내며, $I_{i,t}$, $I_{i,t-1}$ 는 각각 현기 및 1기 전의 유형자산 투자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유형자산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는 1,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X'_{i,t}$ 는 총자산, 부채비율, 업종, 설립연도, 지역, 연도 더미 등을 포함하는 통제변수이며, u_t 는 모든 법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연도별 거시적·제도적 환경 변화 등 연도효과이고, $\varepsilon_{i,t}$ 는 오차항을 의미한다.

유형자산 투자는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경영성과 수준에 따라 투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내생성 문제를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수익성과 성장성이 높은 법인은 추가 설비투자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단순 회귀 분석은 역인과성(reverse causality)에 의해 추정치가 편의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유형자산 5% 증가 여부와 농업법인의 경영성

과(ROA, ROE, 매출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간의 내생성 존재 여부를 우선 검정하였다. 내생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식별력 검정(K-P LM)을 통해 도구 변수가 내생성이 의심되는 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확인하고, 약한 도구 변수 검정(K-P rk Wald F)을 통해 도구 변수가 충분히 강한 설명력을 가지는지를 검정하였다. 또한, 과식별 검정(Hansen J)을 통해 도구 변수가 외생적인지, 즉 오차항과 독립적인지를 검정하였다. 세 검정 모두 통계적으로 적합성이 확보된 경우, 2단계 최소자승법(2SLS)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반면, 내생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도구 변수의 강건성 또는 외생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이분산성 검정(Breusch-Pagan test)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오차항의 이분산성이 확인된 모형에 대해서는 일반화 최소자승법(FGLS)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GLS는 OLS에 비해 오차항의 이분산성과 자기상관 구조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추정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며, 특히 패널자료에서 법인 간 이질성과 연도별 충격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어, 본 연구의 추정에 활용하였다.

유형자산 투자는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경영성과 수준에 따라 투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내생성 문제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2단계 최소자승법(2SLS)을 적용하였다. 2SLS의 1단계 추정식은 다음 식(2)와 같다.

$$\hat{I}_{i,t} = \phi Z_{i,t} + \eta_{i,t}, \hat{I}_{i,t-1} = \phi Z_{i,t-1} + \eta_{i,t-1} \quad \cdots (2)$$

여기서 $z_{i,t}$ 는 유형자산 투자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경영성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생적 변수(예: 부채비율, 이자비용 등)를 나타내며, $\hat{I}_{i,t}$ 와 $\hat{I}_{i,t-1}$ 는 각각 도구 변수를 통해 추정된 현기와 1기 전의 예측된 유형자산 투자 변수이다.

이렇게 1단계(식 2)에서 추정된 투자 변수들을 이용하여, 2단계에서는 다음 식(3)과 같이 경영성과에 대한 회귀식을 추정한다.

$$Y_{i,t} = \alpha Y_{i,t-1} + \beta_2 \hat{I}_{i,t} + \beta_3 \hat{I}_{i,t-1} + \gamma X'_{i,t} + u_t + \varepsilon_{i,t} \quad \cdots (3)$$

이와 같은 2 SLS 절차는 유형자산 투자 변수의 내생성을 제거한 상태에서 경영 성과에 대한 순수한 인과 효과(causal effect)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형자산 5% 증가 더미변수는 투자 실행 여부를 식별하는 장점이 있으나, 기준값이 자의적으로 설정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보완으로 유형자산의 수준 변수를 독립변수로 넣고 농업법인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더미 방식의 추정 결과가 일관성 있게 해석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2.3.2. 변수 설정

본 연구에서는 농업법인의 경영성과에 대한 유형자산 투자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로 수익성과 성장성을 나타내는 재무 지표를 사용하고, 독립변수로 유형자산 투자지표와 법인의 일반적 특성, 재무안정성과 외부 환경 변수를 포함하였다. 또한 투자 변수의 내생성을 보완하기 위해 적절한 도구 변수를 병행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농업법인의 재무적 성과를 반영하는 지표로 구성하였으며, 수익성 지표로는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을, 성장성 지표로는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을 사용하였다. 총자산순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을 자산총계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해 산출하였는데, 당기순이익이 이자 비용을 제외한 값이므로 투자로 인한 비용을 상쇄할 정도의 수익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다. 그러나 총자산순이익률은 총자산을 분모로 사용하기 때문에 타인자본을 제외한 순수 자기자본만으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었는지를 알 수 없다. 이에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인 자기자본순이익률을 추가하였다.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은 각각 당기 매출액(또는 영업이익)과 전기 매출액(또는 영업이익)의 차이를 전기값으로 나눈 후 백분율로 환산하였다. 추가로, 로그 변환된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종속변수로 하는 보조모형(Model II)을 설정하여 분석 결과의 강건성을 점검하였다<표 3-14>.

〈표 3-14〉 종속변수 목록

구분	지표	변수	산출방식
모형 I	수익성 지표	총자산순이익률(ROA)	당기 순이익/자산총계×100
		자기자본순이익률(ROE)	당기 순이익/자기자본×100
	성장성 지표	매출액 증가율	(당기 매출액-전기매출액)/전기 매출액×100
		영업이익 증가율	(당기 영업이익-전기 영업이익)/전기 영업이익×100
모형 II	수익성 지표	ln(영업이익)	영업이익=매출액-매출원가-판매비와 관리비
	성장성 지표	ln(매출액)	

자료: 저자 작성.

설명변수 중 핵심 변수는 유형자산 투자지표로, 전년 대비 유형자산 가치가 5% 이상 증가한 경우를 1, 그렇지 않은 경우를 0으로 정의한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이는 농업법인의 실질적 설비투자 실행 여부를 대리하는 지표로 활용되었다. 법인의 일반적 특성은 회사 형태, 운영 기간, 종사자 수, 대표자의 성별과 연령으로 구성하였다. 회사 형태는 영농조합법인을 0, 농업회사법인을 1로 처리하였으며, 이는 조직 구조와 의사결정 방식의 차이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운영 기간(업력)은 2025년에서 설립연도를 차감하여 산출하였으며, 이는 기업의 경험 축적과 노하우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다. 종사자 수는 기업의 생산능력과 규모의 경제를 나타내는 지표로, 인력이 많을수록 매출 규모는 커질 수 있으나 인건비 부담 확대에 따른 이익 감소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대표자의 성별(남=0, 여=1)과 연령 변수는 경영자의 위험 선호도와 경영전략 수립에 영향을 미침으로 경영성과와 관련될 수 있는 변수이고, 대표 연령이 낮을수록 기술 활용 및 시장 대응력이 높아 상대적으로 우수한 경영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

재무안정성 변수로는 부채비율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부채를 자본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부채비율은 기업의 자본 구조와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며, 일정 수준까지는 자금 활용 효율성을 높여 수익성을 개선 시키지만, 과도한 부채는 이자 부담을 증가시켜 경영성과를 악화시킬 수 있다. 정재원 외(2018)는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이 일정 수준까지는 총자산순이익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

을 미치지만,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본 연구 역시 재무비율 변수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외부 환경 변수는 농업법인이 직면한 시장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농산물가격지수는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중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를 사용하였으며, 농업전방산업의 경기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음식료품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의 GDP를 지수화한 농업전방 GDP 지수를 추가하였다. 이들 변수는 거시적 시장 상황의 변동이 법인의 매출과 수익성에 미치는 외생적 영향을 보정하기 위한 목적이다<표 3-15>.

한편, 유형자산 투자 변수는 경영성과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생성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이를 보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도구 변수(Instrumental Variables: IV)를 활용하였다. 검토 대상 변수는 이자 비용, 금융비용 부담률, 유동비율, 부채비율이었으며, 적합성 검정 결과 이자 비용의 전기(t-1)와 전전기(t-2) 시차가 가장 유효한 도구 변수로 확인되어 추정에 사용하였다. 이는 이자비용이 자금 조달을 통해 투자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당기의 경영성과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외생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표 3-15〉 독립변수 목록

유형	변수	산출방식
설비투자 지표	유형자산 5% 이상 증가 더미	유형자산 가치가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 =1, 그렇지 않은 경우 = 0
일반 특성	회사 형태	영농조합법인=0, 농업회사법인=1
	운영 기간	2025-설립연도
	종사자 수	
	대표 성별	남=0, 여=1
	대표 연령	
재무안정성	부채비율	부채/자본×100
외부 환경 변수	농산물 가격지수	농축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2020=100)
	농업전방 GDP	음식료품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GDP를 지수화(2014=100)

자료: 저자 작성.

2.3.3. 분석 결과

가. 모형 I: 수익성

농업법인의 유형자산 투자(유형자산 5% 증가 여부)가 법인의 수익성 지표인 ROA와 ROE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현기(t)의 유형자산 투자는 모든 산업 유형에서 ROA와 ROE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켜 당기 수익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현기(t) 유형자산 5% 증가의 추정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보였으며, 현기 유형자산 투자는 농업생산산업 법인의 ROA를 8.6%p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농업전방산업 법인의 ROA는 5.3%p, 농업후방산업 법인의 ROA는 6.6%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로 인해 농업생산산업 법인의 ROE는 13.6%p 상승하였으며, 농업 전방산업과 농업후방산업 법인의 ROE는 각각 21.6%p, 23.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생산산업 법인의 ROE를 제외하면, 전기(t-1)의 유형자산 투자는 대부분 음(-)의 계수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이전 연도의 투자 효과가 유지·운영비용이나 감가상각 등으로 반영되면서 단기적으로 수익성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 준다. 전년도에 외부자본을 이용해 투자를 했다면 그에 대한 이자 지출이 다음 연도에 누적되면서 수익을 감소시킬 수 있다.

종사자 수는 대체로 농업법인의 수익성과 약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종사자 수가 많을수록 인건비 부담이 높아져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임을 의미한다. 반면 매출액은 모든 산업유형에서 유의한 양(+)의 계수를 보여, 매출 규모가 클수록 수익성이 높게 나타났다.

총자산과 자기자본은 음(-)의 계수로 추정되어 자산규모가 클수록 단위자산 대비 수익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사업 운영 기간과 그 제공 항의 계수 값은 각각 음수(-)와 양수(+)로 추정되어, 운영 초기에는 수익성이 감소하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 하면 수익성이 회복되는 U자형 곡선을 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의 개인적 특성은 농업법인의 수익성 지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농업전방산업 법인의 ROA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대표자가 남성인 경우 법인의 수익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나타났다<표 3-16>.

〈표 3-16〉 농업법인의 산업유형별 유형자산 증가(5%)가 ROA·ROE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구분	ROA			ROE		
	농업 생산	농업 전방	농업 후방	농업 생산	농업 전방	농업 후방
유형자산 5% 증가(t)	8.673*** (2.600)	5.269*** (1.005)	6.586** (2.554)	13.595** (6.666)	21.605*** (3.357)	23.229** (10.174)
유형자산 5% 증가(t-1)	-1.053** (0.509)	-0.656*** (0.187)	-1.029** (0.515)	-1.604 (1.195)	-2.416*** (0.605)	-3.004* (1.743)
ln(매출액)	0.961*** (0.233)	1.265*** (0.094)	1.258*** (0.342)	2.517*** (0.424)	2.774*** (0.267)	2.433** (1.058)
총자산	-0.0002** (0.0001)	-0.0005*** (0.00004)	-0.0005*** (0.0001)	-	-	-
자기자본	-	-	-	-0.0004 (0.0002)	-0.0018*** (0.0003)	-0.0011 (0.0008)
부채비율	-0.0036*** (0.0007)	-0.0034*** (0.0013)	-0.0047*** (0.0015)	0.0003 (0.002)	-0.0001 (0.001)	-0.003 (0.003)
법인 유형	-0.381 (0.362)	-0.294* (0.166)	0.040 (0.520)	-1.139 (0.797)	-0.825* (0.452)	-1.983 (1.447)
종사자 수	-0.028* (0.015)	0.002 (0.005)	0.020 (0.019)	-0.055* (0.032)	-0.026** (0.013)	-0.022 (0.049)
사업 운영 기간	-0.091 (0.089)	-0.116*** (0.041)	-0.084 (0.144)	-0.543*** (0.189)	-0.558*** (0.147)	-0.579 (0.415)
사업 운영 기간의 제곱항	0.002 (0.003)	0.002* (0.001)	0.001 (0.004)	0.010* (0.005)	0.013*** (0.005)	0.013 (0.012)
대표 연령	0.005 (0.016)	-0.008 (0.007)	-0.031 (0.027)	-0.022 (0.035)	-0.033 (0.021)	-0.082 (0.075)
대표 성별	0.072 (0.383)	-0.279* (0.148)	0.177 (0.636)	0.184 (0.845)	-0.536 (0.465)	0.122 (1.892)
ln(농산물 가격지수)	-3.571 (2.309)	-2.234*** (0.803)	-0.169 (2.726)	-10.514** (4.774)	-7.550*** (2.609)	-0.587 (8.109)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상수	12.932 (10.920)	6.956* (3.913)	-1.652 (13.344)	43.071* (22.699)	27.621** (12.489)	0.771 (38.754)
관측치(N×T)	1,320	6,034	833	1,320	6,034	833
K-P LM $\chi^2(p)$	32.235*** (0.0000)	88.807*** (0.0000)	14.199*** (0.0008)	26.261*** (0.0000)	85.475*** (0.0000)	10.681*** (0.0048)
K-P rk Wald F	11.749	35.921	7.631	10.904	40.881	5.277
Hansen J $\chi^2(p)$	1.207 (0.272)	0.614 (0.433)	2.080 (0.149)	2.968 (0.085)	1.913 (0.167)	1.822 (0.177)
Endogeneity $\chi^2(p)$	12.774*** (0.0004)	28.615*** (0.0000)	6.343** (0.012)	4.594** (0.032)	45.615*** (0.0000)	4.651** (0.031)
추정방법	2SLS	2SLS	2SLS	2SLS	2SLS	2SLS

주 1) 계수 바로 아래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임.

2) K-P LM $\chi^2(p)$, Hansen J $\chi^2(p)$, Endogeneity $\chi^2(p)$ 등의 행에서 괄호 안 숫자는 p-값임.

3) *는 10% 수준, **는 5% 수준, ***는 1% 수준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4) 유형자산 5% 증가 변수의 현재기에 대한 내생성을 고려하여, 이자 비용의 1·2기 시차를 도구 변수로 활용함.

5) K-P LM $\chi^2(p)$ 는 식별력 검정(underidentification test), K-P rk Wald F는 약한 도구변수 검정(underidentification test), Hansen J $\chi^2(p)$ 는 과식별 검정(underidentification test), Endogeneity $\chi^2(p)$ 는 내생성 검정 결과임.

자료: 저자 작성.

나. 모형 I: 성장성

농업법인의 유형자산 투자(유형자산 5% 증가 여부)가 성장성 지표인 매출 증가율과 영업이익의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기(t)의 유형자산 투자는 모든 산업유형에서 성장성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유형자산 투자가 실행 시 당해연도의 매출 증가율은 농업생산산업에서 6.3%p, 농업전방산업에서 23.2%p, 농업후방산업에서 2.9%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형자산 투자는 당해연도의 영업이익의 증가율을 높이는 효과를 보였으며, 농업전방산업은 35.2%p, 농업후방산업은 11.0%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기(t-1)에 이루어진 유형자산 투자가 법인의 성장성 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유형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전기(t-1)의 유형자산 5% 증가는 농업생산산업의 매출 증가율을 3.0%p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영업이익의 증가율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농업전방산업의 경우, 전기(t-1)에 이루어진 유형자산 투자는 매출 증가율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영업이익 증가율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업후방산업에서는 전기(t-1)의 투자가 매출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 모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표 3-17>.

〈표 3-17〉 농업법인의 산업유형별 유형자산 증가(5%)가 매출 증가율·영업이익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구분	매출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농업 생산	농업 전방	농업 후방	농업 생산	농업 전방	농업 후방
유형자산 5% 증가(t)	6.245*** (0.475)	23.191*** (5.334)	2.877*** (1.012)	27.173 (28.411)	35.152*** (12.396)	10.961*** (2.484)
유형자산 5% 증가(t-1)	3.029*** (0.484)	-0.455 (0.992)	3.838*** (1.013)	-8.202 (6.110)	-5.517* (3.091)	4.784** (2.283)
ln(자산총계)	0.050 (0.265)	0.055 (0.512)	0.015 (0.637)	- -	- -	- -
ln(매출액)	- -	- -	- -	1.915 (3.389)	0.701 (1.429)	-0.769 (2.078)
부채비율	0.0066*** (0.001)	0.0050* (0.003)	0.0063*** (0.002)	0.0029 (0.012)	0.0026 (0.002)	0.0030 (0.006)
법인 유형	2.656*** (0.505)	0.801 (0.760)	-1.607 (1.091)	1.404 (6.066)	3.852 (2.384)	-4.226 (2.858)
종사자 수	-0.079*** (0.013)	-0.044* (0.022)	-0.027 (0.025)	-0.130 (0.303)	-0.176 (0.108)	0.201 (0.141)
사업 운영 기간	-0.661*** (0.134)	-0.466** (0.190)	-1.283*** (0.293)	-2.818** (1.352)	-1.101* (0.598)	0.506 (0.677)
사업 운영 기간의 제곱항	0.015*** (0.004)	0.008 (0.006)	0.032*** (0.008)	0.090** (0.036)	0.041** (0.020)	-0.007 (0.020)
대표 연령	0.030 (0.022)	-0.048 (0.037)	-0.126*** (0.042)	0.007 (0.225)	-0.247** (0.112)	-0.160 (0.109)
대표 성별	1.541*** (0.532)	0.991 (0.847)	-0.099 (1.290)	-4.675 (5.787)	1.471 (2.491)	-0.137 (2.752)
농산물가격지수 증가율	-1.479 (1.500)	1.259 (2.027)	-6.690*** (2.557)	-17.759 (13.464)	-11.797* (6.556)	-18.952*** (6.150)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상수	10.037** (5.031)	0.928 (8.274)	43.221*** (10.119)	67.152 (61.639)	60.868** (24.845)	79.381*** (25.604)
관측치(N×T)	1,923	6,034	1,046	358	1,730	399
K-P LM $\chi^2(p)$	-	95.807*** (0.000)	-	11.517*** (0.0032)	42.726*** (0.0000)	-
K-P rk Wald F	-	46.872	-	9.576	25.114	-
Hansen J $\chi^2(p)$	-	1.142 (0.285)	-	0.148 (0.701)	0.131 (0.717)	-
Endogeneity $\chi^2(p)$	-	13.458*** (0.0002)	-	1.501 (0.221)	7.350*** (0.0067)	-
추정방법	FGLS	2SLS	FGLS	2SLS	2SLS	FGLS

주 1) 계수 바로 아래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임.

2) K-P LM $\chi^2(p)$, Hansen J $\chi^2(p)$, Endogeneity $\chi^2(p)$ 등의 행에서 괄호 안 숫자는 p-값임.

3) *는 10% 수준, **는 5% 수준, ***는 1% 수준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4) 유형자산 3% 증가 변수의 현재기에 대한 내생성을 고려하여, 이자 비용의 1-2기 시차를 도구 변수로 활용함.

5) K-P LM $\chi^2(p)$ 는 식별력 검정(underidentification test), K-P rk Wald F는 약한 도구변수 검정(underidentification test), Hansen J $\chi^2(p)$ 는 과식별 검정(underidentification test), Endogeneity $\chi^2(p)$ 는 내생성 검정 결과임.

6) 영업이익의 증가율의 이상치는 해당 변수의 사분위 범위(IQR)를 기준으로, 1사분위(Q1) -0.5×IQR 미만이거나 3사 분위(Q3) +0.5×IQR을 초과하는 관측치를 제거하였음.

자료: 저자 작성.

사업 운영 기간과 운영 기간의 제곱 항은 법인의 성장성 지표와 각각 음(-)의 상관관계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이 초기 단계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 속도가 둔화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대표자의 개인적 특성은 법인의 성장성 지표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추정 결과를 통해 대표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성별이 여성이면 성장성이 높은 경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종사자 수와 매출 증가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음(-)의 관계를 보였으나, 영업이익 증가율과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종사자 수와 매출 증가율 간의 음(-)의 상관관계는 생산 과정에서 규모 또는 인력 운영상의 비효율이 존재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거시환경 변수로서 농산물가격지수와 성장성 지표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주로 농업 전후방산업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농산물가격지수가 빠르게 상승할수록 해당 산업의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율은 둔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농산물가격 상승 폭보다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반 물가가 더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다. 모형 I: 민감도 분석

기존 모형에서는 유형자산 5% 이상 증가 여부를 유형자산 투자지표로 설정하였으나, 유형자산 투자 효과가 특정 기준에 종속적인 결과인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추가로 유형자산 증가율 기준을 3%와 7% 증가 수준을 적용하여 추정계수의 부호와 크기 및 모형 적합도 변화를 비교하였다<표 3-18, 3-19>. 이를 통해 유형자산 투자 효과가 특정 기준에 의존하는지, 혹은 일관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 방법은 기존 모형과 동일하게 2단계 최소자승법(2SLS)을 기본 분석 방법론으로 활용하였으며, 종속변수와 유형자산 투자지표 간에 내생성이 존재하지 않거나 도구 변수가 약한 경우에는 최소자승법(FGLS)을 보완적으로 적용하였다. 유형자산 투자지표의 도구 변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자 비용의 1·2기 시차

를 사용하였으며, 내생성 검정(Endogeneity test)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전반적으로 내생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농업생산산업은 모든 유형자산 증가율 수준(3%, 5%, 7%)에서 K-P LM 검정을 통해 식별력이 확보되었으며, 내생성 검증에서도 일관되게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 내생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농업전방산업은 ROA와 ROE 모두에서 K-P rk Wald F값이 30~4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도구 변수가 강건하게 확보되었으며, 내생성도 일관되게 유의하여 2SLS 추정의 적합성이 입증되었다.

유형자산 증가율 수준을 3%, 5%, 7%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 ROA와 ROE에 대한 유형자산 투자 더미 계수의 추정치는 부호와 크기 모두에서 큰 변동이 없었다. ROA에 대한 유형자산 투자 더미 계수는 농업생산산업 8.053~8.920, 농업전방산업 5.261~5.319, 농업후방산업 5.128~6.823의 범위에서 변동이 크지 않게 안정적으로 나타났으며, 부호 역시 일관되게 양(+)의 계수 값을 나타냈다. ROE의 경우 농업생산산업에서는 유형자산 3% 증가 적용 시 12.284, 유형자산 5% 증가 적용 시 13.595, 유형자산 7% 증가 적용 시 13.684로 추정되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농업전방산업에서도 계수 값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농업후방산업은 계수 값의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특히 유형자산 투자 기준을 강화할수록 계수 값이 커졌는데, 이는 유형자산 투입 규모가 클수록 경영성과가 향상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외 변수들의 추정계수 또한 크기와 부호 면에서 유형자산 5% 증가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를 기준으로 투자 여부를 정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유형자산 투자의 전기($t-1$)에 대한 효과는 투자 증가율 수준(3%, 5%, 7%)과 관계없이 음(-)으로 추정되어, 전기 투자가 단기 수익성을 낮추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OA의 경우 농업생산산업은 투자 증가 수준과 무관하게 일관된 음(-)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ROE는 음(-)의 계수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농업전방산업은 ROA와 ROE 모두에서 유형자산 투자 증가율 수준과 무관하게 음(-)의 계수가 유의하게 추정되어, 전기 유형자산 투자가

단기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농업후방산업은 ROA와 ROE 모두 음(-)의 계수로 추정되었으나, 계수 크기와 유의성은 투자 증가율 수준에 따라 일관되지 않았다.

매출액은 유형자산 증가율 수준 3%, 5%, 7% 모두에서 일관되게 양(+)의 효과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매출액 증가가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총자산과 자기자본은 모든 수준에서 음(-)으로 추정되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여, 자산규모가 큰 법인일수록 단위자산 대비 수익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사업 운영 기간은 모든 수준에서 선형향이 음(-), 제곱항이 양(+)으로 추정되어 U자형 관계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형자산 투자 수준 변화와 무관하게 초기에는 성장 둔화가 나타나다가 일정 시점 이후 반등하는 구조적 패턴을 나타냈다.

대표자 특성은 유형자산 증가율 수준과 관계없이 대체로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농업전방산업에서는 여성 대표의 ROA가 남성 대표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ROE에서는 모든 산업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농업후방산업의 경우 대표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ROA가 낮게 나타났으나, ROE에서는 뚜렷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표 3-18〉 농업법인의 산업유형별 유형자산 증가(3%)가 ROA·ROE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구분	ROA			ROE		
	농업 생산	농업 전방	농업 후방	농업 생산	농업 전방	농업 후방
유형자산 3% 증가(t)	8.053*** (2.317)	5.261*** (0.989)	5.128*** (1.753)	12.284** (5.920)	22.400*** (3.717)	17.553** (6.845)
유형자산 3% 증가(t-1)	-1.299** (0.522)	-0.769*** (0.194)	-0.706* (0.393)	-1.931 (1.221)	-2.923*** (0.693)	-1.839 (1.257)
ln(매출액)	0.953*** (0.226)	1.285*** (0.092)	1.249*** (0.332)	2.537*** (0.413)	2.787*** (0.283)	2.588*** (0.949)
총자산	-0.0002** (0.0001)	-0.0005*** (0.0000)	-0.0004*** (0.0001)	-	-	-
자기자본	-	-	-	-0.0004 (0.0002)	-0.0019*** (0.0003)	-0.0012* (0.0007)
부채비율	-0.0034*** (0.0007)	-0.0034*** (0.0013)	-0.0047*** (0.0014)	0.0007 (0.0017)	-0.0003 (0.0010)	-0.0029 (0.0027)
법인 유형	-0.578 (0.386)	-0.322* (0.169)	0.081 (0.504)	-1.418* (0.835)	-0.981** (0.478)	-1.688 (1.327)
종사자 수	-0.027* (0.015)	0.000 (0.005)	0.019 (0.017)	-0.052 (0.033)	-0.036** (0.014)	-0.017 (0.041)
사업 운영 기간	-0.092 (0.104)	-0.117** (0.047)	-0.087 (0.127)	-0.540*** (0.210)	-0.556*** (0.180)	-0.569* (0.348)
사업 운영 기간의 제곱항	0.002 (0.003)	0.002 (0.002)	0.001 (0.004)	0.009 (0.006)	0.013* (0.007)	0.011 (0.011)
대표 연령	0.007 (0.017)	-0.005 (0.008)	-0.031 (0.025)	-0.019 (0.036)	-0.020 (0.023)	-0.083 (0.067)
대표 성별	0.106 (0.380)	-0.272* (0.151)	0.240 (0.576)	0.245 (0.828)	-0.509 (0.481)	0.380 (1.647)
ln(농산물 가격지수)	-3.056 (2.343)	-1.841** (0.846)	-1.534 (2.298)	-9.748** (4.770)	-5.728** (2.851)	-5.460 (6.421)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상수	10.484 (11.174)	4.757 (4.162)	4.862 (11.244)	39.287 (22.841)	17.737 (13.797)	22.896 (31.065)
관측치(N×T)	1,320	6,034	833	1,320	6,034	833
K-P LM $\chi^2(p)$	33.062*** (0.000)	78.444*** (0.000)	20.762*** (0.0000)	28.514*** (0.000)	69.591*** (0.000)	17.792*** (0.0001)
K-P rk Wald F	13.199	35.556	12.342	12.787	34.516	9.087
Hansen J $\chi^2(p)$	1.307 (0.253)	0.681 (0.409)	2.998 (0.083)	2.983 (0.084)	1.662 (0.197)	2.304 (0.129)
Endogeneity $\chi^2(p)$	13.324*** (0.0003)	30.500*** (0.0000)	5.696** (0.0170)	4.756** (0.0292)	46.824*** (0.0000)	4.360** (0.0368)
추정방법	2SLS	2SLS	2SLS	2SLS	2SLS	2SLS

주 1) 계수 바로 아래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임.

2) K-P LM $\chi^2(p)$, Hansen J $\chi^2(p)$, Endogeneity $\chi^2(p)$ 등의 행에서 괄호 안 숫자는 p-값임.

3) ROA와 ROE 추정은 2단계 최소자승법(2SLS)을 활용하였음.

4) *는 10% 수준, **는 5% 수준, ***는 1% 수준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5) 유형자산 3% 증가 변수의 현재기에 대한 내생성을 고려하여, 이자 비용의 1·2기 시차를 도구 변수로 활용함.

6) ROA와 ROE 추정식에서는 총자산과 자기자본을 통제변수로 각각 포함하였음.

7) K-P LM $\chi^2(p)$ 는 식별력 검정(underidentification test), K-P rk Wald F는 약한 도구변수 검정(underidentification test), Hansen J $\chi^2(p)$ 는 과식별 검정(underidentification test), Endogeneity $\chi^2(p)$ 는 내생성 검정 결과임.

자료: 저자 작성.

〈표 3-19〉 농업법인의 산업유형별 유형자산 증가(7%)가 ROA·ROE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구분	ROA			ROE		
	농업 생산	농업 전방	농업 후방	농업 생산	농업 전방	농업 후방
유형자산 7% 증가(t)	8.920*** (2.781)	5.319*** (1.044)	6.823** (2.639)	13.638* (7.104)	21.949*** (3.510)	27.021** (12.950)
유형자산 7% 증가(t-1)	-1.028** (0.523)	-0.665*** (0.193)	-0.576 (0.422)	-1.507 (1.202)	-2.495*** (0.619)	-1.881 (1.534)
ln(매출액)	0.927*** (0.245)	1.257*** (0.094)	1.304*** (0.329)	2.455*** (0.447)	2.719*** (0.270)	2.554** (1.102)
총자산	-0.0002** (0.0001)	-0.0005*** (0.0000)	-0.0005*** (0.0001)	-	-	-
자기자본	-	-	-	-0.0004 (0.0002)	-0.0018*** (0.0003)	-0.0013 (0.0008)
부채비율	-0.0036*** (0.0007)	-0.0034*** (0.0012)	-0.0045*** (0.0014)	0.0004 (0.0016)	0.0002 (0.0010)	-0.0025 (0.0034)
법인 유형	-0.399 (0.366)	-0.312* (0.165)	0.255 (0.526)	-1.164 (0.799)	-0.908** (0.450)	-1.077 (1.496)
종사자 수	-0.021 (0.014)	0.005 (0.005)	0.019 (0.019)	-0.044 (0.033)	-0.016 (0.012)	-0.020 (0.052)
사업 운영 기간	-0.075 (0.085)	-0.129*** (0.042)	-0.048 (0.142)	-0.518*** (0.182)	-0.610*** (0.151)	-0.392 (0.446)
사업 운영 기간 ²	0.001 (0.002)	0.003** (0.001)	0.001 (0.004)	0.008* (0.005)	0.015*** (0.005)	0.009 (0.013)
대표 연령	0.013 (0.017)	-0.006 (0.007)	-0.028 (0.027)	-0.010 (0.038)	-0.027 (0.022)	-0.068 (0.083)
대표 성별	0.100 (0.376)	-0.258* (0.147)	0.214 (0.627)	0.235 (0.843)	-0.449 (0.464)	0.072 (2.030)
ln(농산물 가격지수)	-3.678 (2.291)	-2.265*** (0.812)	-1.113 (2.608)	-10.697** (4.714)	-7.665*** (2.658)	-3.209 (8.381)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상수	13.372 (10.801)	7.216 (3.957)	1.875 (12.865)	43.999** (22.343)	28.778** (12.720)	8.882 (40.687)
관측치(N×T)	1,320	6,034	833	1,320	6,034	833
K-P LM $\chi^2(p)$	30.769*** (0.0000)	91.905*** (0.0000)	15.816*** (0.0004)	24.548*** (0.0000)	86.281*** (0.0000)	9.385*** (0.0092)
K-P rk Wald F	11.340	34.862	7.354	10.201	39.265	4.394
Hansen J $\chi^2(p)$	1.856 (0.173)	1.958 (0.162)	1.422 (0.233)	3.678 (0.055)	4.535** (0.033)	1.201 (0.273)
Endogeneity $\chi^2(p)$	10.719*** (0.0011)	25.669*** (0.0000)	7.152*** (0.0075)	3.307* (0.0690)	38.484*** (0.0000)	5.159** (0.0231)
추정방법	2SLS	2SLS	2SLS	2SLS	2SLS	2SLS

주 1) 계수 바로 아래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임.

2) K-P LM $\chi^2(p)$, Hansen J $\chi^2(p)$, Endogeneity $\chi^2(p)$ 등의 행에서 괄호 안 숫자는 p-값임.

3) ROA와 ROE 추정에는 2단계 최소자승법(2SLS)을 활용하였음.

4) *는 10% 수준, **는 5% 수준, ***는 1% 수준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5) 유형자산 7% 증가 변수의 현재기에 대한 내생성을 고려하여, 이자 비용의 1·2기 시차를 도구 변수로 활용함.

6) ROA와 ROE 추정식에서는 총자산과 자기자본을 통제변수로 각각 포함하였음.

7) K-P LM $\chi^2(p)$ 는 식별력 검정(underidentification test), K-P rk Wald F는 약한 도구변수 검정(underidentification test), Hansen J $\chi^2(p)$ 는 과식별 검정(underidentification test), Endogeneity $\chi^2(p)$ 는 내생성 검정 결과임.

자료: 저자 작성.

현기(t)의 유형자산 투자는 산업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매출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표 3-20, 3-21>. 농업생산산업의 경우 매출 증가율은 유형자산 증가 3%일 때 가장 높고, 7%로 갈수록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영업이익 증가율은 유형자산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전방산업에서는 매출 증가율이 모든 임계값에서 약 21% 전후로 유지되어, 유형자산 투자 규모 변화가 매출 성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영업이익 증가율은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점차 낮아져, 단기적으로는 매출 성장에는 기여하나 영업이익 증가 효과는 약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농업후방산업의 경우 매출 증가율은 3% 수준에서 가장 높고 임계값이 커질수록 점차 감소하여 투자 강도가 확대될수록 매출 성장 효과는 약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영업이익 증가율은 임계값 변화와 관계없이 약 6%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유형자산 투자가 영업이익에는 일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기(t-1)의 유형자산 투자는 산업유형별로 상이한 효과를 보였다. 농업생산산업은 매출 증가율에서 유형자산 투자에 대한 모든 임계값이 일관되게 유의한 양(+)의 효과를 보였으나, 영업이익 증가율은 음(-)으로 추정되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농업전방산업은 매출 증가율이 음(-)으로 추정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영업이익 증가율은 모든 임계값에서 일관되게 유의한 음(-)의 효과가 나타났다. 농업후방산업은 매출 증가율과 영업이익 증가율 모두 유형자산 증가율이 높을수록 일관되게 유의한 양(+)의 효과를 보여, 전년도 유형자산 투자가 해당 산업의 성장성 제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산총계는 농업생산산업에서만 모든 임계값(3%, 5%, 7%)에서 일관되게 유의한 양(+)의 효과를 보였으며, 매출액은 모든 임계값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종사자 수의 증가는 매출 증가율에 일관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 운영 기간의 경우, 매출 증가율에서는 유형자산 증가율 3%, 5%, 7% 모든 임계값에서 선형향이 음(-), 제곱향이 양(+)으로 추정되어 U자형 관계가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운영 초기에는 성장성이 둔화하다가 일정 시점 이후

반등하는 구조적 패턴이 확인되었다. 반면, 영업을익 증가율에서는 임계값 변화와 관계없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표자 특성의 효과는 임계값 변화(3%, 5%, 7%)와 관계없이 대체로 일관된 패턴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제한적이었다. 농업생산산업에서는 여성 대표가 매출 증가율에서 유의한 양(+)의 효과를 보였으나, 영업을익 증가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농업전방산업에서는 대표자의 성별과 연령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농업후방산업에서는 대표자의 연령이 매출 증가율에서 일관되게 음(-)의 계수로 추정되어, 고령 대표일수록 수익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나 영업을익 증가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검정 결과를 종합하면, 매출 증가율의 경우 농업전방산업은 유형자산 증가율 수준(3%, 5%, 7%) 모두에서 식별력이 확보되고 도구변수의 강건성이 충족되었으며, 내생성도 유의하게 확인되어 2SLS 추정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반면 영업을익 증가율에서는 농업생산산업의 내생성은 확인되었으나 K-P rk Wald F 통계량이 약 10 내외로 낮아 약한 도구 변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농업전방산업은 모든 수준에서 도구 변수의 강건성과 내생성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2SLS 추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업후방산업은 내생성 검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2SLS 대신 GLS로 추정하였다.

〈표 3-20〉 농업법인의 산업유형별 유형자산 증가(3%)가 매출 증가율·영업이익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구분	매출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농업 생산	농업 전방	농업 후방	농업 생산	농업 전방	농업 후방
유형자산 3% 증가(t)	5.968*** (0.442)	23.354*** (5.387)	2.889*** (0.962)	27.903 (28.328)	36.339** (12.902)	6.324*** (2.286)
유형자산 3% 증가(t-1)	2.717*** (0.440)	-0.797 (1.046)	3.466*** (0.969)	-8.066 (6.633)	-5.946* (3.138)	6.804*** (2.317)
ln(자산총계)	-0.102 (0.266)	-0.075 (0.513)	-0.092 (0.638)	-	-	-
ln(매출액)	-	-	-	2.468 (3.320)	0.717 (1.453)	0.020 (2.011)
부채비율	0.0054*** (0.0009)	0.0048* (0.0025)	0.0064*** (0.0018)	0.0055 (0.013)	0.0024 (0.002)	0.0028 (0.006)
법인 유형	1.831*** (0.509)	0.671 (0.770)	-1.468 (1.086)	-0.022 (6.622)	3.819 (2.405)	-4.243 (2.824)
종사자 수	-0.0696*** (0.0129)	-0.0525** (0.0230)	-0.0256 (0.0235)	-0.185 (0.321)	-0.192* (0.113)	0.248* (0.140)
사업 운영 기간	-0.697*** (0.133)	-0.468** (0.213)	-1.237*** (0.292)	-2.896** (1.312)	-1.191** (0.598)	0.770 (0.659)
사업 운영 기간 ²	0.0161*** (0.0042)	0.0074 (0.0069)	0.0305*** (0.0083)	0.090*** (0.034)	0.044** (0.020)	-0.013 (0.020)
대표 연령	-0.0046 (0.021)	-0.0348 (0.039)	-0.129*** (0.042)	0.042 (0.230)	-0.232** (0.112)	-0.227** (0.088)
대표 성별	2.129*** (0.424)	0.983 (0.847)	-0.180 (1.266)	-3.770 (5.902)	1.686 (2.487)	0.687 (2.616)
농산물가격지수 증가율	-1.451 (1.490)	0.615 (2.080)	-5.793** (2.584)	-18.177 (14.520)	-14.881** (6.853)	-18.792*** (5.980)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상수	13.370** (5.052)	2.783 (8.264)	40.636*** (10.110)	62.122 (61.804)	69.762*** (25.598)	75.169*** (24.660)
관측치(N×T)	1,923	6,034	1,046	358	1,730	399
K-P LM $\chi^2(p)$	-	84.970*** (0.000)	-	10.711*** (0.0047)	37.213*** (0.0000)	-
K-P rk Wald F	-	44.545	-	8.477	23.505	-
Hansen J $\chi^2(p)$	-	1.177 (0.278)	-	0.091 (0.764)	0.016 (0.898)	-
Endogeneity $\chi^2(p)$	-	13.455*** (0.0002)	-	1.781 (0.182)	8.129*** (0.004)	-
추정방법	FGLS	2SLS	FGLS	2SLS	2SLS	FGLS

주 1) 계수 바로 아래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임.

2) K-P LM $\chi^2(p)$, Hansen J $\chi^2(p)$, Endogeneity $\chi^2(p)$ 등의 행에서 괄호 안 숫자는 p-값임.

3) *는 10% 수준, **는 5% 수준, ***는 1% 수준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4) 유형자산 3% 증가 변수의 현재기에 대한 내생성을 고려하여, 이자 비용의 1·2기 시차를 도구 변수로 활용함.

5) K-P LM $\chi^2(p)$ 는 식별력 검정(underidentification test), K-P rk Wald F는 약한 도구변수 검정(underidentification test), Hansen J $\chi^2(p)$ 는 과식별 검정(underidentification test), Endogeneity $\chi^2(p)$ 는 내생성 검정 결과임.

6) 영업이익 증가율의 이상치는 해당 변수의 사분위 범위(IQR)를 기준으로, 1사분위(Q1) -0.5×IQR 미만이거나 3사 분위(Q3) +0.5×IQR을 초과하는 관측치를 제거하였음.

자료: 저자 작성.

〈표 3-21〉 농업법인의 산업유형별 유형자산 증가(7%)가 매출 증가율·영업이익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구분	매출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농업 생산	농업 전방	농업 후방	농업 생산	농업 전방	농업 후방
유형자산 7% 증가(t)	5.838*** (0.477)	23.957*** (5.575)	2.140** (1.055)	26.318 (28.467)	37.376*** (12.889)	9.356*** (2.698)
유형자산 7% 증가(t-1)	2.770*** (0.546)	-0.703 (1.058)	4.697*** (1.002)	-5.416 (6.190)	-7.356** (3.421)	4.006 (2.492)
ln(자산총계)	0.130 (0.246)	0.075 (0.513)	0.108 (0.631)			
ln(매출액)	- -	- -	- -	1.398 (3.483)	0.666 (1.445)	0.128 (1.944)
부채비율	0.0062*** (0.0009)	0.0053** (0.0027)	0.0064*** (0.0019)	0.0021 (0.012)	0.0027 (0.002)	0.0002 (0.006)
법인 유형	2.500*** (0.490)	0.678 (0.767)	-1.422 (1.035)	0.935 (6.038)	3.626 (2.394)	-1.858 (2.737)
종사자 수	-0.083*** (0.013)	-0.034 (0.022)	-0.039* (0.023)	-0.071 (0.287)	-0.155 (0.106)	0.231* (0.140)
사업 운영 기간	-0.691*** (0.133)	-0.525*** (0.192)	-1.235*** (0.280)	-2.926** (1.360)	-1.126* (0.594)	0.824 (0.687)
사업 운영 기간 ²	0.015*** (0.004)	0.010 (0.006)	0.032*** (0.008)	0.091** (0.036)	0.042** (0.020)	-0.015 (0.020)
대표 연령	0.013 (0.023)	-0.040 (0.038)	-0.127*** (0.043)	0.021 (0.228)	-0.243** (0.112)	-0.167* (0.098)
대표 성별	1.019** (0.518)	1.130 (0.845)	0.065 (1.307)	-4.264 (5.725)	2.468 (2.524)	2.818 (3.118)
농산물가격지수 증가율	-1.081 (1.394)	1.261 (2.029)	-6.554*** (2.517)	-19.745 (13.886)	-11.779* (6.583)	-16.763** (6.466)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상수	10.149** (4.596)	0.917 (8.262)	41.699*** (9.973)	77.737 (63.269)	60.993** (25.183)	63.181** (25.346)
관측치(N×T)	1,923	6,034	1,046	358	1,730	399
K-P LM $\chi^2(p)$	-	91.272*** (0.000)	-	12.079 (0.0024)***	44.864 (0.0000)***	-
K-P rk Wald F	-	42.676	-	9.573	24.524	-
Hansen J $\chi^2(p)$	-	2.040 (0.153)	-	0.167 (0.683)	0.048 (0.826)	-
Endogeneity $\chi^2(p)$	-	12.605*** (0.0004)	-	1.312 (0.252)	7.634 (0.0057)***	-
추정방법	FGLS	2SLS	FGLS	2SLS	2SLS	FGLS

주 1) 계수 바로 아래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임.

2) K-P LM $\chi^2(p)$, Hansen J $\chi^2(p)$, Endogeneity $\chi^2(p)$ 등의 행에서 괄호 안 숫자는 p-값임.

3) *는 10% 수준, **는 5% 수준, ***는 1% 수준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4) 유형자산 7% 증가 변수의 현재기에 대한 내생성을 고려하여, 이자 비용의 1·2기 시차를 도구 변수로 활용함.

5) K-P LM $\chi^2(p)$ 는 식별력 검정(underidentification test), K-P rk Wald F는 약한 도구변수 검정(underidentification test), Hansen J $\chi^2(p)$ 는 과식별 검정(underidentification test), Endogeneity $\chi^2(p)$ 는 내생성 검정 결과임.

6) 영업이익의 증가율의 이상치는 해당 변수의 사분위 범위(IQR)를 기준으로, 1사분위(Q1) -0.5×IQR 미만이거나 3사 분위(Q3) +0.5×IQR을 초과하는 관측치를 제거하였음.

자료: 저자 작성.

라. 모형 II

유형자산 투자 더미변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유형자산의 절대적 규모를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22>. 추정 결과를 탄력성 형태로 분석하기 위하여 변수 중 일부는 자연로그를 취하였으며 농업법인의 유형자산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2단계 최소자승법(2SLS)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유형자산 계수는 농업생산산업, 농업전방산업, 농업후방산업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여, 유형자산이 증가할수록 법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규모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유형자산이 1% 증가할 때 매출액은 농업생산산업 0.51%, 농업전방산업 0.70%, 농업후방산업 0.4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영업이익은 각각 0.69%, 0.90%, 0.7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무안정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은 모든 종속변수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재무안정성이 높을수록 농업법인의 매출액이 높고 영업이익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유형(영농조합법인 또는 회사법인)은 모든 산업유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법인 형태 구분이 경영성과 측면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만들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종사자 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양(+)의 계수로 추정되어 인력 규모가 클수록 매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나,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음(-)의 계수가 나타나 고용 규모의 확대가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 운영 기간과 그 제공항은 농업전방산업에서만 유의미하게 추정되었으며, 운영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다가 일정 시점 이후 다시 증가하는 U자형 관계를 보였다.

대표자의 개인 특성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대표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대표가 남성일수록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거시경제 변수 중 농산물가격지수와 농업전방 GDP는 농업후방산업을

제외하면 매출액에 대한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농업후방산업에서는 농산물가격지수가 상승할 때 매출액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농산물가격 상승이 비료·농약 등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법인이 원재료 구매를 줄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거시 변수들은 전반적으로 영업이익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업전방산업의 경우, 농산물이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므로 농산물가격 상승 시 생산비 증가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생산산업에서도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해당 산업 내 다수의 법인이 단순 생산에 그치지 않고 가공 및 체험 산업을 병행하는 6차 산업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2〉 농업법인의 산업유형별 유형자산이 매출액·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구분	ln(매출액)			ln(영업이익)		
	농업 생산	농업 전방	농업 후방	농업 생산	농업 전방	농업 후방
ln(유형자산)	0.514*** (0.059)	0.698*** (0.053)	0.447*** (0.085)	0.690*** (0.080)	0.902*** (0.055)	0.746*** (0.085)
부채비율	-0.0001 (0.0001)	-0.001*** (0.0003)	-0.001*** (0.0002)	-0.0005* (0.0003)	-0.001*** (0.0005)	-0.002*** (0.0002)
법인 유형	-0.010 (0.111)	0.083 (0.088)	-0.132 (0.104)	-0.055 (0.131)	0.085 (0.091)	-0.073 (0.134)
종사자 수	0.017*** (0.005)	0.006** (0.003)	0.030*** (0.010)	0.004 (0.005)	-0.006** (0.003)	0.000 (0.007)
사업 운영 기간	0.007 (0.026)	-0.066*** (0.019)	0.009 (0.024)	-0.002 (0.032)	-0.076*** (0.018)	-0.050 (0.034)
사업 운영 기간의 제곱항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대표 연령	-0.010** (0.004)	-0.012*** (0.004)	-0.0004 (0.005)	-0.009* (0.005)	-0.011*** (0.004)	0.001 (0.007)
대표 성별	-0.437*** (0.098)	-0.459*** (0.077)	-0.219 (0.148)	-0.313*** (0.119)	-0.368*** (0.076)	-0.169 (0.156)
ln(농산물가격지수)	-0.365 (0.980)	0.395 (0.565)	-1.459* (0.836)	-2.622* (1.433)	-2.227*** (0.809)	-2.844 (1.759)
ln(농업전방 GDP)	0.078 (0.734)	-0.485 (0.421)	1.026* (0.614)	1.679 (1.133)	1.597** (0.655)	1.392 (1.476)
연도 더미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포함
상수항	5.943*** (2.104)	5.372*** (1.261)	6.319*** (1.636)	4.459* (2.632)	2.889** (1.426)	6.572*** (2.257)
관측치(N×T)	1,323	6,053	834	1,221	5,751	786
K-P LM $\chi^2(p)$	74.460*** (0.0001)	211.530*** (0.0001)	35.670*** (0.0001)	71.930*** (0.0001)	204.650*** (0.0001)	36.070*** (0.0001)
K-P rk Wald F	78.590	126.310	38.140	73.540	120.840	39.400
Hansen J $\chi^2(p)$	0.680 (0.409)	0.620 (0.431)	0.680 (0.410)	0.440 (0.506)	0.030 (0.867)	2.510 (0.113)
Endogeneity $\chi^2(p)$	32.710*** (0.0001)	166.230*** (0.0001)	5.320** (0.021)	33.840*** (0.0001)	217.940*** (0.0001)	14.190*** (0.0001)
추정방법	2SLS	2SLS	2SLS	2SLS	2SLS	2SLS

주 1) 계수 바로 아래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임.

2) K-P LM $\chi^2(p)$, Hansen J $\chi^2(p)$, Endogeneity $\chi^2(p)$ 등의 행에서 괄호 안 숫자는 p-값임.

3) *는 10% 수준, **는 5% 수준, ***는 1% 수준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4) 유형자산 5% 증가 변수의 현재기에 대한 내생성을 고려하여, 이자 비용의 1-2기 시차를 도구 변수로 활용함.

5) K-P LM $\chi^2(p)$ 는 식별력 검정(underidentification test), K-P rk Wald F는 약한 도구변수 검정(underidentification test), Hansen J $\chi^2(p)$ 는 과식별 검정(underidentification test), Endogeneity $\chi^2(p)$ 는 내생성 검정 결과임.

자료: 저자 작성.

3. 요약

농업법인은 지난 10년간 외형적 성장을 이루었으나, 성장세는 점차 둔화하는 추세를 보였다. 즉, 농업법인의 자산, 자본, 매출액 등 규모 지표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매출 증가율·자산증가율·영업이익증가율 등 성장성 지표는 꾸준히 하락하여 성장의 속도가 완만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농업전방산업에 속한 농업회사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농업법인의 순손익과 영업이익은 정체하거나 감소하였으며, ROA·ROE·영업이익률·순이익률 등 주요 수익성 지표도 전반적으로 하락하였다.

재무안정성의 경우 여전히 타인 자본 활용도가 높아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표 자체는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부채비율과 이자 부담은 여전히 일반 식품제조업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지난 10년간 분석대상 농업법인의 재무 건전성 지표는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투자 활동은 성장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투자 횟수가 많을수록 성장단계 상승 가능성이 커지며,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투자 실행이 농업법인의 수익성과 성장성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업법인 대표의 고령화와 업력 증가로 인해 투자 활력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대표자의 연령이 낮고 업력이 짧을수록 투자 활동이 활발하지만, 지난 10년간 농업법인의 대표 연령 상승과 업력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투자 활동 역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투자는 농업법인의 성장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양면적 특성을 가진다. 회귀분석 결과, 전년도에 수행된 유형자산 투자는 다음 해의 수익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투자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외부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순이익을 감소시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제4장

농업법인 대상 면접조사

농업법인 대상 면접조사

1. 농업법인 운영 현황 조사 개요

재무 자료 분석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경영 현황과 투자 관련 동향,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8월까지이며, 경기,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지역에 소재한 22개 업체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조사하였다. 조사는 농업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면조사를 위해 방문했을 때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추가 보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로 보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 업체는 농식품법인연합회 홈페이지(<http://www.aceo.or.kr>)를 참조하였거나 KREI 현지통신원 중 법인 운영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기타 전문가 추천으로 섭외된 농업법인이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2> 참고).

2. 조사 결과

2.1. 조사 결과 요약

2.1.1. 면접 대상의 개인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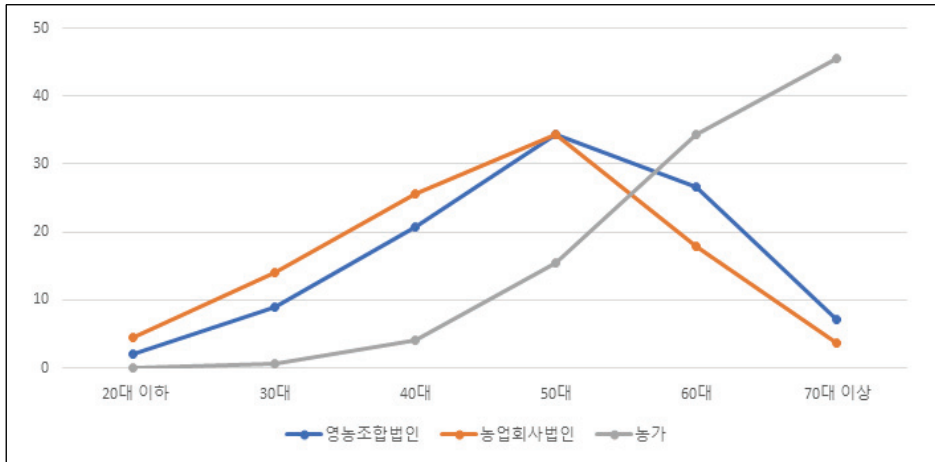
이 연구의 면접 대상은 농업법인 대표나 재무 상황을 잘 아는 임원으로서 주로 40~50대에 해당하였다. 이들은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연령대에 속하는데, 이는 인터뷰 대상자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법인 종사자 전체의 특성과도 일치한다. 농업법인 종사자는 개인 농가에 비해 젊은 연령의 인구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연령 특성은 투자 의사나 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림 4-1>은 농업법인 종사자와 개인 농가의 경영주의 연령 분포를 나타내고 있는데, 농가 경영주의 연령별 비율은 완만한 S자 커브를 그리고 있는 반면, 농업법인 종사자의 연령 그래프는 역 U자 형태로 나타났다. 즉, 농업법인 대표들이 일반 농가의 경영주보다 젊기 때문에 확장적·공격적 경영을 할 확률이 높고 위험 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인터뷰 대상자의 과거 이력과 종사 동기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부모의 영농을 물려받으며 법인을 설립하거나 승계한 유형(승계형)이며, 두 번째는 농업에 개인적인 배경이 없었으나 농식품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이다(독립창업형). 이 연구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업체 대표들은 대체로 독립창업형보다 승계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림 4-1〉 농업법인과 개인 농가의 연령 분포 비교

단위: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22), 농업법인조사; 통계청(2022), 농림어업조사.

법인 대표의 종사 유형에 따라서 해당 업체의 사업 분야와 사업 방식 등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투자 목적, 내용, 규모, 자금 조달방식 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영농종사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대체로 부모가 물려준 영농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활용하여 농작물 생산에 가공·유통·체험을 추가하여 부가 가치를 확대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반면 영농종사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소규모의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창업을 하며 수직농장이나 식품 가공 등 생산을 기반으로 하지 않거나 기술을 기반으로 영농 또는 연관 산업에 종사하는 경향이 강하다.

조사 대상 업체의 평균 업력은 14.1년이며 운영 기간이 5년 미만인 신생 업체도 5개 포함된다. 그러나 업력은 법인 설립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질 뿐 대표의 영농경력과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면접 대상 업체의 투자 목적이나 필요성, 자금 조달 상황 등은 일반적인 업력과의 관계와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설립한 업체를 자녀가 물려받은 경우에는 업력에 비해 현 대표의 영농경력이 짧은 반면 개인 자격으로 농작물을 생산하다가 가공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법인의 업력보다 대표의 영농경력이 길었다.

일반적으로 업력은 투자 단계, 투자 목적과 자금 조달방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창업 단계에서는 신규 시설설치, 창업기를 지난 시점에서는 기존 시설물의 보수와 추가 시설물 설치가 농업법인의 투자 목적이 된다. 신규 시설설치는 법인 설립과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조사 대상 업체들은 창업 단계를 한참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시설의 보수나 추가 시설물 설치의 필요성이 높고 향후 투자도 그러한 방향에서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뷰 대상 업체들은 대체로 대규모 재투자에는 소극적이고 기존의 설비를 보수유지하는 수준의 투자만 이루어지고 있다. 인터뷰 대상 업체 중 소규모 업체로서 신규 투자를 진행하기에 자금 조달 여력이 없거나 대표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경영하려는 업체의 경우 더욱 그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재무 자료 분석 결과, 업력이 높을수록 투자 횟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도 일맥상통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자금원 측면에서 살펴보면, 신규 시설설치가 주로 보조금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후속 투자는 자체 영업잉여금 또는 용자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업체의 자금 조달 여력에 따라서 후속 투자의 시기와 규모가 결정된다.

2.1.2. 법인 설립 동기

인터뷰 대상 업체는 영농조합법인 9개, 농업회사법인 13개, 일반회사법인 1개로 구분되는데 일반회사법인은 원래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되었으나 운영 중 농업법인 자격을 상실하여 일반회사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농업법인 대표는 농업법인만 운영하기보다 개인 경영체를 병행하거나 복수의 농업법인을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서 각 경영체의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경영효율화를 하려는 경향이 높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대표가 두 개의 농업법인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조사 대상 중에서 영농조합법인을 먼저 설립하였다가 농업회사법인을 추가로 설립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첫째, 지배구조의 명확화로 투자를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 둘째,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표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인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면접조사에서 대표가 개인 자격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사를 짓다가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개인 경영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법인에 출하여 법인을 통해 가공·유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조사 대상자들은 개인 자격으로 영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을 또 설립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확보, 안정적 판로 확보 및 유지, 투자 유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응답하였다. 법인을 설립하면 세무·회계 업무 부담이 늘고 법인세 부담도 발생한다는 점이 단점이지만 시장에서 개인보다는 법인이 보다 신뢰성 있는 거래처로 인식되기 때문에 법인 설립을 선택하였다. 법인 명의로 출하되는 농산물은 바이어 입장에서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고 1차적으로 품질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가격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개인경영체는 지분 투자를 할 수 없어 외부자본이 유치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도 법인 설립의 동기이다.

면접 대상 중에서는 규모화와 효율화 외에 정부 지원(보조금)이 법인 설립 동기라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는데, 보조사업 신청에 있어 개인보다는 법인이 유리하다는 점이 법인 결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조사 대상자들은 중앙 또는 지자체의 자금지원 요건에 농업법인이어야 한다는 경우가 있어 정부자금 수혜를 위하여 법인을 결성하였다는 응답을 하였다. 실제로 보조사업대상에서 개인경영체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지만, 보조사업의 사업 내용이나 선발 요건 등이 개인보다는 법인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 정부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있다.

2.1.3. 법인 사업 영역

인터뷰 대상 업체는 농산물 생산을 병행하는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로 구분되나 대체로 1차 산업에 2차·3차 산업을 병합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 인터뷰 대상 업체의 종사 분야는 주로 농작물 재배·가공·유통·체험이었으며 순수하게 재배만 하는 업체보다는 가공이나 유통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된 법인이 상당수

였다. 따라서 생산을 병행하는 업체라도 매출액에서 원물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고 절반 이상의 매출이 가공이나 유통, 체험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법인이 직접 생산하지 않는 경우는 조합원이 생산을 담당하고 법인이 가공 또는 유통을 담당하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계약재배를 통해 원물을 공급받고 이를 가공·유통하고 있었다. 반대로 법인이 직접 생산과 가공, 유통, 체험 등을 모두 수행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이 경우 조합원이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경우는 스마트팜 업체 외에는 드물었다.

2.1.4. 투자 대상

농업법인의 운영방식은 법인의 투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개인경영체가 농지를 소유하고 이를 법인에 임대하거나 법인 대표가 개인 소유 농지에서 생산한 농작물을 본인이 경영하고 있는 법인에 출하하기 때문에 법인이 자체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유인은 적어진다.

농업법인의 투자는 주로 건축물, 기계와 기구 등에 집중되고, 농지 투자는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법인의 유형자산 투자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기계(드론, 트랙터, GPS 등), 가공 기계(선별기, 세척기 등), 운반을 위한 기계(지게차, 탑차 등)를 구비하는 것과 작업장, 가공공장, 식당, 체험시설 등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농업생산의 주요 요소인 농지는 법인 명의로 직접 소유하기보다 조합원 또는 대표 개인 소유의 농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이는 농업법인이 직접 생산을 담당하지 않고 조합원이 생산한 물량을 수매하거나 외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일반 수매를 통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인 대표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개인경영체를 운영하면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법인 명의로 농지를 소유할 필요성을 낮게 느끼는 것으로 판단된다.

2.1.5. 투자 자금원

농업법인의 주된 자금원은 정부 보조와 융자이며, 투자 활용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 대상인 농업법인은 주로 자부담과 정부 정책자금(융자, 보조)을 병합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조달하였다. 설립 초기에 기반 시설을 구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금원은 정부 보조금이며 대체로 자기자본만 가지고 창업을 하는 사례는 드물었다. 보조금 외에 주된 자금원은 융자와 자기자본인데, 초기 시설이 보조금으로 획득된 경우 담보 제공에 한계가 있어 융자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모태펀드에 대해서는 농업법인의 인지도가 낮고, 알고 있더라도 경영방식이나 규모가 투자자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투자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표의 성향이나 적극성에 따라 융자 외에 투자자금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지만 조사 대상 업체 대부분은 투자방식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인지하고 있더라도 농업법인이 영세하고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는 경영구조가 아니므로 투자를 받기 어렵다.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규모를 가진 업체의 경우, 농업 정책자금보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대표의 개인적 배경과도 관련성이 높았는데 농업을 개인적 배경으로 갖지 않은 대표는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을 활용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 농업계 자금보다는 중소기업 대상 정책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이 더 높았다는 점이 중소기업자금 활용 요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식품가공업체나 수직농장 업체의 경우, 중소기업 자금 담당자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 및 최신 설비에 대한 인지도와 지식수준이 높기 때문에 대출 승인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장점으로 인해 중소기업 자금을 선호하였다. 반대로 영농 배경을 가진 대표는 농업 보조금이나 정책융자를 주된 자금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실제로 활용도도 높았다.

농업계 자금을 주로 활용하는 농업법인의 정부 지원 의존도는 높은 수준이다. 법인 대표들은 대체로 시설 확장, 신규 기계 도입 등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것은 보조금이 있는 경우에만 실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고, 재투자를 위한

별도의 자금 적립이 이루어지는 업체는 드물었다. 특히 1인 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업체일수록 그러한 경향을 보였다. 농업법인이 법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충당금이 있으나 재투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고 사용 가능 요건이 명확하므로 시설투자 자금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자금 지원 여부가 농업법인의 투자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 번에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설비나 시설설치를 자력만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정부의 자금지원사업이 없으면 투자 자체를 고려하지 않거나 자력으로 조달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투자 범위를 제한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농업법인에서 시설설치를 위하여 활용했던 사업은 대체로 자기부담비율이 대체로 낮은 편이었는데 해당 사업들을 비롯한 시설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이 20% 내외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보조사업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선택이다<표 4-1>.¹⁴⁾

14) 유사 사업으로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과 향토산업육성 지원사업이 있다. 해당 사업을 통해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시설 구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재원 비율은 도비 50%, 시군비 30%, 자부담은 20%이다(원주시, 2024, 농촌자원복합산업화 및 향토산업육성 지원사업, 2025 신규추진 사업대상자(지구) 선정 공모).

〈표 4-1〉 면접 업체가 활용한 보조사업 예시

사업명	재원 부담			지원 규모
	국비	지방비	자부담	
지역소득공동체육성사업	50%	30%	20%	개소당 최대 20억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사업	30%	30%	40%	(신규시설) 최소 25억~80억 원 내외 (푸드플랜) APC 5억~40억 원 내외 (보완시설) 최소 5억~80억 원 내외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50%	40%	10%	사업시행주체별 10억 원 보조 (1년 차 1.5억 원, 2년 차 8.5억 원)
신활력플러스사업	70%	30%	0%	시군당 4년간 70억 원 보조
전략작물산업화 (2025년 시설·장비 사업)	50%	40%	10%	(논 타작물 단지화) 1억~3억 원 이내(총 2회까지 지원) (들녘공동경영체) 5억~8억 원 이내(총 2회까지 지원)
전략작물산업화 (2025년 사업다각화 사업)	40%	40%	20%	경영체당 10억~50억 원 내외 (총 2회까지 지원)
친환경 농업기반구축사업	30%	50%	20%	최대 20억 원 (사업 기간은 3년 이내에서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자료: 경상북도(2016), 2016년 지역공동체소득육성사업(지특) 시행지침; 농림축산식품부(2024), 2024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시행지침; 농림축산식품부(2025a), 2025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사업 시행지침; 농림축산식품부(2025b), 2025년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시행지침; 농림축산식품부(2025c), 2025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시행지침; 농림축산식품부(2025d), 2025년 전략작물산업화 사업시행지침서.

2.1.6. 투자에 대한 평가

조사 대상 업체에서는 투자로 인하여 매출 증가나 생산량 확대가 일어났으며 결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면담자들은 투자는 업체의 생산량을 늘리고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의 확장이 이루어졌으며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구체적으로 창고, 작업장 등 건축물을 구축함으로써 작업 물량을 확대하였고, 농기계 구입으로 더 큰 면적의 농지에 농작업을 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2.1.7. 투자 및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적 요인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 간 공동경영이 농업회사법인과 다른 점인데, 이러한 특성이 적극적인 투자를 꺼리게 만들거나 업체 성장의 한계를 설정하기도 한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의결권이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의사결정 절차가 복잡하고 신속한 결정이 어렵다. 법인 구성원들이 혈연, 학연, 지연으로 연결되어 온정적인 측면에서의 판단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이 대표의 판단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의사결정 속도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한다. 법인 내에서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대표직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의 연령이 높은 경우, 사업 확장에 소극적이어서 사업 확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 반대로 대표의 연령이 가장 낮기 때문에 추진력이나 실행력에서 우위에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주요 의사결정을 대표가 주도적으로 처리하는 사례도 있었다.

최근 농업회사법인의 수가 증가하는 것과 동시에 평균 경영규모가 영세해지고 있는데 이는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 간의 의사결정구조의 차이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협업 영농보다 대표 개인의 의사가 보다 반영된 형태의 회사 운영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단독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자율적으로 경영하려는 목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는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동기로 인해 단독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업체는 대체로 영세한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워 경영성과 제고에 한계가 있다.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의사결정 구조뿐만 아니라 인력의 확보 및 고령화 등 인력 관련 이슈도 포함된다. 협업 방식의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고용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고 조합원 규모가 실질적인 경영규모의 한계가 되어 버리므로 영세성을 탈피하기 어렵다. 조합원들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로의 매출 신장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였을 때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 마케팅 및 홍보를 전담할 인력이 부족하여 투자 확대를 꺼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법인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

다. 농업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법인의 인력 확보 어려움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경영성과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 다른 인력 측면의 요인은 대표의 경험이나 역량이다.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개인의 판단 착오로 인하여 투자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한 업체의 경우, 저장창고보다 작업장을 먼저 건축하였는데 작업 후 물량을 보관할 창고가 부족하여 작업장 건축의 효과가 반감되었던 바가 있다. 반면 역량이 뛰어난 대표는 시장 흐름을 고려하여 투자의 시점이나 규모, 대상을 선택하여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한다.

2.1.8. 정부의 경영성과 영향

정부는 보조금과 융자 등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농업법인의 경영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기도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추어 투자를 실행했으나 이후의 정책 방향 변경으로 투자 성과가 나타나지 못한 사례가 있다. 정부는 2017년 살충제 파동 이후 계란 유통을 광역 선별포장센터를 통해서만 하기로 하고 광역 계란선별포장센터(Eggs Processing Center: EPC)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민간에 지원하였다. 그러나 식약처가 광역 EPC 외에 개별 농가에도 계란 선별포장업을 허가함으로써 광역 EPC 건립의 효과가 희석되는 결과가 나타났다.¹⁵⁾

또 다른 예는 신기술에 대한 정부의 보수적 태도로 인하여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발생한 것이다. 농업법인에서 신물질을 개발하였으나 기존의 제품 분류 체계와 맞지 않아 개발된 상품의 특성을 반영한 형태의 제품이 아닌 기존 제품 분류에 맞추어서만 평가가 이루어져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정부 보조금과 관련하여 비효율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예를 들면, 보조사업으로 농기계를 구입할 때 대상 기계를 지자체가 경쟁입찰로 사전

15)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기사를 참조함. 뉴스토마토(2021. 11. 10.), “(단독)달걀 불안 키운 농식품 부·식약처 ‘엇박자’…계란유통센터 ‘좌초’”.

에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업체는 실제 필요한 기능이나 상황에 적합한 기계가 아닌 다른 형태의 기계를 보조받아 구입 후 방치했던 사례도 있었고, 정부 보조금을 동반하여 기계를 구매할 경우에 납품되는 물건의 급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보조금이 수반되므로 업체는 실제 필요한 규모보다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여 과잉투자가 일어나기도 한다.

2.1.9. 투자 결정요인

농업법인의 투자 여부는 판로 확보 및 시장개척 등 수익성에 대한 전망이 중요 결정요인이다. 면담자들은 앞으로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으로서 판로 확보와 시장개척 가능성을 꼽고 있다. 농업법인 대표들은 판로 확보를 가장 중요한 투자 요건으로 꼽았으며,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은 안정적인 판로를 이미 확보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국내에서의 매출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을 한 대표들은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 또한 수익에 대한 판단이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면접조사 대상 농업법인의 대표와 임원은 대체로 시장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사업 확장 의사를 갖고 있었다.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첫째, 농산물의 수요는 크게 변동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의 어려움만 없다면 안정적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농산물가격의 지나친 상승보다는 일정 범위 내에서 안정적 유지를 희망한다. 둘째,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생산 분야를 보완하기 위하여 2차3차 산업으로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투자를 지속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높은 성장성을 기대하지 않고 있으며 해외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인식도 있었다.

이처럼 시장에 대한 긍정적 전망하에서도 사업 확장 의사에 있어서 법인의 운

영방식에 따라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공동 경영방식으로 생산에 치중한 법인의 경우, 기존 인력이 가동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확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협동조합으로서 원물의 생산과 포장, 납품 등 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업체들은 시설 투자를 하더라도 늘어난 생산 물량을 소화할 수 없으므로 인력이 투자의 제약요인이 된다.

반면 가공 중심의 농업회사법인 중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없는 업체는 인력으로 인해 투자 제약의 정도가 높지 않고, 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

2.1.10. 정부 정책 수요

농업법인의 정부 지원 요구사항은 가격 안정부터 인력 확보까지 다양하다. 농산물가격의 높은 변동성을 애로사항으로 언급하며 안정적인 가격 유지를 위하여 수급 관리 정책을 보다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인력 확보 측면에서 양질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인력 대체 방안이나 인력 수급 정책의 효과적 운영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홍보 및 마케팅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성 부족으로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거나 외부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회계 및 재무관리, 자금 조달, 인력 관리 등 중간 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할 고급 인력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는 처우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한계 때문이기도 하므로 지역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농업법인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애로사항도 있었다. 이에 사업 실무 노하우를 획득할 수 있는 컨설팅과 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기를 희망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 발맞추어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정부가 정책 방향을 바꿈으로써 투자 효과가 떨어지는 사례를 통해서 정책 추진을 신중하게 할 것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건축 관련 규제, 농지 관련 규제, 노동시간 관련 규제 등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보조금 축소로 인한 자금 조달 애로, 도매시장 관련 정책의 개선 필요성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자금 관련해서는 추가 자금 조달 여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조사 대상 업체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업체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자금지원은 이미 다 소진하여 후속 투자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기존 업체들은 동일 보조사업에 중복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시설 보조를 기대하기 어렵다. 융자 면에서도 담보 소진으로 인하여 자금 조달이 충분치 못하다. 보조금을 수령하여 구축한 시설은 보조금 규모에 비례한 만큼은 담보 제공이 어려우므로 대출 한도를 제약하는 것이 원인 중 하나인데 국비 및 지방비 보조를 받아 취득한 유형자산은 최대 10년까지 담보로 활용될 수 없으므로 농업법인의 자산 중 담보 제공 가능한 자산은 매우 제한적이다. 담보가 아닌 신용보증 한도도 거의 도달하였거나 추가 담보 요구를 받아 활용할 여지가 많지 않다.¹⁶⁾

〈참고〉 보조금 관련 법 규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3항) 관련 자산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되거나 양도, 교환, 대여되어서는 안되고 해당 물건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제46조) 보조사업자가 중요재산 현황을 중요재산 처분 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공시기간은 자산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부동산과 그 중물의 경우 10년이며 기계 장비 등은 5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검색일: 2025. 9. 10.

16)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의 담보는 보조금의 잔여사후관리기간만큼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치평가분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 있다(농림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

면접에 응했던 농업법인은 시설 개보수나 시설 확장을 위한 자금보다는 인건비, 재료비 등 운영자금에 대한 수요를 더 많이 언급하기도 하였다. 원료 구매, 인건비, 자재비 등 일시적인 경기 변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영안정자금의 필요성이 높게 인식되고 있다.

이에 면접 업체들은 보조금으로 획득한 자산의 내구연한을 축소하거나 부분 담보 인정을 허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부모가 설립한 농업법인을 자녀가 승계하여 운영하는 경우, 과거 보조금을 받았더라도 추가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는 등 승계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승계가 유리하도록 자금지원체계를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이 성과를 내고 있는 업체에 집중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업체의 경영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업체에 보다 많은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2.2. 조사 법인 유형화

농업법인은 사업 규모, 사업 목적, 지향점 등에 있어서 이질적 집단이다. 농업법인의 면접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농업법인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유형 1은 개인 사업자 수준의 영세성에 머무르고 있으며 그 이상의 성장을 희망하지 않는 업체이다. 해당 유형의 업체들은 조합원의 협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이나 1인의 농업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이다. 유형 1의 업체들은 주로 농업생산에 종사하거나 개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유통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서 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으며 외부 자금 상환 가능성과 투자 후 운용 능력의 제약을 크게 받는다. 특히 1인 법인이나 일부 영농조합법인은 가계와 농업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농가’의 특성을 단순히 확장한 형태이다. 영농조합법인 결성 시 필요한 조합원 5인이

친지나 지인으로서 명목상으로만 받기인으로 명시될 뿐 실질적인 운영은 대표 1인 또는 2인(부부)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유형 1의 업체들은 재투자 자금을 적립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자력으로 조달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보조금 유무에 따라 향후 투자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유형 2는 현재 영세한 상태이고 성장에 대한 열망이나 의지가 있으나 자본 제약·인력제약 등으로 인하여 성장을 이루는 데 한계를 경험하는 업체이다. 이들은 농업생산을 바탕으로 가공·유통·체험을 통하여 수입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구한다. 주로 보조와 자체 수익을 이용하여 재투자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자금 상환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융자는 상대적으로 선호하지 않는다.

유형 2 업체 사이에서 농식품모태펀드의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투자자가 요구하는 조건(예: 사업영역, 사업 정보공개 등)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대표가 사업설명회(IR)나 제품의 사전 검증(POC) 같은 투자 유치 활동에 대한 숙련도 및 인지도가 낮아 투자방식을 활용하기 어렵다.

유형 3은 현재 성장하면서 앞으로도 성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자를 실행하는 업체이다. 이들은 정부 보조보다는 스스로의 자금 조달 능력을 더욱 중시하고 시장 변화에 민감하다. 유형 3 업체들은 농업생산보다는 식품 가공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수직농장을 운영하는 등 전통적인 생산에서 벗어난 업체가 주류를 이루며, 영농조합법인보다는 농업회사법인이 유형3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유형 3에 해당하는 업체의 대표들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부모로부터 업체를 승계받지 않은 순수 독립창업형인 경우나 승계를 받았더라도 교육 수준이 높아 새로운 부가가치 발굴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농업계 자금보다는 일반 중소기업 대상 자금에 대한 인지도나 활용도가 높고, 다양한 재원을 활용하고 있다. 업체 대표가 사업설명회(IR)나 제품의 사전 검증(POC) 등 투자 과정에 필수적인 정보공개에 적극적이며 그러한 역량이 상대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유형 3의 업체들은 중소기업에서 중견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전체 농업법인 중 유형 3에 해당하는 업체는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판

단된다.

농업법인의 투자성향과 경영성과는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 이질적 특성을 이해하고 세분화하여야 정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유형 1은 성장에 대한 욕구가 약한 것이 원인이나 유형2나 유형3의 경우에는 재투자 자금 조달의 어려움, 인력 확보 문제, 시장개척의 어려움이 성장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유형 1에 대해서는 기업가적 정신을 고양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며, 유형2나 유형3의 경우에는 자금 또는 인력 제약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 정책과제라고 판단된다<그림 4-2>.

〈그림 4-2〉 농업법인 유형 구분



자료: 저자 작성.

제5장

농업법인의 자본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농업법인의 자본투자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1. 농업법인의 성장과 요인

1.1. 농업법인의 성장단계

기업 성장을 도식화할 때 기업성장곡선은 J자나 S자로 설명되는데,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농업법인들은 성장 곡선상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¹⁷⁾

일반적으로 기업의 성장단계는 창업 이후 5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그림 5-1>.

창업 단계(1단계)에서는 업체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영업을 시작하며, 매출은 낮지만 천천히 증가하는 시기이다. 1단계의 업체는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데 주력하며 초기 창업비용을 빠른 시일 내 회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수입은 낮고 비용은 많아 손실이 발생한다. 이에 이윤이나 현금 흐름 모두 음(-)의 상태에 있다.

성장단계(2단계)에서는 매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며 이때 손익분기점을 지나 이익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익은 매출보다 늦게 실현되며 항상 매출보

17) 고경성·남정민(2023),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성공요인 연구: ERIS 모델을 중심으로”, 벤처창업 연구, 제18권 제6호.

다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성장단계에서는 현금 흐름이 양(+)의 상태로 전환된다.

성장 압박 단계(3단계)에서는 매출이 계속 성장하지만,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경쟁상대가 증가하면서 성장세가 둔화한다. 3단계에서는 매출이 정점에 이르지만, 이윤은 감소하기 시작하며 현금 수입이 이윤을 초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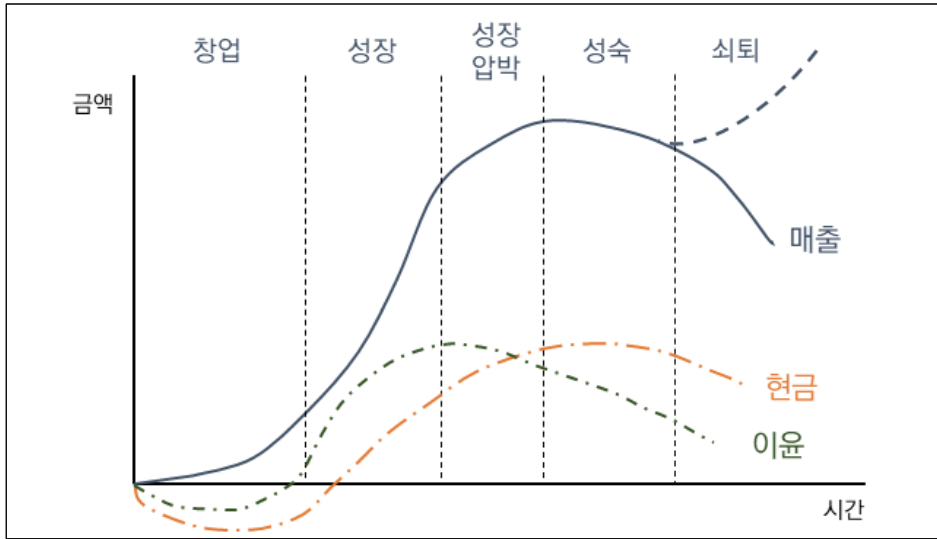
성숙단계(4단계)에서는 정점에 이르렀던 매출이 조금씩 하락하고 이윤은 감소하지만 현금 흐름은 양호하여 꾸준히 양(+)의 상태를 유지한다. 성숙단계에 이른 기업은 대규모 투자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현금 수입이 이윤보다 많은 상태에 있다.

5단계는 성숙단계에서 재투자를 통한 혁신이 있었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만약 성숙단계에서 농업법인이 재투자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면 해당 법인은 다시 한번 그래프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차세대 경영자가 기존 법인을 승계하고 적절한 경영전략을 세운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 반대로 법인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재투자가 없었다면 법인은 쇠퇴 단계에 접어든다. 5단계(쇠퇴 단계)에서 업체의 매출과 이윤은 현저히 감소한다. 현금 흐름이 여전히 양(+)의 상태에 있지만, 수입의 규모는 감소하며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는 자연스럽게 폐업으로 이어진다.

농업법인은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 수익성 지표는 업력에 따라 U자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법인이 여러 단계에 분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는 3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법인조사를 이용하여 전체 농업법인의 평균 영업이익률, 매출액 성장률 등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와 농업법인 재무 자료 기초 분석에서 나타난 수익성 추이 결과는 평균적으로 농업법인의 수익성 확대가 둔화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는 3단계의 특징에 해당한다.

다시 말하면, 농업법인 중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업체가 있지만 대다수의 농업법인들은 영세한 규모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성장 동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5-1〉 개별 기업의 성장 곡선



주: 매출선 중 점선은 기업이 성숙단계에서 재투자를 통해 혁신을 이룰 때 나타날 수 있는 성장 곡선임.
 자료: CFI 홈페이지(https://corporatefinanceinstitute.com/resources/valuation/business-life-cycle/?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 2025. 9. 29. 참고하여 저자 작성.

1.2. 농업법인의 성장 요인

농업법인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고 경영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농업법인의 투자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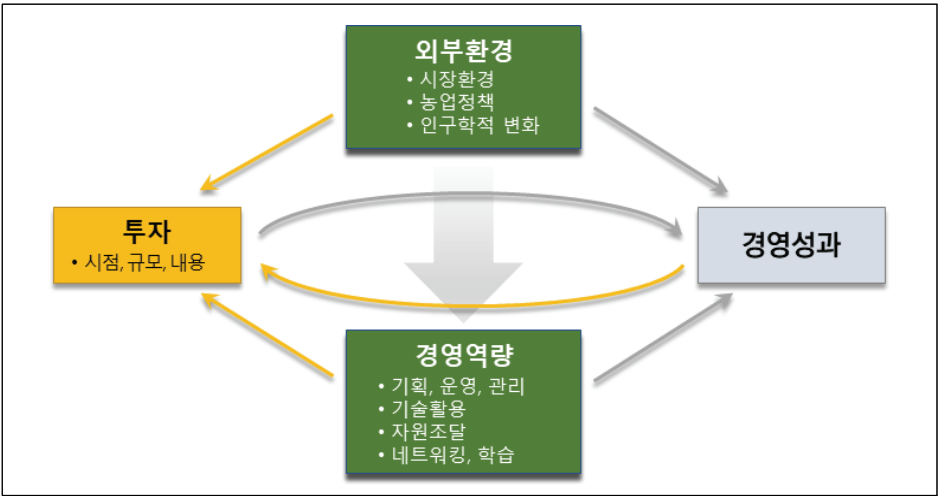
농업법인이 투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가 경영성과로 나타나기까지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명기 외(2024: 235-255)는 농업경영체의 경영구조를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경영성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여주었다. 이명기 외(2025: 237)에서 제시한 구조도를 바탕으로 인터뷰 결과를 종합한 결과는 다음 <그림 5-2>와 같이 요약된다.

농업법인의 경영성과는 투자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부 요인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결과로 나타나기도 한다.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적 요인은 운영주체의 경영 역량, 의사결정구

조, 생산 효율화 전략 등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운영 주체의 경영 태도와 경험, 시장 흐름에 대한 판단, 자금조달능력, 인력 확보 능력, 대내외 환경에 대한 인식, 농업정책에 대한 인식, 경영전략 등 비가시적인 경영자원은 투자 이후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수익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설비자본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 노력이 있어야 하며, 원물 가공, 체험 등 사업 영역을 확대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전략 수립과 실행은 운영 주체의 경영 역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림 5-2〉 농업법인의 경영성과 결정요인과 각 요인 간 관계



주: 노란색 선은 투자와의 관계, 회색 실선은 경영성과와의 관계를 의미함.
 자료: 이명기 외(2024: 237)에서 저자 수정.

예컨대 농업법인 구성원의 고령화와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경영성과에 한계가 생기는 것은 내부적 역량이 경영성과를 제약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업체 대표의 연령이나 위험 선호도 등 개인 특성도 투자 결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보습득 능력, 신기술 학습 능력 등의 특성이 직접적으로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경영성과 결정의 내부적 요인을 나타낸다.

국내 농업법인은 경영구조로 인해 중소기업 이상의 규모로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일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과 같이 지분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협의체로 구성된 조직은 느린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러하다. 최근 영농조합법인들이 그러한 이유로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고용 없이 1인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회사 형태와 관계없이 성장에 한계가 존재한다.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 중 하나는 환경 및 노동 규제 등 각종 규제, 세제, 보조금 정책 등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와 방법이다. 정부의 보조율, 법인세 등 법인 관련 세제 변화, 최저임금 및 주 52시간 근무제 등은 농업법인의 매출과 재무 지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다른 외부적 요인은 거시환경으로서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한 원료비 변동,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 자연재해 발생, 농업·농촌인구의 고령화 등 경영 주체가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요소이다. 예컨대, 국제 분쟁의 발발로 인하여 공급망 압력이 나타나 원료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였던 사례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례가 있다. 또한 농업·농촌인구의 고령화는 생산 가능 연령대의 양적 축소와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져 농업법인의 성장을 제약한다.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들은 내부적 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산업별 부가가치의 차이나 근무환경, 기대수익 차 등은 농업 분야 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소비 트렌드의 빠른 변화는 농업법인이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정부의 규제, 세제, 보조금 등의 정책은 인력의 고용이나 자본 투입, 승계 등 경영의 다양한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감소할 때 법인의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적 요인들은 투자라는 중간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투자는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농산물을 재배하고 가공, 유통하기 위한 구축물과 기계 등은 농업법인의 핵심 자산이며 이들 유형자산을 바탕으로 제품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투자가 없이는 농업법인의 성립 자체가 없다고도 할 수 있다.

업체의 내부적 요인이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운영 주체가 인식하는 시장 전망, 정보 획득 능력, 자금 조달 및 상환 능력 등에 따라 투자의 시점, 내용, 규

모, 조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금리 동향, 정부 보조금의 규모나 내용은 농업법인의 자금 조달 가능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이며 소비자의 선호 변화, 수입산 증가 등 경쟁 주체의 성장 등의 거시환경변수는 농업법인의 투자 내용과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외부적 요인과 투자 간의 관계도 존재한다.

업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업체는 추가로 보조금을 받기 어렵거나 담보 또는 신용대출 한도 소진으로 인하여 추가 자금을 조달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자금지원 측면에서 정부 정책의 변화가 있다면 보다 공격적인 투자가 일어날 수도 있다.

종합적으로, 법인의 경영성과는 투자를 매개로 하여 법인의 내·외부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대로 경영성과가 농업법인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경영성과의 개선 혹은 악화 여부에 따라서 후속 투자 여부가 결정되므로 장기적으로는 경영성과와 투자 간의 순환구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의 내·외부적 요인은 투자와 경영성과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법인의 내·외부적 요인 중 경영성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장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시장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서 법인의 성과가 대부분 결정되고,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없이는 법인의 운영이 원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법인 대표의 인터뷰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간 농업법인을 둘러싼 시장 상황과 경영성과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농업 및 농업 연관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법인은 위험과 기회가 상존하는 시장 속에서 매출이 신장하는 등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이 연구의 면접 대상인 업체와 재무 자료 분석대상이 된 업체들은 대체로 경영성과가 나쁘지 않은 상태에 있고 경기에 대한 전망도 비관적이지 않았다. 가격 변동성에 따른 위험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농업법인의 수익성은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외부적 요인보다 내부적 요인에 의해 성장 동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러

한 결론이 농업법인 전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장 동력에 한계를 가진 영세한 법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인해 전체적인 경쟁력은 하락하고 있다고 보인다. 영세 농업법인들은 대체로 대표의 개인적 경영 역량 부족과 정부 의존적 태도로 인해 전략적 투자가 일어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앞 장에서 제시되었던 유형 1에 해당하는 법인들은 기존의 개인경영체를 단순히 확장한 형태로 법인을 운영하기 때문에 개인경영체 규모 이상의 투자가 일어나지 못하여 기업적인 형태로 성장하기 어렵다.

농업법인의 전체적인 경쟁력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영세법인의 난립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가계와 경영이 분리되고 전문적인 경영 마인드와 기술을 갖춘 대표가 많아질 수 있도록 법인 경영의 풍토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

시장 상황은 통제 가능한 영역이 아니지만 주어진 시장 상황 하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특히 개인 역량과 성향에 따라 투자와 경영 성과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혁신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자세, 정부 지원보다는 독립적으로 경영하려는 경향이 강한 업체는 경영성과가 좋다. 따라서 농업법인 대표의 경영마인드,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고양할 필요가 있고 적극적으로 성장 의지를 보이는 업체에는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농업법인의 내실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책적으로 농업법인의 내부적 역량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추는 데 따른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젊은 경영인이 많아질 필요가 있다. 대표의 연령이 낮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적인 경영방식을 채택할 확률이 높다. 이러한 내적 특성은 법인의 투자와 경영성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세대의 진입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2. 정책 기본방향

정부의 정책이 단기적인 투자 활성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시장에 일정 부분 개입하여 시장 상황 자체를 변화시킬 수도 있으나(예: 수입 제한) 산업의 장기 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강하게 개입할 수 없다. 정부는 시장 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에 간섭하고,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서 농업법인이 경영 계획을 수월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장기적 방향성 하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컨대 정부는 보조 및 융자사업으로 농업경영체를 지원함에 있어 정부 지원이 지렛대의 역할에 한정된다는 점, 농업경영체가 정부가 아닌 민간 자본시장에서 자력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목표임을 원칙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자금 지원사업들은 민간의 자생력을 키운다는 원칙하에서 설계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기업가 정신 유도과 정부 의존 탈피를 위하여 자금 지원체계를 경영체의 독립에 맞추어 스스로 성장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업체, 성장을 이루어낸 업체에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다음 세대의 농업법인 진입을 촉진하여야 한다. 창업뿐만 아니라 법인 승계를 활성화하여 다음 세대가 부모의 자산을 물려받아 성장시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다수의 영세법인이 난립하기보다는 수는 적더라도 건실한 농업법인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여 농업법인의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3. 세부 정책과제

3.1. 우수 성과 농업경영체의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성과가 좋은 업체를 우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수 농업법인을 구별해 낼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이에 농업법인의 경영성과 평가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농업법인에 대한 경영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농업 관련 금융기관, 농업정책자금관리기관, 정책전문가 등이 참여한 평가체계를 만들어 평가 결과를 자금지원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농업법인의 재무 상태 및 신용 상황, 사업계획서 및 이행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성과에 따라 차등화된 등급을 부여하고 평가등급이 높은 업체에는 자금지원 조건을 우대할 필요가 있다.¹⁸⁾

예를 들면, 매출액 성장률이 평균 이상이거나 목표 수익률을 초과 달성할 경우는 높은 등급을 부여하고, 농신보의 한도를 경영평가등급에 따라 차등화하여 평가등급이 높은 업체에 더 높은 한도를 부여하도록 한다든지, 보조사업 대상을 평가받은 업체로 한정하고 등급이 높은 업체에는 보조율을 우대하는 방법이 있다.

3.2. 자구적인 경영자금 적립 지원

앞서 조사된 결과는 상당수의 농업법인이 당면한 경영 현안 해결에 급급하여 장기적으로 필요한 재투자 자금을 미리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농업법인의 자금 수요가 시설 투자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 자금 경색을 해소할 운영자금에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법인이 장기적으로 시설 재투자를 준비하고 일시적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18) 유사 사례로서 6차 산업 인증제도를 참고할 수 있다. 6차 산업 인증제도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과 농업 유관기관의 심사를 거쳐 인증업체를 선정한다. 인증은 3년간 유효하고 인증된 업체는 농촌융복합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위하여 내부 자본을 적립하는 데 대해 정부가 매칭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시설설치 및 구축 등 자금의 용도를 명시하여 보조하는 방식보다 법인의 자율성이 확대된다는 장점이 있으며, 성과가 좋은 업체일수록 매칭 비율을 높인다면 재무성과 제고의 동인이 될 수 있다. 유사 사례로 캐나다의 AgriInvest를 참고할 수 있는데, 경영체가 투자계정에 자금을 적립할 때 정부가 매칭하여 적립하여 주는 방식이며 경영체는 상시로 적립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참고〉 캐나다 농업투자계정(AgriInvest)

- (사업목적) 농가의 경영안정 및 소규모 소득감소 보전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저축투자예금 프로그램임
- (사업대상) 캐나다에서 농업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 또는 농업경영체
- (참여요건) 캐나다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한 농가 또는 농업경영체
- (운영방식) 가입자가 일정 금액을 전용 계좌에 예치하면 정부가 매칭하여 적립하고 가입자가 필요할 때 적립된 자금을 인출
 - 가입자는 경영체별 인정 순매출액(Allowable Net Sales: ANS)의 100%까지 예치
 - 정부는 인정 순매출액의 1%를 매칭하여 계좌에 예치
 - 인정 순매출액은 총농산물 매출액에서 생산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최소 25,000달러 이상, 100만 달러 미만만 인정
 - 잔액 상한은 최근 3년 평균 인정 순매출액의 400%
 - 농업인이 예치한 적립금은 Fund 1, 정부의 적립금과 이자는 Fund 2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인출 시에는 Fund 2에서 우선 인출
 - 정부는 인정 순매출액의 1%를 매칭하여 계좌에 예치함.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운영주체) Business Risk Management(BRM) 프로그램 부서와 농가소득 프로그램 부서가 업무 분담(퀘벡 제외)

자료: 임소영 외(2023: 100-101).

3.3. 보조사업 지원 자격 강화 및 보조율 상한 설정

정부가 제공하는 높은 보조율은 농업법인의 양적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창업 초기에는 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적이나 자산이 매우 부족하므로 보조가 법인 설립에 유용한 방편이 된다. 그러나 높은 보조율은 장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므로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 농업법인의 수적 증가가 농업법인의 내실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조 정책을 보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농업법인 대상 시설 보조사업들은 대부분 보조율이 50% 이상으로서 순수 자기자본 비율이 낮다<부록 1 참고>. 적은 자본금만으로도 시설을 설치하고 농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므로 영세법인의 난립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 보조 확대가 농업법인의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이지만 농업법인의 투자 자체보다도 농업법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궁극적인 목표이므로 그러한 관점에서 보조 정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에서 농업법인 시설 보조사업을 운영하며 정부의 보조 비율을 최대 50%로 제한한다는 점은 참고할 만하다. 강한 농업 만들기 종합지원 교부금(強い農業づくり総合支援交付金)은 사업 참여 법인에 사업비의 50%까지 보조를 제공한다.¹⁹⁾ 농지이용효율화 등 지원 교부금(農地利用効率化等支援交付金)의 보조율은 사업비의 30%이며 유형에 따라서 최대 1,500만 엔까지 지원된다.²⁰⁾

19) 강한 농업 만들기 종합지원 교부금은 산지 시설 정비, 식품 유통 구조 개선, 친환경·스마트 농업 전환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보조사업이다. 지역에서 사업계획과 목표를 설정하고 중앙정부에 자금을 요청하면 각 지역별 계획 및 성과목표에 대해 심사하여 국가가 교부금을 배분하는 방식이며 계획 달성을 위한 시설을 지원한다.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https://www.maff.go.jp/j/sei-san/suisin/tuyoi_nougyou/index.html, 검색일: 2025. 10. 13.) 참조.

20) 농지이용효율화 등 지원 교부금은 농지를 효율적·집약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경영개선을 할 때 농업경영체에 필요한 기계 및 시설을 보조한다. 순수 보조보다는 용자를 활용하는 업체에 보조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일본 농림수산성 홈페이지(https://www.maff.go.jp/j/keiei/sien/R6_nouchiriyou/, 검색일: 2025. 10. 13.) 참조.

〈참고〉 강한 농업 만들기 종합지원 교부금(強い農業づくり総合支援交付金)

- (지원대상) 도도부현, 시정촌,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그 외 생산자 조직 등
- (보조규모) 사업비의 40~50% 이내(상한 20억 엔)
- (지원내용) 고부가가치화나 생산비용의 절감 등 산지의 수익 확대, 탈탄소 생산 시스템 구축, 지역 인재 육성을 실시하기 위한 시설 구축 지원
- (지원요건) 농업 상시 종사자(원칙 연간 150일 이상)가 5명 이상, 성과목표의 기준 충족, 면적 요건 등 충족, 환경 부하 저감 실시, 체크 시트의 제출·보관, 산지 기간 시설 정비의 경우 총 사업비가 5천만 엔 이상,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실시하여 투자 효율이 1.0 이상
- (주요 대상시설) 육묘 시설, 건조 시설, 농산물 가공 시설, 저장 시설, 산지 관리 시설, 용토 등 공급 시설, 농작물 피해 방지 시설, 유기물처리·이용시설, 바이오디젤연료제조공급시설, 축산물처리가공시설, 가축시장, 가축사양관리시설, 자급사료관련시설, 가축생산환경감축시설 등

자료: 일본 농림수산업성(https://www.maff.go.jp/j/seisan/suisin/tuyoi_nougyou/t_tuti/R7/250107.html), 검색일: 2025. 10. 11.

〈참고〉 농지이용효율화 등 지원 교부금(農地利用効率化等支援交付金)

(1) 용자지원 유형

- (지원대상) 인정농업자, 인정취농자, 시정촌 기본구상에서 제시하는 목표소득 수준을 달성하고 있는 농업인 및 시정촌이 인정하는 자 등(단, 신규 취농자의 경우 인정농업자 또는 인정취농자에 한함)
- (지원사업) 1)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기타 농업경영의 개시나 개선에 필요한 기계 등의 취득, 개량 또는 보강
2) 농지 등의 조성, 개량 또는 복구
- (보조규모) ① 사업비의 30%, ② 용자액, ③ 사업비-용자액-지자체등에 의한 지원금 등 3가지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이 지원금이 됨.
상한은 개인·법인 공통으로 300만 엔 (단, 경영면적이 논 20ha, 노지 5ha, 과수 3ha, 시설 원예 1ha 이상인 경우 600만 엔이며, 선진적 농업경영 확립 지원 타입의 경우는 법인 1,500만 엔, 개인 1,000만 엔)
- (지원내용) 용자를 통해 농업용 기계·시설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영체 지원
- (지원요건) 용자를 받아 기계를 도입할 것, 각각의 사업내용에 대해 단년도에 완료할 것, 사업비가 정비 내용별로 50만 엔 이상일 것, 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계 등은 내용연수가 대략 5년 이상 20년 이하일 것, 농업경영 외의 용도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운반용 트럭·PC·창고 등)이 아닐 것, 지원대상자의 성과 목표와 직결되고 기존 기계 등의 단순한 갱신이 아닐 것.

- (주요 대상시설) 트랙터·전식기·콤바인 등의 농업용 기계 취득, 건조 조제 시설(건조기)·집 출하시설(선과기) 등의 시설 취득, 비닐하우스 정비, 논두렁 제거·배수 정비 등의 농지 개량

(2) 조건불리지역 지원 유형

- (지원대상) 농업자 등이 조직하는 단체,* 참가법인, 그 외에 사업실시 주체(시정촌)이 인정하는 농업협동조합, 토지개량구, 농업위원회, 제3섹터 등
- (보조규모) 정비 내용별 50%, 농업용 기계는 30%(상한 4,000만 엔)
- (지원내용) 경영규모가 영세한 지역에서 농작업의 공동화·농지의 이용집적 촉진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효율화 등을 도모하고, 의욕 있는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이용기계 등의 도입 지원
- (지원요건) 각각의 사업 내용에 대해 단년도에 완료할 것, 사업비가 정비 내용별로 50만 엔 이상일 것, 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계 또는 시설은 내용연수가 대략 5년 이상 20년 이하일 것, 지원대상자의 성과목표와 직결되고 기존 기계 등의 단순한 갱신이 아닐 것
- (주요 대상시설)
 1. 농업용 기계 등의 정비: ① 농업용 기계 등의 취득, ② 건조 조제, 집 출하, 육묘, 가공, 냉장, 저장, 포장, 고품질 퇴비의 제조 및 보관 등에 필요한 기계 및 시설 등의 정비, ③ 농업요수의 배관·펌프 등의 정비, ④ 판로 확대, 신선도 유지 등을 위한 시설 정비, ⑤ 재배관리 기술·경영관리에 관한 지도·연수, 토양분석, 작물의 품질검정, 토지이용조정 등에 필요한 기기의 정비 등
 2. 간단한 기반정비: 구획정리, 논둑정리, 용배수정리, 농로정비, 농지보전정비, 건물용지정비, 농용지의 교환·분할 및 합병 등에 의한 농용지의 집단화를 위한 토지평정, 측량 및 허가 신청

주: *은 농사조합법인, 농사조합법인을 제외한 농지소유자격법인, 특정농업법인 및 특정농업단체, 농사의 수탁 및 공동화, 농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을 하는 법인 또는 임의단체(취락영농조합 포함) 등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https://www.maff.go.jp/j/keiei/sien/R6_nouchiriyou/index.html), 검색일: 2025. 10. 13.

이에 보조금을 제공하되 농업 경영자가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합산 보조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보조사업의 수혜자 요건을 강화하되 경영성과 제고를 위한 실질적 노력과 경영성과 개선이 있는 업체에 더 큰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

현재의 농업법인 지원요건에는 사업 대상 선정 시 농업경영교육 이수, 근로자 수 증가 또는 정규직 전환을 한 업체를 타 업체보다 우선적인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금의 요건은 지나치게 완화된 기준으로 실제 우수 업체를 구별해 내는 데 불충분하다. 3일간의 교육 이수뿐만 아니라 실제 복식부기 시행 등 회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거나, 기술 개발 실적이 있는 경우, 매출 또는 영업이익이 증가한 경우 등을 요건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참고〉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 ④ 모든 요건을 갖추고 다른 법인과 동일 조건일 경우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은 다른 법인보다 우선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1회 3일 이상의 교육을 받은 법인. 교육은 복식부기,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축산 식품정보 활용방법, 기타 지원되는 품목의 영농기술 교육 등을 뜻한다.
 2.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법인. 단, 개별사업지침에서 규정한 일자리 지표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의 별표 6.

보조금의 제약은 단기적으로는 법인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스스로 자금 조달 능력을 갖추기 위한 체질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된다.

3.4. 경영자의 자금 조달·관리 역량 제고

정책자금은 사업성은 있으나 자본이 부족한 경영체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자금이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원론적으로는 담보 능력보다 사업성

을 평가하여 담보가 부족하더라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자금 수요자는 사업성을 증명할 자료나 능력이 부족하고 자금 공급자는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여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업 자금 수요자인 경영자의 자금 조달 및 관리에 대한 경영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은 투자 관련 정보를 농업경영체를 제공하고 있으나 농업경영체 입장에서는 농식품모태펀드에 대한 인지도도 낮고 여전히 진입장벽이 있는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²¹⁾ 투자자의 요구 조건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투자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험이나 역량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농식품모태펀드의 인지도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활용도가 높아질 수 없다.

농금원에서는 투자 준비 및 투자 후의 경영관리에 대해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데 연 1회로 제한되어 있어 농업인이 실제로 경영에 적용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투자뿐만 아니라 보조, 융자 등 가용한 자원에 대한 인지도도 높이고, 자금 조달 및 재무관리 능력을 전반적으로 키워 경영자로서의 마인드를 함양할 필요가 있다. 농업회계(경영 장부작성 등)를 활성화하고 농식품 기업컨설팅 및 금융컨설팅을 제공하여 농업법인이 더욱 기업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을 독려해야 한다.

3.5. 청년농 등 신규 진입자에 대한 금융지원

농업법인 인력은 고령화되고 법인의 승계는 더디다. 고령화는 종사상 지위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현상이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위험 회피 성향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업법인의 투자 활력 저하뿐만 아니라 성장 동력 약화가 우려된다.

농업법인의 초기 자본투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신규 금융 프로그램과 일시적인 자금유동성을 겪을 때 이를 완화할 수 있도록 소득안정계정(가칭)을 도입할

21) 농금원에서 운영하는 ASSIST에서는 성장단계별 자금지원 체계도를 제공하고 있다. ASSIST 홈페이지(<https://assist.apfs.kr/usr/main/main.do>), 검색일: 2025. 10. 13.

필요가 있다. 소득안정계정은 창업 초기 단계부터 예비비 성격의 자금을 적립하였다가 경영 상 위험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농업에 진입하는 청년농이 부모 세대가 구축해 놓은 자산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규모를 늘린다면 질적인 측면에서의 농업법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면접조사에서는 부모가 운영하던 농업법인에 자녀가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물려받는 사례도 있지만, 부모의 업체와는 별개로 독립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사례도 있었다. 자녀와 부모가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법인 설립 시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에 신청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녀가 부모의 업체를 물려받는 경우, 해당 업체는 업력이 길고 담보가치 소진으로 인해 자금을 새로이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자녀가 대표로서 재투자를 활발히 하기 어렵다.

따라서 승계 업체에는 기존 보조금 지원 내역이 있더라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농업법인이 자녀에게 승계된 경우는 보조금으로 획득한 자산의 내구연한을 축소하여 적용하거나 승계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3.6. 수출 등 시장개척 지원

그간의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국내 농산물 수요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므로 시장성이 나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또한 수입산과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국내 농식품 시장에서의 매출 확대는 더욱 어려워짐에 따라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데서 성장의 기회를 찾을 필요가 있고 농업법인 현장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높다. 최근 K-푸드의 인지도와 선호도가 해외에서 높아지는 것도 해외 시장 확대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농업법인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업법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외국의 식품 시장 트렌드나 식품 관련 제도 및 정

책 관련 정보를 정부가 지속해서 제공하되, 기존의 정보 제공 플랫폼을 강화하고 흩어져있는 시장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관 간 연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더욱 체계적인 자금지원을 위해서 농업금융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농업금융 전문기관이 투융자 자금 제공뿐만 아니라 쌍방향 소통 방식의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친화적인 육성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농업법인 시설 자금 지원사업

〈부표 1-1〉 농업법인 관련 보조사업

분야 (소관)	세부사업명	내부사업명	주요 사업 내용	지원 규모	한도
식량 (식량)	고품질쌀유통활성화	가공시설현대화	가공시설 현대화를 통해 쌀의 산지 유통기능을 활성화하고 고품질 쌀 생산기반을 확충하여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 도모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기준사업비 30억 원을 기준으로 지원 하되, 사업자의 여건 등에 따라 기준사 업비 증액 가능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을 통해 수확기 농가 벼 일 시 매입 능력을 제고하여 쌀의 가격안정 도모	· 통합RPC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일반RPC (국비)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집진시설 보강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기준사업비 7억 원(저온저장고 3억 원, 집진시설 보강 2억~5억 원)을 기 준으로 지원하되, 해당사업자의 여건 등에 따라 기준사업비 증액 가능

(계속)

분야 (소관)	세부사업명	내부사업명	주요 사업 내용	지원 규모	한도
식량 (식량)	전략작물산업화	시설·장비 지원	밀·콩·기루쌀 등 논 타작물 재배 및 발작물 연계를 위한 작부 체계 전환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논 타작물 단지화 · 1억~3억 원 이내 지원(총 2회까지 지원) · 들녘공동경영체 · 5억~8억 원 이내 지원(총 2회까지 지원)
		사업다각화지원	생산 또는 생산 이후 과정의 다각화를 위한 들녘(논+밭) 이용의 다양화, 논 타작물 및 발작물 등의 가공·채형·관광과 같은 새로운 분야와 연계하는 사업계획에 대해 가공시설 등을 지원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경영체당 시설·장비 10억~50억 원 내외 (총 2회까지 지원)
연구 (식품)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 지원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육성	식품 원료 제조업계의 수요를 고려, 식품소재·기반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및 농산물 수급 조절 도모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개소당 총사업비 7억 원 (국고 기준 2.1억 원) *최대 15억 원(2년 차 사업으로 추진)
수출 (식품)	농식품수출성장패키지 (舊 농식품글로벌경쟁력 강화)	생산기반 조성	안전한 수출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수출집약형 전문단지를 육성하여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국비) 90% (자부담) 10% · 중견기업 (국비) 80%(자부담) 20%	기업 규모 및 at 수출물류비 기준 수출실적에 따라 지원 비율 및 배정년도 차등 적용
기타 (농생명)	종자산업기반구축	우수종모종식보급기반 구축	무병종묘 등 우수한 종묘(종자)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종식 보급할 수 있는 기반(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자체 (국고) 50% (지방비) 50% · 민간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개소당 지원 기준) 대규모 15억~50억 원 중규모 5억~15억 원 소규모 3억~5억 원
과수· 원예 (유통)	과수생산유통지원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과수 주산지역을 대상으로 규모화·현대화된 신지유통시설을 지원	· 공공 (국고) 50% (지방비) 50% · 일반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150억 원 내외/개소 (부지구입비 제외)

(계속)

분야 (소관)	세부사업명	내부사업명	주요 사업 내용	지원 규모	한도
과수 원에 (유통)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 지원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품질저하를 방지하여 상품 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 도 모, 예냉(豫冷) 등 저온처리를 통해 농산물의 신 선도를 유지하고 유통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원예농산 물에 대해 저온저장 시설 등의 지원을 통한 수급 및 가격 안정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자체(푸드플랜)의 경우 국고 30%, 지방비 70%	· 예냉설비(차입식) 기준단가: 신규-106만 원/㎡, 개보수 -신규의 30% 이하 지원규모: 최대 66㎡ · 예냉설비(강제통풍식) 기준단가: 신규-91만 원/㎡, 개보수- 신규의 25% 이하 지원규모: 최대 66㎡ · 예냉설비(진공식) 기준단가: 2억 원/대 지원규모: 1대 · 저온저장고 기준단가: 신규-130만 원/㎡, 개보수 -신규의 50% 이하 지원규모: 330~660㎡ · 저온선별장 기준단가: 신규-90만 원/㎡, 개보수- 신규의 30% 이하 지원규모: 330~660㎡ · 저온냉수송차량 기준단가: 기성차량 및 개조차량 가격 에서 매정비율로 보조 지원규모: 1대
	원예시설현대화	고추비가림재배시설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시설면적 660㎡ 이상인 농가에 사업비 기준단가 33천 원/㎡ 지원)

(계속)

분야 (소관)	세부사업명	내부사업명	주요 사업 내용	지원 규모	한도
과수· 원예 (유통)	원예시설현대화	특용작물시설현대화	버섯류, 인삼 약용작물 등 특용작물에 대하여 신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생산시설 현대 화 지원으로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 제고 등 경 쟁력 강화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법인 10억 원, 개인 2억 원 * 버섯종균배양시설: 12억 원 * 팽이버섯자동화시설: 20억 원(수출 업체에 한함)
	반작물산업육성	반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반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 하고 통합마케팅조직과 계열화를 통해 시장교섭 력 확보 및 지역단위의 자율적 공급 조절에 기여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공동경영체별 10억 원 (1년 차 1.5억 원, 2년 차 8.5억 원)
원예 (유통)	스마트팜(CT융복합확산)	스마트팜(CT융복합확산)	시설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 기반 구축을 위해 스마트팜은 실·신·개축, 온실 내 온·습도 등의 최적 환경 유지 를 위한 시설물(천·축창, 양액, 다검보온커튼 등) 과 원격제어가 가능한 환경제어시스템 지원	(국비) 25% (지방비) 30% (융자) 25% (자부담) 20%	(스마트팜 시설보급·컨설팅) 2억 원 (시설원예현대화·에너지저장시설) 사업집행 시 실단가를 적용하되, 사업 시행기관장 및 사업주관기관장 책임 하에 철저한 검토·확인을 거쳐 집행
기기 (유통)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팔렛, 플라스틱 상자, 다 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에서 임차 하는 경우 임차비용 지원	(국비) 10% (지방비) 20% (자부담) 70%	기본배정은 전년도 물류기기 집행실적, 금년도 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자 체별로 배정하며 배정 한도 상한 없음

(계속)

분야 (소관)	세부사업명	내부사업명	주요 사업 내용	지원 규모	한도
축산 (축산)	기축분노처리지원	공동자원화시설	국정과제(악취와 온실가스 저감) 달성 및 개별농가 분뇨처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축분뇨를 공동으로 자원화(퇴액비, 바이오에너지)하는 시설·기계·장비 등 지원	공동자원화 시설(신규)	(민간형) 용량(톤/일)에 따라 기준단가 상이
				· 퇴액비화 (국비) 40% (지방비) 30% (농자) 30%	- 퇴비화: 87~53백만 원/톤 - 퇴액비화: 102~57백만 원/톤
				· 바이오연계 (국비) 40% (지방비) 30% (농자) 30%	- 바이오 연계: 79~62백만 원/톤 - 에너지화: 148~104백만 원/톤
				· 에너지화(공공형) (국비) 50% (지방비) 20% (농자) 20% (자부담) 10%	(공공형) 시설용량 300톤/일 이내, 사업비 400억 원이내에서 타당성 검토 및 예산심의를 거쳐 한도액 내 사업비 확정
				공동자원화 시설(개보수)	
				(국비) 40% (지방비) 30% (농자) 30%	증축: 30억 원 이내/개소 개보수: 15억 원 이내/개소
				가공·유통시설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1개소당 신규일 경우 9억 원, 보완일 경우 2.7억 원 이내
				경영체 기계장비	
				(국비) 10% (지방비) 30% (농자) 30% (자부담) 30%	20ha당 1set
	전문단지 기계장비				
	(국비) 30% (지방비) 30% (농자) 30% (자부담) 10%	70ha당 1set			
	농가 기계장비				
	(농자) 80% (자부담) 20%	연리 2%(2년 거지 3년 상환) *농자 예산 총 905백만 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19: 39~41)을 저자가 업데이트.

〈부표 1-2〉 농업법인 시설 관련 융자사업

구분	사업명	대상	한도	금리	대출 기간	비고
aT 지원사업						
수출	농식품글로벌육성 지원자금	농식품 수출업체	업체당 30억 원	2.0~3.0% (변동금리 가능)	10년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매 받기 말 이자)	(사업 의무) 시설완공 및 인증취득(해외인증 분야 신청업체에 한함)
식품외식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전통주류 포함)	업체당 30억 원	2.5~3.0% (변동금리 가능)	10년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매 받기 말 이자)	(사업 의무) 시설완공 및 국산 농산물 구매
	외식업체육성자금	외식업체	업체당 51억 원 (운영 50억 원 시설 1억 원)	2.5~3.0% (변동금리 가능)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사업 의무) 시설완공 및 국산 식재료 구매
	농공상용합형지원자금	농공상용합형 중소기업 (참가경영체 포함)	업체당 40억 원 (운영 20억 원 시설 20억 원)	2.5~3.0% (변동금리 가능)	10년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사업 의무) 시설완공 및 국산 농산물 구매
농업종합자금						
농축산생산지원	원예 축산 생산업 원에 축산 생산업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총사업비 80% 이내	고정 2.0% 또는 변동	13년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축산·유리·철골 온실: 15년(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지원 내용) 생산·재배시설 및 부대시설설치, 기존시설 구입, 토지매입, 자기배합사로 시설
	스마트팜 지원사업	농업인, 농업법인	(일반) 총사업비 90% 이내 - (청년) 10억 원 이하는 100%, 10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는 95% - 일반 50억 원, 청년 30 억 원 이내 (수직농장) 총사업비 80% 이내 (소규모 스마트팜) 총사업비 100% 이내(연당 5억 원 이내)	고정 1.0%	일반, 수직: 25년 (5년 거치 20년상환) 소규모: 13년 (3년 거치 10년상환)	(지원 내용) 스마트팜 시설 설치 및 기존 시설구입, 토지매입

(계속)

구분	사업명	대상	한도	금리	대출기간	비고
농업종합자금						
농축산생산지원	수출 및 규모화 사업	농산물생산업자, 농산물 가공사업자	총사업비 80% 이내 (5억~42억 원 이내)	여신금리-이자보전 (1.3~2.8%)	원예·가공: 13년 (3년 거치 10년 상환) 축산·유리·철골운설: 15년(5년 거치 10년 상환)	(지원 내용) 생산·가공시설 설치 및 기존 시설 구입
	고품질 우량종자 개발 사업	종자업등록업체, 개인육종가	총사업비 80% 이내	고정 2.0% 또는 변동	13년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축산·유리·철골 운설: 15년(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지원 내용) 종자생산 및 보관·저장시설 설치
	천적 및 곤충사업	농업경영체	총사업비 80% 이내	고정 2.0% 또는 변동	13년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축산·유리·철골 운설: 15년(5년 거치 10년 상환)	(지원 내용) 생산시설(연구개발 기자재 설치 포함) 설치
가공사업 등 지원	농산물가공사업	농산물가공사업자	총사업비 80% 이내 (50억 원 이내)	고정 2.0% 또는 변동	13년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지원 내용) 시설 설치 및 기존 시설 구입(토지 매입X)
	설기공산업육성지원	가공업체, 정부양곡 도정·보관업체	총사업비 80% 이내	고정 2.0% 또는 변동	13년 (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지원 내용) 쌀 가공식품 업체 신·증축 자금, 점포 시설비
	기술창업자금지원	중소기업체, 농업법인	50억 원 이내	고정 2.5% 또는 변동	10년 (4년 거치 6년 분할상환)	(지원 내용) 우수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소요자금 등

(계속)

구분	사업명	대상	한도	금리	대출기간	비고
농업종합자금						
농기계, 비료 등 농기자재 지원	농기계구입· 생산및사후관리지원	농기계구입자, 농기계 생산업체, 보관창고업자, 사후관리관련 업체	총사업비 90% 이내	고정 2.0% 또는 변동	13년 (3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지원 내용) 농기계 생산시설·설비 지원, 보관창고 설치
농촌관광산업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관광농원사업자, 농촌민박사업자 (민박의 경우, 농업인에 한함)	총사업비 80% 이내	고정 2.0% 또는 변동	15년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지원 내용) 체험 마을 공동시설·장비 설치 및 증축, 관광농원 시설 설치·증축, 기존 민박 증축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검색일: 2025. 10. 13.) 및 농식품부 내부자료.

〈부표 1-3〉 농업법인 시설 관련 신용보증사업

보증 종류	보증제도명	대상	한도	비고
일반 보증	일반보증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법인	개인 15억 원, 법인 20억 원	농 축협, 수협, 산림조합과의 상거래로 부 담하는 금전채무 농기계 또는 양식어업 장비의 임차료
	상거래채무 신용보증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법인	개인 15억 원, 법인 20억 원	
	농수산식품우수기술사업자 신용보증	기술전문평가기관(TCB,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T40이상의 평가서를 받은 농림수산업자	기술평가등급 T1·T2는 30억 원, T3·T4는 25억 원(단, 운전자금은 개인 15억 원, 법인 20억 원)	보증료율 0.2%p 차감 우대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신용보증	농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선정된 농림수산업자	30억 원	
	수출 규모화 사업자 신용보증	정부의 사업지침에 따라 '수출 및 규모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농림수산업자	30억 원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신용보증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기술혁신형중소기업으로 선정되어 확인서를 발급받은 법인	30억 원	
	현대화사업자 신용보증	농식품사업시행지침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자' 중 이차보전방식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의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자' 및 '월양어선 현대화사업' 대상자	개인 30억 원, 법인 50억 원	
	스마트팜 등 신용보증	농식품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선정된 스마트팜 지원사업자, 첨단온실 사업자,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자,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자	개인 30억 원, 법인 70억 원	
	민간미국종합처리정사업자신용보증	미국종합처리정을 설치·운영하는 자	개인 30억 원, 법인 50억 원	

(계속)

보증 종류	보증제도명	대상	한도	비고
우대 보증	농어촌발전 선도농어업인 신용보증	농어업인후계자, 선도농어가, 신지식 농어업인, 전통식품명인, 농정 등 포장자로서 수상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창업관련 보증」과 「저탄소 친환경 신용 보증」을 합산하여 최대 5억 원 이내	대상자금 : 선도농어업인 지정증서 또는 확 인 자료에 명시된 지정분야 및 업종에 소요 되는 정책자금 보증비율 : 최대 95%
	청·장년 귀농(어)창업 신용보증	귀농어 관련 정부의 사업지침에서 선정된 보증신청일 현재 창업 5년 이내인 만 55세 이하의 자	「창업관련 보증」과 「저탄소 친환경 신용 보증」을 합산하여 최대 3억 원 이내	보증비율 : 95% 보증료율 : 기준 보증료율 0.2%p 차감 우대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신용보증	창업 5년 이내인 만 39세 이하 농어업계 고등·대학교졸업자	「창업관련 보증」과 「저탄소 친환경 신용 보증」을 합산하여 최대 3억 원 이내	보증비율 : 95% 보증료율 : 기준보증료율 0.2%p 차감 우대
	농어업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신용보증	정부, 지자체, 농협중앙회가 주최하는 농림수산(식품)분야 창업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농림수산업자(입상일로부터 3년,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	「창업관련 보증」과 「저탄소 친환경 신용 보증」을 합산하여 최대 3억 원 이내	보증비율 : 95%
	저탄소 친환경 농어업인 신용보증	저탄소 농축산물 또는 유기농축산물 인증을 받은 자	최대 1억원 이내 (단, 「창업관련 보증」을 합산하여 최대 3억원 이내)	보증비율 : 95% 보증료율 : 기준보증료율 0.2%p 차감 우대

자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검색일: 2025. 10. 13.).

농업법인 인터뷰 업체 특성

〈부표 2-1〉 농업법인 인터뷰 업체 특성

개요	1	2	3	4	5	6	7	8	9	10	11
소재지	전남	경남	경남	충남	전남	제주	제주	전북	전남	전남	충남
조사방식	방문	방문	방문	전화	방문	방문	방문	방문	방문	방문	방문
직책	대표	이사	대표	대표	대표	대표	전무	대표	대표	대표	대표
연령	57	48	54	50	41	52	39	45	47	59	44
법인 유형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법인 설립시기	1994년/ 2023년	2022년	2011년	2024년	2011년	2015년	1996년	2023년	2009년	2009년/ 2013년	2023년
인력규모	조합원 183농가	조합원 5인	출자조합원 16명 공급조합원 62명 직원 4명	대표 1인 외 고용 없음	공동대표 2인 포함 가족 구성원 운영 상시 고용 2인	조합원 18농가 식당 포함 상시 고용 28명	임원 5명 상시 고용 4명	조합원 10명	임원 2명 상시 고용 12명 일용직 60명	임원 4명 사무원 7명 일용직 60~70명	대표 1인 외 상시 고용 없음 (가족 도움)
주요 종사 업종	농산물 저장 및 유통	농산물 저장 및 유통	농산물 저장 및 유통	농산물 저장 및 유통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체험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음식점 운영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체험, 농작업 대행	농산물 생산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농산물 생산 및 유통	농산물 생산

(계속)

개요	1	2	3	4	5	6	7	8	9	10	11
주요 취급품목	양파	멜로	친환경 농산물	양파, 콩	유기농 쌀, 쌀 기공식품, 장류, 발효제품, 체형프로그램 등	메밀, 메밀가공품	메밀, 보리, 귀리, 콩, 녹두, 유채 등	콩나물 콩, 밀	배, 대봉, 방울토마토, 감자, 고구마	완숙토마토	배
생산 규모	매출액 150억 원	조합원 하우스 약 20동	-	약 4.3만 평	유기농 쌀 20~30톤 (약 3만 4천 평), 전통 식품 2톤, 체형 및 교육 프로그램 연 100회	메밀 130톤	100ha	약 35만 평	지경 8만 평 계약재배 5만 평 포전매매 40만 평	지경 3만 6천 평 계약재배 2만 6천 평	3만 평
법인 설립유형	협업형 법인/ 독자 법인	가족농에서 법인 전환	협업형 법인	독자 법인	가족농에서 법인 전환	협업형 법인	독자 법인	협업형 법인	가족농에서 법인 전환	가족농에서 법인 전환	독자 법인

(계속)

개요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소재지	충남	충남	충남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기	전북	전북
조사방식	방문	전화	방문	방문	방문	방문	방문	방문	방문	방문	방문
직책	대표	대표	대표	대표	대표	대표	대표	상무	대표	대표	대표
연령	53	60	49	64	63	31	66	63	39	46	49
법인유형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2022년 일반회사로 전환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법인 설립시기	2021년	1992년 (2006년 인수)	2017년	2014년	2002년	2017년	2002년	1994년	2016년	2015년	2009년
인력규모	대표 1인 외 상시 고용 없음, 일용직(계절근 로) 5명 사용	50명 (모친이 운영하는 개인 사업장 20인 별도)	인건비 약 1억 원 수준	임원 5인 직원 10인	상시 고용 인원 12명 조합원 21명	대표 1인 등기임원 2명 상시 고용 인원 7명	상시 고용 인원 4명 조합원 120명	상시 고용 인원 7명 조합원 128명	13명	임직원 57명	직원 2명 조합원 10명
주요 종사업종	농산물 생산·수출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농산물 생산 신물질 개발	버섯 종균 생산	농산물 유통	스마트팜 시스템 설계	농산물 생산	농산물 유통	농산물 생산, 스마트팜 설치	동결건조채소 등 식품 가공	농산물 유통
주요 취급품목	배	신선란, 가공란, 지단, 액란 등	계란, 질병케어 슬루션	버섯 종균	사과	수작농장 시스템 설계 및 의료용 대마 재배	사인머스켓 캠벨 유색계 포도	오이(백다다기) 포도(사인머스켓)	채소류	채소	사과
생산규모	매출액 20억 원	전년 매출 300억 원	매출액 100억 ~150억 원	매출액 24.2억 원	연 매출 약 60억 원	연 매출 약 10억 원	연 매출 약 100억 원	연 매출 약 160억 원	연 매출 작년 73억 원, 올해 120억 원 예상	매출액 470억 원	매출액 48억 원
법인 설립유형	가족농에서 법인 전환	독자 법인	가족농에서 법인 전환	가족농에서 법인 전환	협업형 법인	독자 법인	협업형 법인	협업형 법인	독자 법인	독자 법인	협업형 법인

자료: 저자 작성.

- 경상북도(2016), 2016년 지역공동체소득체소득육성사업(지특) 시행지침.
- 고경성·남정민(2023),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성공요인 연구: ERIS 모델을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제18권 제6호: 71-86.
- 국승용·김미복·최지선·한보현(2017), 농업경영체 현황 및 농업투자 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명아·김은정·장원규·홍성민·윤창호(2020), 농업법인 제도 개선 및 관리 체계화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김병화·임현준(2002), “설비투자 결정요인 분석”, 경제분석, 8(4): 32-74.
- 김수석·박석두(2006),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우석·서범·임인섭(2017), “한국 농업법인의 적정부채비율 추정을 위한 실증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4): 135-142.
- 노미현·김태정(2009), “농업법인의 운영실태와 외부감사대상 농업기업의 주요경영지표 분석”, 상업교육연구, 23(2): 215-240.
- 농림축산식품부(2022), 농업법인조사.
- _____ (2024), 2024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시행지침.
- _____ (2025a), 2025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사업시행지침.
- _____ (2025b), 2025년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 사업시행지침.
- _____ (2025c), 2025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시행지침.
- _____ (2025d), 2025년 전략작물산업화 사업시행지침서.
- _____ (각 연도), 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
-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2019), 농업법인 업무안내서.
- 마상진·김유나(2020), 농업법인 참여 및 경영 실태 조사 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안석·김유나(2020),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문호·임지은(2014), 농업법인경영체 경영실태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산업통상자원부(2025), 2025년 알기 쉽게 풀어 쓴 중견기업 범위해설.

- 원주시(2024), 농촌자원복합산업화 및 향토산업육성 지원사업, 2025 신규추진 사업대상자(지구) 선정 공모.
- 이명기·연광훈·최현동(2024),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 경영 구조 전환 방향과 정책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명기·임소영·엄진영·최지선·김정승·채흥기·김도윤(2025), 한국농업의 구조 변화와 중장기 정책 과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태정(2007), “연구개발투자 및 설비투자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17: 291-307.
- 임경묵(2005), “기업의 설비투자행태 변화분석”,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임경묵(2008), “수익변동성 확대와 설비투자 위축”,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KDI JEP), 30(1): 1-32.
- 임소영·박미선·채흥기(2023), “소득 기반 경영안정제도 도입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임인섭·이철희(2016), “농업법인의 부채사용이 수익성에 미치는 한계영향 분석”, 대한산업공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논문집: 2490-2511.
- 장민기(2019), “미래농업을 위한 농업법인 제도의 활용: 한국, 일본, 프랑스의 비교를 중심으로”, 계간농정연구, 69호, 농정연구센터.
- 정재원·이인규·김성섭(2018),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농촌계획, 24(3): 55-62.
- 최수영·배진철(2021), “설비투자가 장기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금융정보연구, 10(1): 37-59.
- 최용호·임준혁(2019), 농업법인 제도와 운영 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통계청(각 연도), 농업법인조사.
- _____(각 연도), 농림어업조사.
- _____(각 연도), 농림업생산지수.
- 한국부동산원(각 연도), 전국지가변동률조사.
- 한국은행(각 연도), 국민계정.
- _____(각 연도), 기업경영분석.
- _____(각 연도), 산업연관표.
- 홍기석(2006), “최근 기업 설비투자 결정요인의 미시적 분석”, 경제분석, 12.1: 1-52.
- 홍범교·성명재·이동규·서주영(2021),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17) 영농조합법인·영어

- 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조세재정연구원.
- 황의식·정호근(2008), 농업 경영체의 조직화 효과와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Amoroso, S., P. Moncada-Paternò-Castello & A. Vezzani(2017), “R&D profitability: The role of risk and Knightian uncertainty”, *Small Business Economics*, 48: 331–343.
- Curtis, A., S. E. McVay & S. Toynbee(2018), “The changing implication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ditures for future profitability”, *SSRN Working Paper*, No. 2402886.
- Dang, T. H. Y., T. H. Nguyen & T. H. A. Dao(2023), “The Impact of Capital Investments on Firm Financial Performance – Empirical Evidence from the Listed Food and Agriculture Companies in Vietnam”, *Vietnam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s*, 6(1): 1735-1744.
- Ester, T. & V. Ballkoci(2017), “Capital expenditure and firm performance: Evidence from Albanian construction sector”, *European Scientific Journal*, 13: 231–238.
- Grozdić, V., B. Marić, M. Radišić, J. Šebestová & M. Lis(2020), “Capital Investments and Manufacturing Firms’ Performance: Panel-Data Analysis”, *Sustainability*, 12(4), 1689.
- Licandro, O., R. Maroto & A. P. Luis(2004), “Innovation, investment and productivity: Evidence from Spanish firms”, *EUI Working Paper*, No. ECO 2004/7.
- Pandya, B.(2017), “Impact of capital expenditure on firm’s financial performance: A study of select infrastructure companies in India”, *NICE Journal of Business*, 12: 75–83.
- Skevas, T., F. Wu & Z. Guan(2018), “Farm Capital Investment and Deviations from the Optimal Path”,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69: 561-577.
- Stutzman, S. A.(2017), “Differences across farm typologies in capital investment during 1996-2013”, *Agricultural Finance Review*, 78(1): 41-64.
- Sudiyatno, B., E. Puspitasari & A. Kartika(2012), “The company’s policy, firm performance, and firm value: An empirical research on Indonesia Stock Exchange”, *American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mporary Research*, 2: 30–40.

<법령>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시행 2025. 2. 21.,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 532호, 2025. 2. 21., 일부개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86호, 2024. 2. 6., 일부개정).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7호, 2025. 10. 1., 타법개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7호, 2025. 10. 1., 타법개정).

<보도자료>

뉴스토마토(2021. 11. 10.), “(단독)달걀 불안 키운 농식품부·식약처 ‘엇박자’…계란유통 센터 ‘좌초’”.

<온라인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검색일: 2025. 9. 10.

일본 농림수산성(https://www.maff.go.jp/j/keiei/sien/R6_nouchiriyou/index.html), 검색일: 2025. 10. 13.

_____(https://www.maff.go.jp/j/seisan/suisin/tuyoi_nougyou/index.html), 검색일: 2025. 10. 13.

_____(https://www.maff.go.jp/j/seisan/suisin/tuyoi_nougyou/t_tuti/R7/250107.html), 검색일: 2025. 10. 1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https://www.at.or.kr/contents/apko331100/view.action>), 검색일: 2025. 10. 13.

중소벤처기업부(https://stat.kosis.kr/statHtml_host/statHtml.do?orgId=142&tblId=DT_G50000&dbUser=NSI_IN_142), 경영지표(2022), 검색일: 2025. 1. 23.

_____(https://kosis.kr/common/meta_onedepth.jsp?vwcd=MT_OTITLE&listid=142_002), 중소기업기본통계, 검색일: 2025. 1. 23.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https://www.at.or.kr/contents/apko331100/view.action>), 검색일: 2025. 10. 13.

ASSIST 홈페이지(<https://assist.apfs.kr/usr/main/main.do>), 검색일: 2025. 10. 13.

CFI 홈페이지(https://corporatefinanceinstitute.com/resources/valuation/business-life-cycle/?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 2025. 9. 29.

KREI

www.krei.re.kr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T.1833-5500 F.061) 820-2211

